

March 2013

한국 교회 현대이슈

Korean Church Contemporary Issues

huhp@ctsnet.edu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Decatur, Georgia

차례

서문 -----	3
한국 교회 예배갱신에 관한 소고 ----- 최기욱 Giuk Choe choegiuk@mail.ctsnet.edu	4
설교의 전달력: 언어선택과 전달방법 ----- 허성영 SungYoung Huh shower724@gmail.com	12
새 찬송가 문제 많다: 21 세기 찬송가에 대한 고찰 ----- 박찬미 Chanmi Park laudatrix@gmail.com	20
강남 스타일의 흥행에 비취본 타민족 목회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 채명진 Chaemyung jin gomat0907@hotmail.com	29
이민교회 예배를 통한 문화와 언어적 장벽 허물기 ----- 강제철 J.C. Kang vap153@gmail.com	36
푸른 눈에 내린 신령: 무속을 통해 바라본 한국 교회 예배 불균형의 문제와 해결점 -- 김정훈 Tim Kim salib333@gmail.com	46
교회 분립 개척 ----- 양형구 Hyunggu Yang yhg0908@hanmail.net	53
한교교회의 세습, 무엇이 문제인가? 교회세습에 대한 신학적 고찰 ----- 이수광 Soo Kwang Lee narrowgate82@gmail.com	63
돈과 한국 교회 ----- 장찬영 Chan Hyung Chang cch9294@gmail.com	72
미주 한인들의 돈문제 ----- 조무재 Mark Cho markcho99@gmail.com	78
목회자의 교회갈등 관리 ----- 정관호 Kwan Ho Jung jkh6772@naver.com	87
동과서의 다른 시각들 Different perspectives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 백성인 John Paik barber9351@gmail.co	95

서 문

콜럼비아 신학 대학원 정규 수업으로 “한인예배와 설교 Korean Worship & Preaching” 클래스를 개설하여 우리말 수업으로 2012 년 가을 한 학기동안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모처럼 허락된 우리말을 사용하여 신학을 말하고, 한국 교회 및 이민 교회에 당면한 현대 이슈들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앞으로의 목회 비전을 세움에 뜻을 같이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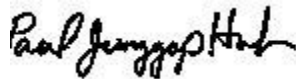
수업은 2 개의 과제를 제출하기로 약속하고 하나는 길선주, 주기철, 손양원, 이용도와 같은 한국 교회 역사속의 신앙 인물들을 영문으로 소개하는 작업과 두번째는 한국 교회와 관련된 최근의 이슈를 선택하여 우리말 발표를 하였다. 이번 모음집은 바로 두 번째 작업을 정리하고 모아서 하나의 자료집으로 공유하게 된 결과물이다. 첫번째 영문 작업과 달리 이 모음집은 출판이 목적이 아니라 미국에서 공부하는 한국 신학생들이 같이 함께 나눈 생각들과 고민들을 정리하여 봄으로서 서로의 목회 현장에 도움이 되고 다음수업에 참여하는 후배들에게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엮어본 것이다.

한 학기동안 수고하며 최선을 다하여 애쓴 학생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또한 미국 정규 신학교에서 우리말로 수업하는 시간이 이루어지게 허락한 학교와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다. 한국 교회에서 성장한 신학도로서 미국 신학교에서 배운 목회 방법론이 한국 교회와 이민 교회에 어떻게 적용되는 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여야만 한다.

신학은 상황화(Context)의 작업으로서 각자 처한 상황이 중요함을 고려하여 이민 교회를 비롯하여 한인 목회지로 향하는 한인 신학생들의 한인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이 수업을 통하여 목회와 신학을 정리하여 신학교에서의 수업을 연관시켜 한인교회 특수성에 대한 사전 준비를 미약하지만 조금이라도 할 수 있었음이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이고 이 글을 모아보는 목적이 될 것이다.

귀한 글들을 제출한 12 명의 신학생 중 한국에서 M.Div. 과정을 마친 양형구와 이수광 (현재 MATS 과정)을 제외하고 모두 콜럼비아 신학대학원 M.Div. 과정임을 밝히는 바이다. 아직도 수정해야 할 부분이 보면 볼 수록 나오지만 한 학기동안 수고하고 애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자료집이 완성되어 수업을 이끈 교수로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특별히 원고교정을 맡아 수고하여 준 조무제에게 감사를 전한다.

2012 년 12 월 12 일



허정갑
예배설교학 교수/한미목회연구소 소장
콜럼비아 신학대학원

한국 교회 예배갱신에 관한 소고

최기욱

들어가는 말

한국의 개신교는 100여년의 역사를 통해서 세계 교회가 놀랄만한 커다란 교회의 성장을 이루었다. 한국 교회가 이토록 짧은 기간 동안 놀라운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한국 교회 신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열정, 특히 예배와 기도의 열정이었다. 주일 오전, 오후 저녁 예배를 비롯하여 수요 예배, 금요 철야예배, 각 구역 예배, 그리고 서구 교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매일 새벽 예배에 이르기까지 한국 교회의 예배에 대한 열심은 교회의 폭발적 성장을 가져온 중요한 원동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봉착해 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그 외형적 성장을 멈추었거나 오히려 후퇴하고 있으며 내적으로는 더욱 큰 문제들을 노출하며 교회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유명 목회자들의 재정적, 성적 추문들, 교단과 신학교의 분쟁과 분열, 교회 권력을 둘러싼 교권주의자들의 정치 싸움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런 추문과 혼란들은 개신교인들의 신앙과 복음전도에 대한 열정을 크게 저하시키며, 특히 최근 인터넷을 통해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반기독교 세력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다. 현재 한국 교회의 상황은 개신교 전래 이래 최대의 위기라고 여겨지고 있으며,¹ 일부 급진적인 학자들은 중세 암흑시대의 교회 상황과 비교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일제시대부터 수많은 민족지도자들을 길러내며 조국의 광복과 근대화에 기여해왔다고 평가받던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의 조롱을 받는 대상이 되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과거 한국 교회의 중요한 성장 동력중의 하나가 ‘예배’이었듯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와 그 해결의 열쇠를 ‘예배의 갱신’에서 찾는다. 한국 교회의 예배는 교회성장의 중요한 원인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해 왔다. 따라서 본 소고에서는 철저한 갱신을 필요로 하는 한국 교회의 예배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예배 갱신에 대한 방안과 새로운 흐름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교회 예배의 문제점

예배 신학의 결여

한국 교회의 예배에 있어서 예배 신학의 결여는 예배학을 가르쳐야 하는 신학교의 책임도 있지만 예배 인도자나 예배하는 회중들의 예배 신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보다는 그 영광을 받으러 온다. 많은 현대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역사보다 인간의 감정에 호소하고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예배

¹ 이학준, 『한국 교회, 패러다임을 바꿔야 산다』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1), 19.

한국 교회 예배갱신

아닌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는 예배의 본질에 대한 성찰과 추구의 부재에서 오는 귀결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예배 신학의 결여인 것이다.²

한국 교회의 예배가 신학적으로 균형을 이루어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선 기독교 예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많은 신자들이 생각하는 예배의 중심은 안위와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것에 머물러 있다. “예배는 은혜를 받는 것이다,” “예배를 잘 드려야 복을 받는다.”, “설교를 듣고 위로 받으러 교회에 온다.”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생각들은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배의 본질은 아니다. 예배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통찰의 결여는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하나님 중심보다는 교인들의 이해와 취향에 맞춰 실용적인 방법으로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필연적으로 교회마다 진정한 부흥이 아니라 교회의 외적인 성장과 규모의 확장에 열을 올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즉 “은혜로운 예배는 사람들이 모이게 하고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형 교회의 예배는 은혜로운 예배이다.” 라는 의식이 확산되게 된 것이다. 또한 예배 신학에 대한 결여는 필연적으로 말씀의 약화를 가져온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세례 요한이나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회개와 거룩을 외치기 보다는 교인들의 비위를 맞추고 위로하는 숭사탕같이 부드러운 설교를 하고 있다. 이는 예배가 하나님을 위해 드러지기 보다는 교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도구로 왜곡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예배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설교’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풍조에 따라 찬양시간이 다 지난 후에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오는 지각신자나 설교가 끝나자마자 일어나 나가버리는 조퇴신자들이 나오게 되었다. 예배에 있어서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점들은 한국 교회에 예배의 신학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점들이라고 볼 수 있다. 예배자들이 이해하는 신학적인 관점에 따라서 예배의 성격과 생동력이 좌우된다고 볼 때, 예배 신학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³

말씀과 성만찬의 불균형

정장복 박사에 의하면 한국 교회의 예배가 설교중심의 예배가 된 것은 미국의 선교사들의 예배형식과 신앙형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결과 한국 개신교의 예배는 축제의 성격도 없고, 성만찬 안에서 주의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도 없이 설교위주의 예배로 변모하게 되었고, 따라서 성도들은 단지 교회에 가는 존재(church-goer) 또는 설교를 들어보는 존재(sermon-hearer)로 머물게 되었다는 것이다.⁴ 그리고 설교 이전의 순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게 되고 예배의 다른 요소들은 단순히 설교의 보조역할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예배는 말씀과 행동, 즉 말씀과 성례전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예배에서 이들은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성만찬이 왜 필요한가? 그 이유는 말씀과 성만찬이 조화된 예배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신비와 의미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⁵ 성만찬이 없는 개신교 예배는 설교에 집중할 수 밖에 없고 설교는 행위로 고백하는 의식이 아니라 음성으로 주어지는 선포이기 때문에 의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신자들이 예배의식을 중요시 하지 않고 “설교가 자신에게 무엇을 선포하는가?”에 최고의 관심을 둔다. 그러나 설교 중심의 예배는 주님이 몸소 제정하신 예배의 핵심 요소인 성만찬을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⁶

² Donald G. Bloesch, 『목회와 신학』, 오성춘, 최건호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28-29.

³ 정장복, 『예배학 개론』 (서울: 종로서적, 1993), 12-13.

⁴ 정장복, “한국 교회 예배, 예전형태 백년,” 『기독교 사상』, (1984, 12호), 65.

⁵ 정용섭, 『교회 갱신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1979), 268.

⁶ 김한용, “한국 개신교 예배에 있어서 성만찬 갱신에 관한 연구”, (총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47-48.

최기욱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제정하신 성만찬에 대한 관심이 결여되어 성만찬은 예배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설교에만 최대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배를 오직 설교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교인들은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지 못하고 설교만 듣는 자가 될 것이다. 예배는 말씀의 예배와 성례전의 예배가 올바른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완전해 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설교위주의 한국 교회의 예배는 초대교회의 성례전 예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비복음적 요소의 혼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불과 약 120년 전의 일이지만 한국의 언어와 문화는 이교적인 풍토 속에서 형성되어 온 것이다. 정용섭 박사는 한국 교회 회중들의 예배에 대한 의식에 있어 문제들을 초래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미신적인 샤머니즘, 우상 숭배적인 불교, 형식주의적인 유교 등의 정신적 바탕에 있다고 주장한다.⁷ 한국민족은 전통적으로 종교와 더불어 그 삶을 영위해 왔으며 한국에 전래된 종교 또한 한국인의 경험과 체험을 통하여 현지화된 것들로서 한국인의 문화와 토착사상에 의하여 재구성된 것이다. 따라서 서구를 통해서 전해진 기독교도 이미 기존의 토착화된 이교적 풍토 위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들 기성종교의 특성이 기독교 예배를 비롯하여 신학형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백천기 박사는 한국 교회에 끼친 샤머니즘인 영향으로 현세의 제재기복(除災祈福)을 추구하는 기복신앙을 들고 있다. 오늘날 현세중심의 제재기복사상은 기독교적인 옷만 입었을 뿐 한국 교회와 회중들의 마음속에 그대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복을 현세적인 동양의 오복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또한 많은 신자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복 받기 위하여 드리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다.⁸ 그에 따라 일부 신자들에게는 물질적 성공은 무조건 하나님께 축복받은 증거라고 생각하는 경향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예배는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이지 다른 무엇을 위한 방편이 아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어떤 효과를 위해서 예배를 시도한다면 그것은 이미 예배가 아니게 된다. 그러나 한국 교회에는 왜곡된 기복주의가 다분히 팽배해 있다.

예배와 일상의 분리

한국에 전승된 예배는 예배의 의미가 극히 제한된 의미로 정착되었다. 한국의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의 예배는 경건하고 엄숙하게 잘 드린다. 그렇지만 그것은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로 끝나버리고 세상에서의 생활과는 전혀 관계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실정이다. 이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회중들이 주일에 드리는 한 시간의 공중예배만으로 만족하는 왜곡된 예배관에서 온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신앙과 생활, 예배와 생활은 이질적인 것이 아니고 동질적인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결단이 있는 예배야말로 의미가 있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와 세상 속에서의 생활이 일치될 때 진정한“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것이다.⁹ 그러나 한국 교회 회중들의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만으로 끝나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진정한 예배는 세상 속의 일상 가운데서 계속하여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는 항상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자세로 드려야 하고, 이 세상 안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은 예배에 의해 견인되어야 한다. 삶의 현장인 현세에서 실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다면 주일예배에서 아무리 경건하고 장엄한 예배를 드렸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⁷ 정용섭, “그리스도 예배의 신학,” 『기독교 사상』, (1978, 12호), 86.

⁸ 백천기, “공예배 의식 갱신에 관한 연구”(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4), 31.

⁹ 김소영, 『예배와 생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4), 53.

한국 교회 예배갱신

부족하다.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예배갱신의 방향과 새로운 시도

성만찬의 회복

예배갱신 운동은 성만찬의 회복과 직결된다.¹⁰ 조동호 박사는 성만찬이 없는 예배는 “불구의 예배요 불완전한 예배”라고 주장한다. 한국 교회 공 예배의 갱신을 위해서는 말씀과 성만찬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주일예배형식이 제시되어야 한다.¹¹ 예배에서의 설교와 성만찬은 상호 보완의 관계이다. 설교는 영적이고, 성만찬은 육적이다. 따라서 설교와 성만찬의 관계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조화, 곧 말씀이 육신이 되는 신비의 조화”이다. 설교와 성만찬의 관계는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의 수난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는 관계, 곧 약속과 성취의 관계이다. 설교가 말로써 이루어진다면, 성만찬은 행동으로써 이루어진다. 설교가 청각을 통해서 인간의 이성에 호소한다면, 성만찬은 미각과 시각과 후각과 촉각을 통해서 인간의 심성에 호소한다. 설교가 세상을 준비시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면, 성만찬은 교회를 준비시켜 세상에 봉사하게 한다.¹²

또한 성만찬이란 보이는 말씀이요, 구원의 언약을 확인해 주는 실로 소중한 것이다. 그러기에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매 주일의 성례전 집행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 중요성을 높이 인정하면서 성례전을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현장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이 예전을 통하여 공동체의 재확인을 거듭할 것을 촉구했으며 매주 말씀의 예배와 병행할 것을 가르쳤다.¹³

오늘날 개신교회가 성만찬을 자주 하지 않는 관습을 갖게 된 것은 츠빙글리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가 바로 주일 예배에서 성만찬을 분리시킨 최초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츠빙글리는 성만찬을 은총의 방편으로도 생각하지 않았고, 기독교 예배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생각지도 않았다. 따라서 그는 한 달에 한 번 이상의 성만찬을 주장한 루터나 칼뱅과는 달리 한 해에 네 번 정도로 고정시켰다.¹⁴

이에 반하여 칼뱅은 “성례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동참한다. 따라서 그는 우리 안에, 우리는 그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은사를 즐기게 된다”고 하였고 성례는 단순한 마음에서 오는 기념행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신령한 교제를 체험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성찬식은 자주 가지는 것이 좋으며 매주 한 번씩 가지는 것이 좋다”라고 주장했다.¹⁵ 그러나 칼뱅의 건의는 제네바 의회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¹⁶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상당수의 개신교회가 츠빙글리의 주장을 개신교 전통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재현되는 성만찬이 연중 4회 정도로 밀려나고 단순히 기념행위로 여겨지는 현상이 바로 상당수의 한국 교회의 예배의 모습이다. 우리는 이러한 성례전이 예배에서 갖는 참된 의미와 그 신학적 내용을 소홀히 한 채 단지 번거로움과 시간의 지체됨을 인하여서 아주 특별한 날에 기념비적인 행사로 그치려 하고 있다.

한국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합동)의 표준예식서를 살펴보면 말씀과 성만찬의 불균형의 중대한 원인을 알 수 있다. 이 표준 예식서의 주일 공 예배 순서에 따르면 예배의 두

¹⁰ 허정갑, 『입체예배』(서울: 프리칭아카데미, 2006), 99.

¹¹ 김한용, “한국 개신교 예배에 있어서 성만찬 갱신에 관한 연구”, (총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46.

¹² 조동호, “성만찬 예배 회복의 필요성1” <http://kccs.pe.kr/rm07.htm>

¹³ 정장복, 『예배의 신학』(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9), 19-20.

¹⁴ 박근원, 『오늘의 예배론』(대한기독교서회, 1992), 33.

¹⁵ 이종성, 『칼빈』(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78), 152.

¹⁶ 조동호, “성만찬 예배 회복의 필요성1”

최기욱

축인 말씀과 성만찬이 함께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예배 중에 주의 만찬이 있는 경우가 별도로 제공되어 있다.¹⁷ 즉, 주의 만찬은 특별한 날에만 행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래 개혁주의 예배 예식서에는 예배의 구성은 선포와 고백(말씀)과 성만찬이 기본 구조를 이루고 있어서, 말씀과 성만찬의 균형을 유지하게 한다.¹⁸

또한 말씀과 성만찬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례전에 관한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교육의 부재는 결국 성만찬의 실제에 대한 몰이해로 이어졌고 말씀과 주의 만찬의 불균형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초대교회의 예배는 말씀과 성만찬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것은 하나의 예배의 두 순서였을 뿐이지 두 예배의 결합이 아니었다. 성만찬 없는 예배는 초대교회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 없으며, 예배에 있어서 말씀과 성만찬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기쁨을 경험하며 그리스도인의 인격으로 갱신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폰 알만(von Allman)은 왜 성만찬이 꼭 필요한 것인지 다음과 같이 종합하였다. 첫째, 그리스도에 의하여 제정되었고 명령되었기 때문이며, 둘째, 설교도 결국에 성만찬에 이르러 완성되기 때문이며, 셋째, 성만찬은 신자들로 하여금 설교를 ‘듣고 말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복음적 삶으로 뛰어들게 하는 헌신의 결단을 촉구하기 때문이다.¹⁹

지금은 바뀌었지만 과거에 미국장로교 목사의 정식 호칭은 “Minister of Word and Sacrament”였었다고 한다.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일 뿐 아니라 성례전의 집행자라는 것이다.²⁰ 성례전은 설교 못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매우 중요한 방편일 뿐 아니라, 예배자들이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본질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배의 본질적인 갱신을 위해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성만찬 예배를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배의 토착화

예배는 하나님 자신의 인격적인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인격적인 신앙 안에서의 정성 어린 응답이다. 여기서의 응답은 남의 감정이나 언어를 빌려서 드러지는 응답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을 드러야 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그들의 문화와 사고와 심성과 생활을 통해 위대한 사역을 하셨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복음이 세계로 전파되면서 유대 민족의 문화와 심성 그대로 전파되는 것은 아니다. 복음의 진리는 동일하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은 각 민족과 문화에 맞는 옷을 입었다. 즉, 복음이 들어간 그 땅의 일정한 문화적인 양태와 그 민족의 고유한 심성이 예배의 형식으로 구체화되어 있다.

기독교의 예배의 형태는 지난 2천년동안 유대문화를 벗어나 헬라-로마문화와 앵글로색슨 문화를 거쳐 미국의 신대륙에서 100년이 넘도록 머물러 있다가 한국 땅에 들어왔다. 따라서 우리에게 전해진 기독교는 여러 문화의 옷을 갈아 입은 것이고 그 문화권의 사람들을 위하여 다양한 내용을 가감(加減)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제 더 이상 한국의 교회는 남의 옷을 입고만 있을 필요가 없다. 온통 서양 것으로 가득 찬 예배가 아닌 우리의 심성과 우리의 옷을 입은 예배 형식의 발전과 개발이 필요하다. 정장복 박사는 성전의 구조와 모습에서뿐 아니라 회중이 부르는 찬송도 우리의 가락에 맞는 찬송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악기들도 사용되어야 하며,

¹⁷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표준예식서(개정판)』(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부, 2002), 21.

¹⁸ 김상구, 『개혁주의 예배론』(서울: 대서, 2010), 605.

¹⁹ Allman, 『예배학원론』(정용섭외 3인 공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0), 153.

²⁰ 허정갑, “예배에서 전통과 변화의 조화는 가능한가?” 21세기 이민교회의 비전 세미나(나성영락교회), 1998. 10월.

한국 교회 예배갱신

한국인의 신앙고백과 죄의 고백도 만들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서구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추수감사절 역시 우리의 계절에 맞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²¹

경배와 찬양

경배와 찬양(Praise and Worship)은 기존의 찬송가가 아닌 복음성가집이나 회중인 예배자들 앞에 비친 스크린의 성가를 사용하는 탈 형식적이며 현대 감각을 느끼게 하는 예배라고 할 수 있다. 찬양예배의 청중은 대부분 교회에서 성장했고, 흔히 예전적 예배에 참석하는 부모의 자녀들이다. 새신자는 대개 예전적 교회나 그 밖의 찬양예배 형식의 교회에서 편입한 경우가 많다. 이들은 종교적인 환경과 전통적인 종교언어에 대해 잘 알면서도, 원형극장, 공연장, 카페테리아 같은 분위기에서 더욱 편안함을 느낀다. 주보에는 주로 예배순서가 없고 광고만 있으며, 대체로 복음성가를 부르고, 즉흥적인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를 참여한다. “구도자 집회가 계단이고, 예전적인 예배가 집이라고 한다면, ‘경배와 찬양’은 복음적 과제의 현관이라고 할 수 있다.” “경배와 찬양”의 목적은 아직 미숙한 신자에게 그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가르치고 믿게 하는 것이며, 상징 혹은 전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 보다는, 사람들의 내면과 그들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다.

“경배와 찬양”은 크게 찬양과 말씀이라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설교자가 아닌 강사가 대개 성경의 긴 구절을 해설 형식으로 설명하며,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지시와 방향을 제공한다. 따라서 강사의 인격과 스타일이 무척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일반적인 예전적 예배가 성례전적이라면, “경배와 찬양”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음악이고, 새로운 악기의 개발, 새로운 곡조, 새로운 가사가 찬양예배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음악 지도자는 예배인도자로 불려지고, 신디사이저와 타악기가 많이 사용된다. “경배와 찬양”은 교회에 새로운 시청각 전문기술을 소개했고, 새로운 기술들의 목표는 회중의 감각을 동원하여 그들의 참여를 높이는 것이다.

현재 복미 기독교인들, 특히 젊은 세대와 소외된 기독교인들이 상당한 숫자가 찬양예배에 몰려들고 있다. 기존 신앙인의 자녀들이 예전적인 예배에서 찬양예배로 옮겨가고 있다. 오늘의 한국 교회에서 “경배와 찬양”은 1980년대 말 서울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소개되면서 한국 교회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고, 지금은 모든 교과를 초월하여 영향력을 넓혀 가고 있다.²²

새로운 시도, 구도자 예배

오늘날 현대 예배의 하나의 대안으로 이른바 “구도자 예배(Seekers Service)”라는 비교적 새로운 형태의 예배가 한국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구도자 예배(Seeker Service)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체험이 없는 불신자들과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솔직하고 쉽게 전달하기 위해 고안된 현대적인 예배이다. 이 예배는 불신자들이 교회 문화에 대해 갖는 거부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복음을 간단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한 전도 집회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구도자 예배는 시카고 교외에 위치한 윌로우크릭 커뮤니티(Willow Creek Community) 교회에서 시작하였다.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빌 하이벨(Bill Hybels)목사는 예배당 건물도 없이 극장 건물을 빌려 예배를 시작하였지만 현재에는 릭 워렌(Rick Warren), 조엘 오스틴(Joel Osteen)과 함께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목사 중의 하나가 되었다. 그는 윌로우크릭 교회를 개척하면서 설문조사를 통하여 불신자들이 전통적인 예배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파악하였다. 첫째, 불신자들은 성경이나 예배집을 사용할 줄 모르고, 언제 일어서며 언제 앉을지를 몰라 당황한다. 둘째, 사도신경, 복음, 사순절과 같은 용어들을 불신자들은 자신들과

²¹ 정장복, 『예배의 신학』, 33-43.

²² 정장복 외, 『예배학사전』 (서울: 예배와 설교아카데미, 2000), 939-941.

최기욱

무관한 말로 여기고 있었다. 셋째, 목사가 입고 있는 가운데나 교회에서의 상징, 제스처들이 비기독교인들의 이성적인 사고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넷째, 전통적인 예배에서 부르는 노래는 산문적이고 신학적이어서 초신자들이 따라 부르기가 어렵다. 아울러 비신자들은 고전 음악보다 현대음악을 더 좋아한다. 다섯째, 전통적인 예배가 수평적인 관계보다는 수직적인 관계를 강조하다 보니 예배에서의 친밀감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비신자에게 있어서 예배당은 대화하기 보다는 침묵과 명상을 하기에 좋으며, 높고 아치 형태로 된 천장과 예전적으로 디자인된 예배당 구조와 장식물들은 차갑고 비인격적인 것으로 보인다. 의자의 배열 역시 다른 예배자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이 오직 앞만 바라보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배당 공간은 친밀감과 따뜻함이라는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것이다.²³

이에 따라 하이벨(Hybels) 목사는 철저히 초신자의 눈높이에서 예배를 기획했다. 현재 이 교회는 교회보다는 대형 몰을 닮은 큰 캠퍼스에서 예배를 드린다. 건물에는 뚜렷한 기독교 상징도 없다. 사람들은 안내 요원에 의해 최첨단 기술로 지은 강당으로 이동하며 주보가 아닌 안내문을 받는다. 전문적인 앙상블은 성인 취향의 현대 음악으로 청중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든다. 다음에는 연극 팀이 그 날 주제를 발표한다. 주제는 죽음에서부터, 이혼, 전직, 아이의 출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후 강사가 등장하여 제기된 주제에 관하여 이야기를 한다. 그는 그 날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제안을 하고 청중을 신자들을 위한 예배에 초대한다. 이러한 구도자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약 매주 15,000명 정도라고 한다. 이러한 형태의 예배는 전에 없던 독특한 것으로, 전통적인 종교에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다. 구도자 예배의 목적은 교인 명부에 새로운 교인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와 감격적인 관계를 갖도록 예수를 소개하는 것이다.²⁴

그러나 구도자 예배는 다음의 몇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첫째, 구도자 예배는 예배라기보다는“전도 집회”로 보아야 한다. 구도자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참여한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소개하여 주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구도자 예배는 하나의 집회이지 전통적인 의미에서 “예배”라고 볼 수 없다. 이는 윌로우크릭 교회의 지도자들 스스로 자신들이 드리는 구도자 예배(Seeker Service)를 예배(Worship)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둘째, 구도자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신앙인을 위한 예배로 이동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다. 진정한 예배를 위해서는 핵심적인 신앙고백과 신자로서의 활동이 필요하다. 구도자 예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복음의 밥을 먹기 전에 죽을 먹을 필요가 있다고 대답한다. 그러나 구도자 예배가 사람들을 예수와의 언약적 관계로 이동시키려면 그에 적합한 지원과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셋째, 구도자 예배는 교회의 외형적 성장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왜곡될 우려가 있다. 최근 수적 둔화 현상을 극복하고 신세대들에게 신앙적 관심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교회들이 구도자 예배를 선호하고 있지만 이것은 예배에 대한 근본마저도 흔들는 수단으로 전략 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나가는 말

지금까지 간략하게나마 한국 교회의 예배갱신을 위하여 한국 교회 예배의 문제점과 갱신의 방안 및 새로운 대안 등을 살펴보았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직면해 있는 교회 안팎의 강력한 도전과 비판들은 옛 패러다임의 한계를 보여준다. 한국 교회가 변화하는 시대의 조류에 대처하기

²³ 조기연, 『한국 교회와 예배갱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158.

²⁴ Andy Langford, 『예배를 확 바꿔라』, 전병식 역, (도서출판 kmc, 2007), 52-61.

한국 교회 예배갱신

위해서는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는 더욱 더 성서적인 개혁이 필요할 뿐 아니라 형식적 측면에서는 새로운 예배표현에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 교회는 진정한 예배의 본질에 대하여 항상 고민하는 한편 예배의 전통과 오늘의 상황 사이에서 새롭고 창의적인 예배의 형식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고자료

- 김상구, 『개혁주의 예배론』. 서울: 대서, 2010.
- 김성진, “한국 개신교회 예배갱신에 관한 연구”. 서울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 김소영, 『예배와 생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4.
- 김한용, “한국 개신교 예배에 있어서 성만찬 갱신에 관한 연구”. 총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 박근원, 『오늘의 예배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 백천기, “공예배 의식 갱신에 관한 연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4.
- 이종성, 『칼빈』.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78.
- 이학준, 『한국 교회, 패러다임을 바꿔야 산다』.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1.
- 정용섭, 『교회 갱신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1979
- 정용섭, “그리스도 예배의 신학,” 『기독교 사상』, 1978, 12호.
- 정장복, “한국 교회 예배, 예전형태 백년,” 『기독교 사상』, 1984, 12호.
- 정장복, 『예배학 개론』. 서울: 종로서적, 1993.
- 정장복, 『예배의 신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9.
- 정장복 외, 『예배학사전』. 서울: 예배와 설교아카데미, 2000.
- 조기연, 『한국 교회와 예배갱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 조동호, “성만찬 예배 회복의 필요성1,” <http://kccs.pe.kr/rm07.htm>
- 허정갑, “예배에서 전통과 변화의 조화는 가능한가?” 21세기 이민교회의 비전 세미나 (나성영락교회), 1998. 10.
- 허정갑, 『입체예배』. 서울: 프리칭아카데미, 2006.
- Abba, Raymond, 『기독교 예배의 원리와 실제』. 허경삼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4.
- Allman, J.J. von. 『예배학원론』. 정용섭 외 3인 공역. 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1980.
- Bloesch, Donald G. 『목회와 신학』. 오성춘, 최건호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 Langford, Andy, 『예배를 확 바꿔라』. 전병식 역, 도서출판 kmc, 2007.

설교의 전달력 -언어선택과 전달방법-

허성영

들어가는 말

2009년 3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잘못 뺀 말 때문에 곤욕을 치른 사건이 있었다.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미 하원 외교위원회 의원들과의 비공개 회동에서 반기문 총장은 미국의 유엔분담금 납부연체 사실을 거론하며 ‘미국은 데드빋 기부자(deadbeat donor)’라고 말한 것이다. 이 ‘데드빋’은 빌린 돈을 제때 갚지 않는 사람이나 빈둥거리고 노는 사람을 뜻하는 속어로 면담을 마친 공화당 간사 일리아나 로스 레티넨 의원은 즉각적으로 성명을 발표해 불쾌감을 표시하고 비판했다. 유엔의 최대 기부자인 것은 맞으나 운영 예산중 10억달러 가량이 연체된 데에 따른 지적이었다고 반기문 총장은 설명했다. 그러나 그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오히려 백악관에서 공식적인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문제의 발언에 대해 철회를 해야 하느냐 마느냐도 중요한 사안이지만 일단 내뱉은 말로 인해 반기문 총장이 그동안 쌓아왔던 이미지에 마이너스가 된 것만은 분명했다. 그 후 반기문 총장은 그발언으로 인해 조금은 소외해진 미국과의 관계계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반기문 총장은 무엇을 잘못된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희랍의 웅변가인 데모스테네스(384-322 BC)의 대답을 들 수 있다. 그는 웅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가지 요소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았을때 “전달, 전달, 전달”이라고 답변했다. 반기문 총장은 즉 자신이 하고자 한 의도를 정확하게 그리고 청중으로 하여금 아무런 걸림돌이 없이 전달하는데에 실패한 경우라고도 볼 수 있다. 즉 전달방법중 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시기 및 언어의 선택이 조금은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전달하는 방법은 설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해던 라빈슨(Haddon Robinson)의 말을 빌리자면, 설교가 효과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말할 것인가?(설교의 내용)”와 함께 “어떻게 말할 것인가?(설교의 전달)”하는 문제가 바로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¹ 설교가 내용이 없어서 듣기 힘든 것도 있겠지만, 아무리 좋은 내용의 설교도 설교자가 어떻게 전달하는지에 따라 줄음이 오거나 아니면 성령의 기름부으심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맞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어떠한 언어를 선택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전달하는지에 따라 설교의 많은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이는 설교메시지의 방향성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언어의 선택과 전달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인가? 또한 이러한 차이에 따라 설교의 차이가 존재하는가? 이를 위해 본 소고에서는 설교뿐 아니라 현 사회에서의 언어의 선택과 전달력에 대해 알아보고, 이것들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이에대한 배경으로 현 목회현장의 목사님 몇 분을 선택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언어의 선택과 전달에 대해서는 교회안에서의 설교로서 중요성뿐 아니라, 현 사회에서 많은 부분 연구되고 이를 또한 적용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다. 리더쉽, 대인관계, 이미지등이

¹ Haddon Robinson, *Biblical Preaching*,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80), 191.

설교의 전달력

이를 통해 좋은 방향으로 또는 그 반대 방향으로 형성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주로 정치적인 성향이 드러나는 정치가들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교회밖의 언어선택과 전달방법

타자중심과 화자중심(오바마 vs 힐러리)²

리더는 ‘리더’라는 말 그 자체, 그리고 리더의 위치에서 오는 성과에 대한 부담 등은 자신도 모르게 리더 자신 위주로 말하게 되고, 이는 듣는 사람의 위주가 아닌 말하는 사람의 위주로 언어의 선택과 전달을 하게 된다. 그러나 오바마 미 대통령의 경우는 상대방 중심, 즉 ‘타자 중심’의 대화에 능통하다.

오바마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정치를 하겠다거나 대통령을 꿈꿔왔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다만 우리가 꿈꾸는 대통령의 필요성에 관해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듣는 이로 하여금 그가 바로 우리가 그려오던 대통령일 수도 있겠다는 신뢰를 자아내는 것이었다. 그는 선거 캠페인 연설에서부터 대통령에 당선되었을때까지 ‘나’라는 주어보다 ‘우리, 미국, 우리나라, 당신’등의 단어를 더 많이 사용했다.

*여러분이 여기에 온 것은 이나라가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직면해서는 평화가 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절망에 직면해서는 희망이 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을
소외시켰던 정치, 지금에 만족하라고 했던 정치, 우리를 너무
오래도록 분열시킨 정치에 직면해서는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완전한
단결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³*

2007 년 대통령 출마 선언문의 한 구절이다. 여기서만 보더라도 오바마는 희망의 메시지를 끌어내고, 듣는 이로 하여금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숨을 불어넣는다. 무엇보다도 오바마는 개인의 생각을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기존의 정치인과는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였다. 오바마는 개인의 경험을 진솔하게 공개해 감성을 자극했다. 무작정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들로 하여금 화자 역시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통해 동질감과 진정성을 느낀후 재인식된 상에서 오바마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오바마가 타자 중심의 대화로 리더십을 발휘했다면 힐러리 클린턴의 경우는 화자 중심의 대화로 리더십을 발휘한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힐러리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연설에 관심을 가졌다. 마틴 루터 킹의 이야기에 감명을 받고 전도 집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대중들의 열렬한 환호를 경험하게 된다. 이때부터 자신감을 얻은 힐러리는 웰즐리대학교 졸업식 연설로 그 가능성을 확실하게 인정받는다.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열변보다, 감싸주고 들어주는 감성적인 터치가 이뤄져야 하는데 진취적이고 공격적인 힐러리의 성향에 대다수 미국민들은 열광했다. 적어도 오바마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빌 클린턴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힐러리는 거센 비난을 받는데 익숙해져야 했다. 나서기 좋아하는 치맛바람 일으키는

² 리더피아, ‘리더와 말’(April, 2009) 에서 발췌 요약한 것임.

³ 2007 년 8 월 26 일 민주당 대통령 경선회중

부정적 이미지가 하 루에도 수십번씩 언론에 노출됐지만 힐러리가 일어설 수 있었던 원동력의 첫번째는 ‘새로운 나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자신의 존재의의를 명확하게 되짚고 상기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여성으로 승부욕을 검증받은 것이다. 어떤 비난도 감수하며 지혜롭게 위기를 인식하고 넘겼다. 자신이 옳다는 점에서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았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자신감, 승부욕이 뿌리깊게 박혀 있기 때문이다.

***No way, no how, no McCain.*⁴**

‘답도 없고, 방법도 없기 때문에 맥케인도 없다’는 힐러리의 연설 중 일부분이다. 힐러리는 자신의 강점을 부각하는데 상대방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 즉 전달방법에 있어서 앞뒤가리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특히 오바마와 경선대결에서 힐러리는 자신의 화법 덕분에 참패를 당하는 수모를 겪게 되었다.

내 남편도 캘리포니아주 프라이머리에서 이길 때까지 경선을 중단 하지 않았다. 우리는 로버트 케네디 전 상원의원도 6월 캘리포니아에서 암살당한 것을 기억한다.

자신의 경선이 계속 될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암살’이라는 단어를 굳이 쓴 이유는 ‘오바마’라는 이름이 ‘오사마 빈 라덴’을 연상시키는 것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고, 유권자들 역시 이러한 힐러리의 의도를 느끼지 못할 리 없었다. 오바마를 두고 힐러리는 ‘애송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 ‘나’와 ‘상대방’은 수준이 다름을 부각시키려고 한 것이지만 인종차별이나 비꼬는 말투로 상대를 누르려 하는 힐러리의 모습에서 오히려 불편한 카리스마를 느낀 것이다. 오바마의 약점을 들춰내 비꼬는 듯한 말투는 타자 입장에서 굉장히 권위적으로 들리게 마련이다. 오바마를 공략한 내용이었지만 타자의 입장에서 듣기에는 감동보다는 오히려 불편한 마음이 더 커지게 된다. 결국 이로 인해 오바마 대통령에게 유권자들은 발길을 돌리게 되었다. 즉, 힐러리는 언어선택과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유권자들에게 오바마 보다도 적절하게 다가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나’와 ‘우리’(박근혜 vs 안철수)

지난 8 월 15 일 조선일보 인터넷 뉴스⁵에 따르면 박근혜 새누리당 경선후보와 안철수 대선후보가 주로 쓰는 말과 화법을 정밀 분석하였다고 한다. 그 방법론으로는 단어의 빈도수 분석 및 어절에 대한 가중치 분석, 색인어 추출등으로 언어를 선택하였다. 이에 따르면 박근혜 후보는 미래에 대한 약속을 통해 유권자들을 설득하는 전형적인 정치인의 화법을 구사하고, 안철수 후보는 공동체 가치를 제시해 유권자와 현재적인 공감을 추구하는 제의적인 화법을 사용하였다.

박근혜 경선 후보의 경우 여러 연설문에서 국민(116 회)과 여러분(89 회)이 가장 많이 등장하였고, ‘정부’, ‘대한민국’, ‘국가’, ‘나라’등이 많이 등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 ‘경제’, ‘정책’, ‘일자리’, ‘시스템’, ‘경쟁력’, ‘행정’, ‘국정운영’, ‘부처’, ‘경제 민주화’, ‘산업’등의 기능성 단어들이 그 중간중간에서 정책 중심의 소통을 하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그는 ‘저’(68 회), ‘박근혜’(35 회)를 주어로 반복 사용하여 자신을 인식시켰다. 간략하게 그의 어록분석을 한

⁴ Ibid.

⁵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8/15/2012081500283.html?news_Head1

설교의 전달력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이와 같다. “신뢰(18 회)의朴 - "국민(116 회) 여러분(89 회)과의 약속(22 회)을 지키겠습니다”

이에 반하여 안철수 후보의 강연이나 기자회견문을 통한 그의 사용언어를 분석하자면 ‘우리(73 회)’, ‘사회(64 회)’, ‘생각(60 회)’, ‘사람(53 회)’등의 언어가 주를 이루었다. 그의 어록을 간략히 표현하자면 이와 같다. “소통(12 회)의安 - "우리(73 회) 사회(64 회)의 문제(25 회)를 생각(60 회)해 봅시다”

박근혜 경선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그들의 생각을 전달하는 방법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우선 박근혜 후보는 대담의 형식보다는 전통적으로 정치가들이 그래왔듯이 많은 지역연설을 통해서 본인의 생각과 의견을 피력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의 경우, 물론 대선출마선언이 늦어졌었던 이유도 있지만, 본인의 생각을 강연이나 사람들과의 대담, 그리고 본인의 생각을 책을 출간하여 대중과의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두 사람의 전달방법의 차이는 그들의 대중으로 하여금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큰 기여를 하기도 하였다. 이는 곧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표현하는 방법이었던기 때문이다.

한국적 정서에서의 전달방법

오바마와 힐러리의 경우와는 다르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안철수와 박근혜의 이미지 형성과정에서의 한국인의 정서가 어떻게 개입되었는가를 살펴 보는 것이다. 서양인과는 다르게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그들이 가진 언어와 표현력이 단순히 의사를 표현한 시점에서만 그치지 않고, 그들의 배경까지도 고려한 전후반에 걸친 모든것을 생각한다. 즉, 화자의 말뿐 아니라, 화자의 행동배경과 주변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표현에 대한 이해를 달리하는것이다. 이는 안철수와 박근혜의 이미지의 형성과정에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먼저 안철수의 경우는 젊은 20대에서 40대까지 기존 정치에 대해 실망으로 인해 다소 무관심한 세대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그는 기존의 기성 정치인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소위 무결점의 사나이이다. 학벌과 경력면에서 합격점을 받을만한 화려한 스펙을 지니고 있다. 또한 도덕적인 인성을 중요시하는 한국사회에서 존경받을 만한 생활을 해왔다. 하여 젊은 세대로 하여금 꿈꾸는 상의 조건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 받아왔다. 더불어 TV나 라디오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옆집 아저씨처럼 ‘평안하고 부드러운 소통’을 추구하다보니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사실 그가 말하는 화법에는 강약이 없고, 작고 가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러한 보여지는 이미지는 그가 생각하는 사상과 부합되어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근혜의 경우 어릴때부터 ‘대통령의 딸’로 주목을 받아서인지 늘 ‘개인’의 모습보다는 ‘대통령의 딸’의 이미지가 강하다. 늘 신중하고 절제된 행동은 어릴때부터 본인도 모르게 트레이닝을 받아온 것만 같다. 하여 언제나 말을 할때는 ‘절제된 중성미’를 지니고, 꼭 필요한 말을 하며, 신뢰감을 주려고 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딸’이란 이미지와 절제된 언어는 대중으로 하여금 박근혜는 ‘나와 같은 사람’으로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멋지지만 나와는 다른 인물’로서 평가를 받게 되는 역할을 한다. 즉, 신비감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대중과의 소통의 기회(대담 등)를 갖지 못함으로써 삶에서 대중에게 공감을 줄 수 있는 면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가 강조하는 ‘신뢰의 이미지’보다는 ‘불통의 이미지’에 기인하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다⁶. 즉 박근혜는 삶과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있어서 통일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몇 사례들로 인해 그의 이미지에 대한 타격을 받고 있다.

⁶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637489>

설교의 언어

교회 밖에서의 적절한 언어의 선택과 전달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설교자의 설교에서 사용하는 문장과 어휘선택에서도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설교안에서 문장력과 어휘에 문제에 대해 정장복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⁷

1.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면서 그 말씀을 운반하기 위해 사용하는 어휘나 문장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신경을 써야 한다. 설교자는 진리에 대한 통찰력과 함께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 좋은 묘사들과 문학적 표현들의 개발에도 힘써야 한다.
2. 문학적으로 다듬어진 문체를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설교는 사실을 사실대로, 직설적으로 서술하는 것만은 결코 아니다. 그 속에 흐르는 인간의 감정과 갈등과 느낌을 문학적인 표현으로 전하여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한다.
3. 문장이 너무 건조하며 문학적 감각이나 표현이 너무 빈약하고 구어체로 설교를 지속하게 되면 회중의 공감대나 관심을 끌지 못한다. 모두가 알고 있는 세계를 그대로 보여 줄 때에는 회중들의 감성을 찌를 수 없다. 문학적 표현이 있어야 회중들의 감성을 찌를 수 있다. 함축성 있는 언어와 시적인 언어의 개발을 통하여 좀더 극적이고 문학적이면서도 깊은 통찰력을 싣고 가는 한편의 아름답고 인상 깊은 그림이 되어야 한다.
4. 어감으로 감격을 느끼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별된 어휘와 표현된 문장에서 회중의 가슴을 적시는 감격이 주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있을 때 감정이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
5. 문장에서 주어와 생략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가급적이면 주어를 사용하는 문장으로 다듬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이는 설교에서 사용되는 어휘나 문장이 중요하고 이는 좋은 묘사들과 표현들로 설교안에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즉, 서론에서 이야기 했듯이 아무리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설교라 할지라도 적절하지 못한 언어선택과 표현들이 청중들로 하여금 설교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확한 내용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결국 설교자는 언어의 선택에 있어서 정확한 표현이 필요하다.

설교의 전달방법

어느 누구도 태어나면서부터 저절로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언어는 습득하게 되는 것이고, 이를 계발하지 않으면 다시 언어의 능력은 사라지게 된다. 조지 트루엣(George W. Truett) 목사의 일화에서 보면 그는 어떠한 공식적인 스피치 훈련 같은 것은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음은 분명했고, 그 전달은 효과적이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그가 처했던 특수한 환경에서 기인하는데, 대평원에서 카우보이들에게 설교함으로서 그는 음성을 개발했다. 또한 농아인 그의 동생과 대화하기 위해 입모양이나 발음을 분명히 해야 했기 때문에 좋은 스피치 훈련을 받은 셈이었다.

설교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와 그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설교자와 그 회중과의 만남 가운데 발생한다.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는가도 중요하다. 이는 언어적인 측면과 비 언어적인 측면으로도 나눌 수가 있는데, 언어적인 측면에서는

⁷ 정장복, [예배와 설교 핸드북] (홍성사, 2000), 68.

설교의 전달력

단어선택과, 표현, 음성의 속도등을 언급할 수 있다. 비언어적인 측면에서는 눈의 접촉과 제스처, 복장, 외모등을 꼽을 수 있다.

현시대 설교자 분석

그렇다면 현시대의 소위 존경받는 설교자들은 위와 같은 언어의 선택과 전달방법을 잘 지켜행해온 분들인가? 그러하기에 현재의 존경받는 또는 대중에게 친숙한 설교가가 되어 있는것인가? 그런데, 이곳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한국사회에서의 설교자는 어떠한 요소가 가장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이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적인 정서의 전달자의 윤리가 많은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삶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는 반대의 방향으로, 아니 적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며 살아가기에 대중들로 하여금 설교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외면하거나 또는 왜곡하여 받아들여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여기서는 어휘의 사용과 전달방법, 그리고 그에 기인하는 이미지 형성 배경 등을 살펴보고, 더욱이 삶과 메시지가 일치하는가 그렇지 아니하는가를 중심으로 대중에게 친숙한 두 명의 설교가를 예로 비교해 본다.

이재철 목사

이재철 목사는 88 년 서울 올림픽이 열리던 해에 50 여명으로 시작한 주님의 교회를 10 년 기념예배를 드리던 1998 년에는 2,600 여명에 이르는, 비교적 큰 교회로 성장 시켰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기독교가 점점 쇠퇴해가는 상황에서 성장을 거듭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재철 목사는 20 장에 불과한 요한복음을 6년 넘게 설교했는데, 2004년에는 이것을 10 권의 설교집으로 묶어서 출판했다. 이를 보고, 정용섭 목사는 그의 설교가 결국 텍스트에 의존하지 않거나 집중하지 않는다는 증거로 보고 있다⁸. 이를 역설적으로 풀어본다면, 그는 전병욱 목사의 ‘들리는 설교’처럼 청중의 귀에 들릴 수 있도록 텍스트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컨텍스트를 중심으로도 설교를 진행시킨다는 것이다. ‘요한과 더불어’ 6 권의 21 번째 설교 “버려두지 아니하고”(요 14:15~21)에는 아우구스티누스를 중심으로 한 시간의 의미, 소설가 박경리, 삼손, 쥐, 본문 18 절 해석, 수술환자 이야기 등의 진행이 된다. 이를 정용섭 목사는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교양강좌, 또는 신앙강좌라고 표현하였지만⁹, 이는 설교에서 적절한 예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청중으로 하여금 설교에 집중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한 하나의 좋은 전달력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렇듯 이재철 목사는 설교에서의 텍스트도 중요시하지만, 그보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사용하는 고급스런 언어사용¹⁰과 컨텍스트의 활용을 통해 메시지의 전달을 꾀했다고 볼 수있다.

그러나 그보다 세상에 더 주목을 받는 점은 몇가지가 있다. 첫째로 주님의 교회는 충분한 물질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을 건축하지 않고, 정신여고에 강당을 지어주고, 이를 빌려 사용하고 있다. 많은 한국 교회가 대형교회로의 성장을 지향하면서 교회 소유의 부동산을 늘려가는데 급급한 반면, 주님의 교회가 선택한 결정은 많은 크리스천으로 하여금 무엇이 진정한 교회인가에 대한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둘째, 주님의 교회는 교회재정 50%이상을 순수하게 세상으로 돌린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담임목사와 장로의 시무 임기제이다. 담임목사는 10 년으로, 그리고 장로는 13 년으로

⁸정용섭,[속빈 설교, 팍찬 설교] (대한기독교 서회, 2006), 257.

⁹ Ibid., 257.

¹⁰ 학부때 프랑스어를 전공하였기에 카뮈나 샤르트르등의 철학자의 영향을 받았으리라 사료된다.

임기를 제한하여 교회안에서 자칫하면 빠질 수 있는 소유욕과 권력욕의 함정을 제거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바뀔 수도 있는 이러한 제도를 철저히 지켜 행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재철 목사는 본인의 개인 소유물을 포기했으며, 주님의 교회를 떠날 당시에 교회에서 주는 비용도 거절했다고 한다. 이러한 교회의 제도적이고 실천적인 행위는 이재철 목사의 설교를 듣는 많은 크리스천으로 하여금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의 삶에 투영하여 바르게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한다. 즉, 설교를 통하여 전달되는 메시지처럼 설교자가 삶을 그렇게 살아가기에 대중은 설교의 진정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즉 메시지를 전달하는 설교자의 삶과 메시지가 일치할때에 메시지에 대한 청중들의 적극적인 수용이 있게되는 것이다.

조용기 목사

조용기 목사는 여의도 순복음 중앙교회를 설립하여 명실공히 세계최대의 단일교회로 성장시키고 세계적인 설교가로 활동하고 있다. 조용기 목사 설교의 핵심은 “삼박자 축복”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¹¹. 삼박자의 세가지 축복과 구제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요한삼서 1 장 2 절)’라는 말씀에서 영혼이 복을 받고,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고 건강하게 사는 것을 세가지 축복이라고 한다. 즉, 조용기 목사의 설교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영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축복을 받는 것이라고 단언한다. 따라서 이러한 그의 생각은 설교안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설교의 주제가 축복에 관련하기 때문에 이와같은 언어들 자주 사용한다. 그리고 그의 설교의 형식적인 특징은 무엇보다도 부드러운 말을 사용하고 추상적인 논리와 개념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의 설교의 대부분은 “저는..”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증언적인 논리를 쓰고 있다. 그러한 증언의 구조는 반드시 좌절과 그 좌절로 인한 갈등의 심화, 거기에서 그것을 극복하게 된 계기와 그것을 전환점으로 해서 현재의 만족스럽고 즐거운 삶으로 변화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적극적인 사고를 통해서 극적 체험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¹² “할 수 있다,” “육체적, 영적 건강을 얻는다”라는 단어의 사용은 조용기 목사가 개척하던 시절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나라 사정 가운데, 복을 빌어주는 신앙에 기인하게 된 역할을 하게 된다.

사회학자인 한완상 교수는 조용기 목사 설교에 대해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에서 정치지배세력의 언어의 사용방법과 극히 유사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¹³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성장만을 제 일차적인 정책목표로 하면서 그 물질적 성장을 위해서 통치의 정당성을 얻으려고 했던 1970 년대의 한국정치 엘리트들의 사고방식이 조용기 목사가 세계 복음화를 외치면서 경제력에 바탕을 둔 국력이 없으면 복음선교 사역을 세계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한 발상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것이다.

조용기 목사는 시대적인 상황을 설교안에 반영하였다. 즉 민중지향적인 신학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울장신대 예배설교학 김세광 교수 역시 조 목사 설교의 긍정적인 특징으로 “민중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꼽고 있다.¹⁴ 이처럼 조용기 목사는 설교안에서 ‘고난’과 이에 대한 ‘축복’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회중으로 하여금 공감을 불러 일으키고, ‘나’의 주체가 아닌 ‘여러분’이 주체가 되는 전달법을 사용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전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용기 목사는 그의 삶에서 그동안 그가 쌓아왔던 많은 이미지를 실추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남자라면 거론되기 마련인 병역문제에 있어서도 본인부터 의문의 의가사 제대를

¹¹ 조재국, “한국 교회 설교의 상징어 사용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2005, 163.

¹² Ibid., 164.

¹³ Ibid., 165.

¹⁴ 유경재, [한국 교회 16 인의 설교를 말한다] (대한 기독교 서회, 2011), 62.

설교의 전달력

하였고, 아들들도 모두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을 통해 의도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회피하였다. 뿐만 아니라, 돈에 대한 소유욕은 국민일보부터 교회에 관련된 많은 부분에 자식들을 임원진으로 기용함으로써 사회로부터까지 질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그의 주변의 삶은 그가 한평생 설교해오던 메시지와는 다른 실생활이기에 현재의 그의 설교를 듣는 이로 하여금 설교의 메시지가 아무리 옳다하여도 외면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상 이재철 목사와 조용기 목사의 설교내용과 전달방법을 통해 설교안에서의 내용에 대한 언어 선택과 전달방법이 상이함을 발견하였다. 더욱이 설교의 메시지와 삶에서의 일치성이 설교를 듣는 회중으로 하여금 순수하게 받아들이는가와 그렇지 아니한가의 차이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은 동양적, 나아가 한국 교회에서 설교자의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삶에서의 일치감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본다.

나가는 글

현시대의 교회가 갱신을 추구하고 혁신의 바람을 교회안에 도입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도착하게 된다. 그때에 가장 필요한것은 말씀의 중요성, 즉 설교의 중요성이 대두되는데, 설교의 두 기둥을 ‘내용’과 ‘전달’이라고 표현한다면, 설교자의 설교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 두가지의 기둥중에 어느하나라도 무너진다면 설교는 무너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한국의 교회에서 이보다 더욱 중요한것은 설교자의 삶과 메시지의 일치성인듯 하다. 교회밖에서의 메시지 전달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같은 방법으로 교회안에서 적용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한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참고자료

- Haddon Robinson, *Biblical Preaching*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80).
조재국, “한국 교회 설교의 상징어 사용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2005
리더피아, “리더와 말” April, 2009
유경재, “한국 교회 16 인의 설교를 말한다” 대한 기독교 서회, 2011
정용섭, “속빈 설교, 짝찬 설교” 대한기독교 서회, 2006
정장복, “예배와 설교 핸드북” 홍성사, 200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8/15/2012081500283.html?news_Head1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637489>

새 찬송가 문제 많다 -21 세기 찬송가에 대한 고찰-

박 찬 미

들어가는 말

‘21 세기 찬송가’란 2006 년도에 발행된 개신교의 찬송가를 일컫는 것으로 공식명칭은 ‘찬송가’이지만 기존의 찬송가들과 구분하기 위해 ‘새 찬송가’ 혹은 ‘21 세기 찬송가’라고 부른다.¹ 발행 이후 채 6 년이 지났지만 찬송가의 사용은 만족할 만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고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기존의 통일 찬송가를 사용 혹은 두 찬송가를 겸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벌써 또 다른 찬송가의 출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사태가 온 이유는 21 세기 찬송가 자체가 지닌 문제점과 더불어 각 교단, 출판사, 그리고 찬송가공회와 둘러싼 각종 쟁점들이 있기 때문이다.

1983 년에 처음 발간되어 20 년 이상 한국 개신교를 하나로 묶어 준 통일찬송가에 이어 교단을 초월한 한국 교회의 공 교회성을 그대로 지니면서 통일찬송가의 여러 가지 단점을 보완해 주길 기대했던 새롭게 발간된 찬송가가 어떤 이유로 6 년 동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새로운 찬송가의 필요성을 불러오게 하였는지 그 구체적인 취약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21 세기 찬송가의 출판되기까지의 배경

간략한 찬송가의 역사

한국의 찬송가는 1982 년 감리교의 찬미가와 첫 악보 찬송가인 1984 년의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한 찬양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여러 권의 찬송가들이 각 교단별로 혹은 연합으로 출판되어 이어지고 있다. 찬양가에는 117 편의 찬송이 4 성부 악보가 첨부되어 일본에서 인쇄되었다.² 초기의 찬송가는 선교사들에 의해서 소개된 외국의 곡과 가사가 대부분으로 이러한 번역 찬송가의 한계와 문제점은 당시부터 지적되어 왔었다. 선교사 게일은 (James S. Gale) 그의 선교 보고서에서 번역 찬송의 결함, 명료성, 운율, 억양, 경어사용의 측면에서 지적하였으며 한국의 토착적인 시와 노래로 된 찬양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³ 그는 “한국 사람은 놀랄 만큼 음악에 대해서 민감하다. 이러한 것을 보면 한국적인 토착 찬송가가 나오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토착적인 한국 곡조와 시로 된 찬송가가 나와야 할 것을 촉구했다.⁴

이후 교단연합으로 만들어진 찬송가를 중심으로 보면, 1908 년 장로교와 감리교의 합동 찬송가가 처음 소개 되었다. 1905 년 한국의 복음주의 선교단체들이 교파연합운동의 시점으로 복음주의 공의회를 조직하고 공용찬송가의 편성과 간행을 결의하였으며 곡조가 없이 발행된 찬송가는 1908 년에 피득목사내외 (Rev. and Mrs. A. A. Pieters)의 사적인 출판으로 곡조있는

¹하덕규, *목회와 신학*, 2006. 11 http://kcm.kr/dic_view.php?nid=38852

²조숙자·조명자, *찬송가학*, 장로회신학대학 출판부, 1985, 205.

³조도현, *21 세기 찬송가 분석*, 서울성경신학 대학원, 2010, 30.

⁴조숙자·조명자, *찬송가학*, 장로회신학대학 출판부, 1985, 216.

새 찬송가 문제 많다

찬송가로 발간되었다. 1946년에 감리교는 신정 찬송가를, 장로교에서는 신편 찬송가를, 성결교에서는 부흥성가를 사용하다가 해방과 함께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세 교파의 찬송가의 통일을 목적으로 각 교단의 합동연구위원을 2인씩 선정하고 1년간 연구과정을 거쳐 586장을 수집하고 성경 교독문을 첨부한 합동찬송가를 1949년 기독교서회를 통해 발행하였다.⁵

1963년부터는 개편찬송가에 대한 작업이 시작되었는데 이 때의 편집 원칙은 중첩된 찬송가의 단일화, 국가 및 민요 등의 곡조와 가사에 대한 재검토, 종류별 편찬의 유의, 예배용 찬송의 보강, 한국가사와 곡조의 보강, 교독문의 보충, 가사의 전면적인 검토⁶ 등이었고 한국인이 작사 작곡한 27개의 곡을 포함하여 600장으로 1967년 발행되었다.⁷ 개편찬송가는 이전의 찬송가들이 주로 전도의 목적으로 사용했던 복음가나 부흥가가 주축인 것에 비해서 예배찬송과 교회의 의식에 관련된 찬송들이 보강되어 부흥회 중심의 경향에서 예배 중심으로 변화된 시도를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인 찬송가가 20여편이나 포함 되었으나 기존의 합동찬송가에 익숙한 교인들에게 가사의 변화가 지나치고 당시의 애창 찬송이 많이 빠지게 되었으며 너무 진보적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여러 교단의 선택을 받지 못했고, 1970년대에 한국 교회는 합동찬송가, 새찬송가, 개편찬송가의 세 가지 찬송가가 모두 사용되고 있었다.⁸

그러나 같은 성경을 사용하지만 각종 연합 집회에서 찬송가가 달라 불편함이 이어지면서 교계에서는 선교 100주년과 맞물려 교단을 통합하는 찬송가에 대한 목소리가 모아지게 되었다. 이 작업을 맡은 기관은 1967년 한국 찬송가 위원회와 한국 찬송가 합동추진위원회가 공동으로 발족한 찬송가 통일 위원회이고 1981년에 곧 이어 찬송가공회가 조직되게 된다.⁹ 이 기관은 각 교단에서 파송된 위원들로 조직되었고 한국 찬송가의 개발을 위해 100곡의 신작찬송가 가사를 공모하고 선정하였다. 이렇게 제작된 찬송가가 1983년 소개된 통일찬송가이다.¹⁰

통일찬송가의 문제점

통일찬송가는 1983년 소개된 이후 한국 전체 교단에서 두루 사용되고 있고 21세기 찬송가가 소개된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통일찬송가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찬송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찬송가가 너무 적다는 것이다. 전체 찬송가 중 97%가 외국 곡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국인 작사, 작곡은 16곡, 작사 1곡, 작곡 1곡, 이렇게 총 18곡으로 전체의 3%만이 한국인의 창작곡이다.¹¹ 그 외에도 복음성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실제 예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찬양이 적어 같은 곡을 자주 반복해서 부르게 된다는 점이나 교회력에 따른 절기나 성례에서 실제로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적다는 점이 있다. 또한, 같은 곡으로 중복 편집되었거나 같은 가사가 곡만 다르게 해서 편집된 경우도 있다. 교향곡이나 오페라의 곡과 같이 본래의 작곡의도와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찬송가의 곡으로 사용되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더불어 역사적인 고증이 부족이나 편집과 구성에 관한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¹²

21세기 찬송가의 편집원칙과 의도

⁵Ibid., 229-230.

⁶Ibid., 231.

⁷조도현, *21세기 찬송가 분석*, 서울성경신학 대학원, 2010, 31.

⁸조숙자-조명자, *찬송가학*, 장로회신학대학 출판부, 1985, 232.

⁹<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1654>

¹⁰조도현, *21세기 찬송가 분석*, 서울성경신학 대학원, 2010, 32.

¹¹정병해, *한국 찬송가의 변천사 연구: 통일 찬송가를 중심으로*, 협성대 신학대학원, 2004, 52.

¹²정병해, *한국 찬송가의 변천사 연구: 통일 찬송가를 중심으로*, 협성대 신학대학원, 2004, 46.

이런 통일찬송가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21세기 찬송가의 편집원칙은 번역 찬송가에서 출발한 우리 찬송가의 역사적인 배경을 존중하면서도 번역오류나 문제가 되는 곡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는 것이었다. 잘 불리지 않는 찬송가를 배제하고 영어권 찬송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찬송가도 포함하며 한국인에 의해 작사, 작곡된 찬송의 수를 늘리고 다양한 세대가 함께 부를 수 있도록 하며 편집 부분도 실천신학자의 도움을 받아 실제 예배에 더욱 유용하게 쓰이도록 수정하자는 것이 그 편집 의도다. 이러한 원칙으로 발간된 21세기 찬송가의 편집형태를 표 4를 통해 비교해 보면 예배에서 사용될 수 있는 큰 항목 예배, 영창과 기도송, 성례, 그리고 예식 부분이 더욱 세분화 된 것을 볼 수 있다. 경배와 찬양과 전도와 선교 부분도 따로 큰 항목으로 분류되어 구분과 선택을 용이하게 하였고, 찾아보기 부분에서도 국가별, 운율, 성구 등을 추가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려고 노력하였다.¹³

21세기 찬송가에서는 또한 통일 찬송가 558곡 중 77곡을 배제하였는데 그 기준은 사용빈도가 너무 적거나, 같은 곡에 가사가 여러 곡인 경우, 같은 가사에 곡이 여러 곡인 경우, 한국인의 창작으로 대체될 수 있는 짧은 외국 송영곡 등이다.

21세기 찬송가의 관련된 쟁점들

21세기 찬송가 자체에 대한 평가

이렇게 출간된 21세기 찬송가는 그러나 그 편집 의도와는 달리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가사의 번역이나 신학적인 쟁점들, 음악적 문제들 그리고 구조적인 부분까지 다양한 문제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발표된 논문들과 기사들을 통해 보도록 하겠다.

이천진은 21세기 시제품 찬송가(2004)의 곡조 분석이라는 논문을 통해 21세기 찬송가에 포함되어 있는 세속곡에 대한 지적을 하고 찬송가 자체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였다. 그는 통일 찬송가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 무분별한 외국곡조의 사용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다음은 21세기 찬송가에 포함된 이천진이 예를 들어 준 세속곡에 관한 목록이다.¹⁴

a) 외국 국가

- 475장 전능의 하나님 (러시아 국가)
- 79장 피난처 있으니 (영국 국가)
- 208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독일 국가)

b) 외국의 세속 가요

- 14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프랑스 가요)
- 609장 오 거룩하신 주님 (독일 가요)
- 76장 내 진정 사모하는 등 4곡 (미국 가요)

c) 외국 민요 22곡

- 영국 민요: 21장 다 찬양하여라 등 4곡
- 스코틀랜드 민요: 273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487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 프랑스 민요: 123장 천사들의 노래가, 163장 할렐루야 할렐루야
- 네덜란드 민요: 75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등 2곡
- 스웨덴 민요: 49장 주 은혜를 받으러

¹³정세광, *통일찬송가-21세기 찬송가*,

<http://blog.naver.com/ccmpilgrim?Redirect=Log&logNo=10034579001>

¹⁴이천진의 논문에서 표기된 찬송가 번호는 통일찬송가에서 온 것이며, 논문 전문의 다음의 웹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http://blog.naver.com/lcjin927?Redirect=Log&logNo=60094489735>

새 찬송가 문제 많다

- 핀란드 민요: 401 장 주 사랑 안에 살면
- 미국 민요: 113 장 그 어린 주 예수 등 2 곡
- d) 외국 오페라 곡
 - 54 장 이날은 주님 정하신 - 오페라 ‘알렉서지스’
 - 59 장 주여 복을 구하오니 - 가극 ‘마을의 점장이’
 - 286 장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 오페라 ‘루치아’
 - 364 장 내 주여 뜻대로 - 오페라 ‘마탄의 사수’
- e) 외국 교향곡
 - 69 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591 장 오늘모여 찬송함은 - 베토벤의 심포니 9 번
- f) 미국 소방대원 교향곡
 - 353 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 미국의 소방대원 행진곡으로 남북전쟁당시 북국이 “남군 대통령, 제퍼슨 데이비스를 사과나무에 목을 달고” 라는 곡에 가사를 붙인 것이다.
- g) 외국 피아노 곡
 - 122 장 천사찬송 하기를 - 멘델스존의 작품 등 3 곡
- h) 미국 학교 노래책 곡
 - 388 장 어둔 밤 쉬 되리니 - 미국 보스턴 공립학교 노래책에 수록된 곡

이천진은 위와 같이 외국 곡이 무분별하게 많이 사용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애국가는 포함되지 않고 다른 나라의 이전 국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국내 창작곡이 통일찬송가에 비해 그 비율이 괄목할 만큼 증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한국인의 고유 곡조보다는 외국의 가요나 오페라와 같은 곡이 분별없이 쓰이는 것은 사대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복음성가가 통일 찬송가에서 사용되었던 것이 245 곡 (39.5%)가 그대로 사용되면서 젊은이들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현대 복음성가가 많이 포함되지 못하고 19 세기의 찬송가로 머물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조도현은 그의 논문에서 기독교개혁신보(2007. 4. 8)에 기재된 “21 세기 찬송가의 가사 검토”라는 이종섭의 기사를 바탕으로 가사의 오류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하고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다.¹⁵ 그는 잘못된 선곡의 예를 들고, 통일 찬송가에서 이어진 찬송가와 21 세기 찬송가에서 처음 소개된 찬송가, 그리고 번역 찬송가로 나누어서 가사의 오류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577 장 “날으시고 길러주신”에서 잘못 사용되는 존칭 표현이나 559 장의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불어오고)에서 필요 없이 어려운 표현이 사용된 것을 지적하고 있다.

정세광은 그의 칼럼 “21 세기 찬송가, 뭐하러 만드나”를 통해서 21 세기 찬송가의 한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¹⁶ 그는 기다렸던 통일찬송가가 통일이 되었다는 것 밖에는 곡수도 줄고 가사도 바뀌고 음악적 부호도 빠져서 나아졌던 점이 없었는데 그후 23 년만에 만들어진 21 세기 찬송가도 통일찬송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통일찬송가 베끼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는 또한 실제적인 예배상황에서 발생하는 선곡의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2001 년 초반에 800 곡의 편집 상황에서 선곡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는 주최 측은 결국 645 곡으로 곡수를 오히려 줄이며 선곡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한국 창작곡이 128 곡으로 이전 통일찬송가의 18 곡에 비해서 현저하게 증가했지만 한국 창작곡을 늘리려고 하다보니 한국인의 정서를 담은 곡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풍의 정체를

¹⁵조도현, *21 세기 찬송가 분석*, 서울성경신학 대학원, 2010, 49-64.

¹⁶<http://blog.naver.com/ccmpilgrim?Redirect=Log&logNo=10034579687>

곡조의 곡들이 무리하게 포함되어 창작자가 스스로 본인의 이름이나 곡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올 정도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곡들이 포함되게 되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 하덕규는 2011년 6월 목회와 신학에는 “21세기 찬송가”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클래식 작곡가들에게 의뢰해 쓰여진 생소한 찬송가들 -
21세기 찬송가에 우리나라 작곡가들의 새 노래가 많이 수록돼
있다. 기존의 558곡 중에서 사용 빈도가 낮은 80여 곡이
빠지고 160여 곡을 추가했다. 그 중에 한국인의 새로운
창작곡이 110곡이다. 우리나라 작가들에 의해 작곡된 새
노래들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반면에 새로 수록된 노래들은
우리에게 매우 생소한 것들이다. 언뜻 듣기에 한국 사람이
만든 창작곡이 많이 들어간 것이 자랑스럽고 고무적인 결과로
여겨진다. 하지만 새롭게 수록된 100곡이 넘는 노래들 중에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것들이 많고 대부분은 '21세기
찬송가'를 위해 새로 작곡된 노래이다. 그 노래들을 교회에서
익숙하게 부르게 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스타일 면에서도 새 찬송가는 이전 찬송가가 지닌 형식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노래들로 채워져 있다.
새로운 찬송가에 어쩌면 다음 편찬 때까지 부르지 않을 새
노래들도 꽤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새로운 곡들을 많이
수록하기보다 검증되고 동시대에 오랫동안 부르게 되는 친숙한
노래들을 일정 비율로 수록했다더라면 생소한 노래들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재 교회 음악이 우리가 서 있는 시대의 교회
문화 양상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찬송가 편찬 과정은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어쩌면 여러 세대가
공유하는 예배 문화 창출의 좋은 기회를 흘려보내는 것인지도
모른다.**

최근 기사에서 백효죽은 “상처투성이 <21세기 찬송가>와 회중 찬송가의 회복”¹⁷이라는 제목으로 21세기 찬송가에 대한 비평과 더불어 찬송가 공회 뿐 아니라 한국의 목회자와 각 교단에게 현 찬송가로 인해 빚어진 문제들에 대해 개선하고 나아가야 할 점을 촉구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21세기 찬송가나 혹은 그 후에 더 좋은 찬송가를 만드는 것 보다는 현재 목회자들이 교육을 통해 찬송가를 두루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목회자의 교육이

¹⁷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2209>

새 찬송가 문제 많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이전 통일찬송가도 실제적인 목회 현장에서 100 여곡 안팎으로만 사용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현 목회자들이 설교 위주로 예배를 진행하면서 주어진 찬송가도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했다. 무엇보다 그는 찬송가가 더 이상 교단연합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유명무실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토로했다. 찬송가가 일종의 교단의 ‘봉’이 되어 수익을 만들어내는데 쓰이고 각 교단 연합체들과 대형교회들은 이미 ‘연합’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가입과 탈퇴를 일삼고 있고 연합집회를 마저 교단 별로 이루어지거나 점보 스크린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찬송가를 통일해서 만드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21 세기 찬송가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가사, 번역, 음악, 편집상의 문제를 다루면서 세계적으로 내 놓아도 손색이 없을 각 교단 별 찬송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그가 지적한 저작권 보호에 관한 사안과 찬송가 편집 위원에 외국의 교포 교단을 포함시키자는 주장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이렇게 몇 가지 21 세기 찬송가에 관한 비판적인 견해들을 둘러 보았는데 사실 21 세기 찬송가는 찬송가 자체뿐 아니라 제작과정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공공연하게 이어져 왔다. 1997 년부터 10 년에 가까운 제작기간을 거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들이 아직도 매듭지어지지 않았고 찬송가 자체에 대한 비판과 외부적인 문제들은 새로운 찬송가의 필요성을 논하게 하고 있다.

찬송가 공회와 출판사 관련 문제

21 세기 찬송가와 관련된 문제에는 찬송가공회가 있다. 1981 년 시작된 한국 찬송가공회는 현재 두 개로 양분이 되었다. 이는 찬송가 공회를 법인화 하려는 쪽과 비법인 단체로 그대로 두려는 사이에 충돌이 있었기 때문이다. 21 세기 찬송가는 재단법인 공회에 의해서 출간되었고 현재 또 다른 새 찬송가에 대한 논의는 비법인 공회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찬송가공회는 21 세기 찬송가뿐 아니라 그 동안도 저작권이나 출판권과 관련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찬송가공회는 교단 연합 기관으로 각 교단 파송 이사들이 임원으로 활동하였다. 1981 년 시작된 이후 1983 년에 통일 찬송가를 출간하였는데 당시 통일 찬송가의 판권은 대한기독교서회와 생명의 말씀사에게 있었고 1998 년 생명의 말씀사 판권은 예장출판사에 이전되었다. 그러나 한국 찬송가공회는 이미 91 년 계약서와는 달리 판권을 일반 출판사에도 허락한 바 있었다. 21 세기 찬송가의 경우에도 2006 년 독점출판권을 약속하는 계약서와 달리 성서원등 4 개의 출판사에 출판권을 위임하는 것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되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대한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는 4 개 출판사를 상대로 고소를 하는 지경에 이른다. 2004 년도에는 공회가 9 억 2000 만원의 인세 중 교단에는 배당금으로 1 억 5000 만원을 주고 회의와 교통비에 1 억원을 사용한 것이 알려졌고 2007 년에는 30 억원의 수입 중 구체적인 내역은 공개하지 않은 채 그 중 8 억 500 만원이 탈세로 추징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런 와중에는 공회는 2007 년 찬송가공회 공동 회장이었던 이광선, 황승기 목사를 필두로 공회의 법인 전환을 시도하였는데 예장 통합, 합동, 기장, 기성, 기감, 기침 등 주요 교단에서 반대를 하며 공회의 독자적 세력화는 공교회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지만 비밀리에 2008 년 4 월 충청남도에서 재단법인 허가를 받아낸다. 새찬송가 위원회는 찬송가공회가 불법적인 절차로 위원회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고 반박하며 법인 취소를 주장하며 싸우다가 2011 년에 비법인 찬송가공회를 발족한다.¹⁸

¹⁸ 김은실, “찬송가 망친 찬송가 장사”뉴스앤조이 2012. 7. 29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1654>

Figure 1¹⁹



Figure 2²⁰

이렇게 출판사들과 두 공회의 문제가 얽혀있고 각종 소송이 이어졌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예장·서회와 비법인 공회는 찬송가공회가 불법으로 법인화했으며, 찬송가에 대한 권리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반면, 찬송가공회는 두란노·생명의말씀사·성서원·아가페와 함께 법인화의 적법성과 찬송가에 대한 권리를 외치고 있다.

새로운 찬송가에 대한 논의

이런 혼란 가운데 지난 7 월 26 일에는 각 교단 총회장들이 모여 21 세기 찬송가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미 새 찬송가인 ‘표준 찬송가’는 시제품 인쇄 단계에 들어갔다고 9 월 12 일 기독교연합신문 아이굿뉴스는 전하고 있다. 다음은 새로운 찬송가에 관한 기사 중 일부이다.

비법인 찬송가공회가 개발 중인 ‘표준찬송가’는 시제품 인쇄 단계에 들어갔다. 곡 선정이 마무리됐고, 일부 저작권 허락 절차만 남았다. (비법인 찬송가공회는 재단법인 설립에 반대하는 공회 파송 교단들이 모여 전통을 유지해온 곳으로 새찬송가 위원회와 찬송가위원회라는 찬송가 공회 상부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표준찬송가는 통일찬송가에서 사용하던 찬송과 더불어 한국인 찬송 70 곡이 포함됐으며, 복음성가와 CCM 등 집회찬송 70 곡을 추가했다. 집회찬송은 부록형태를 띠게 되며 원치 않는 교단은 첨부하지 않기로 했다. 복음성가 곡 대부분이 한국인의 곡이어서 전체 140 여 곡이 한국곡으로 지금까지 발간된 찬송가 중 한국 곡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다. 또 예배학적

¹⁹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1654>

²⁰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1654>

새 찬송가 문제 많다

구조를 담아 주제를 분류한 것도 눈에 띈다. 성부, 성자, 성령, 구원, 천국 등으로 이뤄진 기존의 신학적 구분을 살리면서도 '예배와 교회력에 따른 분류'를 추가했다. 저작권 무상사용 문제도 순탄하게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복음성가와 CCM 저작자들이 곡의 사용을 허락했고, 한국 찬송가 중 가장 많은 곡을 보유한 박재훈 목사도 흔쾌히 무상사용을 허락했다. 단, 비법인 공회는 저작권료 없이 찬송가 저작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대신 찬송가 발전을 위해 CCM 관련 협회에 기금을 지원하고 세미나와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공익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찬송가의 공교회성과 찬송가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모두 공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다.²¹

기사는 성도들이 부르던 익숙한 찬양을 어색하게 만든 21세기 찬송가의 단점에 대해서 지적하면서도 법인 찬송가공회의 법인이 취소가 되어도 여전히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 저작권료와 관련된 소송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 그런 예산 낭비를 막고 그 경비로 새로운 찬송가 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새로운 찬송가로 교인들과 교회들에 두 배의 부담이 될 수 있고 현재도 통일 찬송가와 21세기 찬송가의 장 수를 함께 표기하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찬송가가 삼분화되는 현상이 올 수 있다는 점들을 고려해 각 교단에서 해결에 몰두해 주길 촉구하고 있다.

나가는 말

10년의 제작과정을 거쳐서 한국 교회가 기다리던 새로운 찬송가가 불과 6년 만에 이러한 상황을 맞이한 것에 대해서 한국 개신교 교인이라면 누구나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을 것이다. 특별히 미국장로교에 소속한 신학교에서 학업 중에 있으면서 미국장로교의 새로운 찬송가가 곧 발간될 것을 눈 앞에 두고 그 제작과정을 간접적으로나마 지켜본 필자로서는 그 안타까움이 더하다. 어떤 기관의 잘 잘못을 떠나 한국의 온 교회가 함께 부를 것을 떠올리며 세대를 두루 아우르며 다양한 상황과 예배에서의 실제적으로 어떻게 쓰일 것인지, 교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불리게 될 것인지를 고려하여 선곡과 편집에 몰두해야 할 모든 관심과 힘이 이런 저런 개개인이나 집단의 이권 다툼에 휘말려 여기 저기 흩어지게 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모두가 함께 부를 수 있었던 통일찬송가가 한국 교회의 연합정신을 보여주는 좋은 도구이기도 했지만 모두가 함께 불러야 한다는 명목아래 그간 찬송가 자체의 신학적, 음악적, 역사적, 민족적 등 개별적으로 구분되고 고려되어야 할 것들에 대해 혹 연합정신을 무너뜨리더라도 할까 지나치게 너그럽게 대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교회가

²¹ <http://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6045>

박찬미

연합하는 에큐메니칼 정신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우리가 예배와 선교뿐 아니라 신앙생활 곳곳의 현장에서 부르는 찬송가 그 자체에 대한 고민과 연구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하나의 찬송가를 만들어서 함께 부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식으로 찬송가 제작과정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찬송가를 같이 부르는 것이 진정한 에큐메니칼 정신의 실현도 아닐 것이다. 이 글을 쓰는 지금에도 교계에서는 찬송가와 관련된 화두가 하루가 다르게 진행되어가고 있다. 한국 교회 찬송가의 역사를 훑어볼 때 연합찬송가와 각 교단 별 찬송가가 번갈아 출판되며 함께 만나는 지점도 있었고 또한 교단 별로 자신의 교단의 특색에 맞는 찬송가를 모아 편집하여 출판한 때도 있었다. 지금의 사태와 관련하여 통일찬송가의 뒤를 잇는 찬송가를 21 세기 찬송가든지 표준찬송가든지 무리하게 정하려고 하기 보다는 백효죽의 기사를 통한 제안과 그리고 본 수업에서 이 주제에 대한 토론을 통해 제시한 것과 같이 교단 별 찬송가를 출판하는 것이 어떨지 조심스럽게 제안해본다. 많은 교회들에서 큰 화면으로 가사와 악보를 같이 보며 찬송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가는 연합집회에서 찬송가가 달라 찬송을 같이 부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이미 옛날이 되었을 것이다. 각 교단 별 찬송가의 출판은 다양하면서도 신학적, 음악적으로 더 고려되고 다듬어진 찬송들을 소개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찬송가는 이제 종이로 출판된 찬송가 그리고 그 찬송가의 연합성 뿐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대답해야 하는 때가 되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세대는 기존 세대와는 달리 스크린을 통한 영상에 익숙하고 성경과 찬송을 들고 다니기 보다는 작은 기기 안에 넣고 다니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 찬송가의 목은 저작권 문제나 출판권 문제를 넘어서서 이 찬송가가 기존 세대 뿐 아니라 자라나는 세대에게도 또한 그 값어치를 존중 받고 쓰일 수 있도록 다양한 부분에 대한 고민과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자료

서적

조숙자·조명자, *찬송가학*, 장로회신학대학 출판부, 1985

논문

조도현, *21 세기 찬송가 분석*, 서울성경신학 대학원, 2010

정병해, *한국 찬송가의 변천사 연구: 통일 찬송가를 중심으로*, 협성대 신학대학원, 2004

양진주, *한국 개신교 찬송가에 관한 연구: 21C 새찬송가를 중심으로*, 이화여대대학원, 2008

이천진 <http://blog.naver.com/lcjin927?Redirect=Log&logNo=60094489735>

정기간행물

하덕규, *목회와 신학*, 2006. 11 (http://kcm.kr/dic_view.php?nid=38852)

인터넷 기사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2209>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1654>

정세광, *통일찬송가-21 세기 찬송가*,

<http://blog.naver.com/ccmpilgrim?Redirect=Log&logNo=10034579687>

<http://blog.naver.com/ccmpilgrim?Redirect=Log&logNo=10034579001>

김은실, “찬송가 망친 찬송가 장사” 뉴스앤조이 2012. 7. 29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1654>

<http://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6045>

백효죽, “상처투성이 <21 세기 찬송가>와 회중찬송가의 회복” 뉴스앤조이 2012. 10. 2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2209>

강남 스타일의 흥행에 비춰본 타민족 목회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채 명 진

들어가는 말

2001년 파격적인 노랫말이 돋보이는 곡 '새'로 데뷔한 가수 싸이는 12년 동안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적 컬러를 유지하며 대중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챔피언,' '낙원,' '연예인,' 'Right Now,' '흔들어주세요' 등 수많은 히트곡들을 선보인 그가 2012년 정규 6집 앨범 '싸이 6甲 PART 1'을 발표하고 타이틀 곡 '강남스타일'로 다시 한번 가요계를 뜨겁게 달궜다. 싸이는 전세계 음악 팬들이 주목하는 시상식 '2012 MTV Video Music Awards'에 한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로서 참석했으며, 한국 가수로는 최초로 유튜브 조회수 1억 건을 돌파하고, 미국 아이튠즈 TOP SONGS 차트 10위권 내에 진입하는 최고 기록을 세우면서 K-POP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매년 자신의 브랜드 콘서트인 '싸이의 썸머 스탠드 월씬 THE 흠뻑쇼'를 개최하고 있는 그는 파격적인 댄스 퍼포먼스, 감동을 전하는 노랫말, 재치 넘치는 무대 매너를 선보이며 보다 많은 팬들과 호흡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싸이의 성공 비결을 통해 타민족 선교를 꿈꾸는 한국 교회가 배울 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싸이가 뜰 수 있었던 이유

한류 음악 열풍의 배경과 실체

현재 한류열풍을 타고 한국의 많은 아이돌 가수들이 외국에 많이 소개되고 있다. 어린 나이에 일찍이 일본에 가서 한류 열풍의 주역을 일으켰던 보아나 동방신기, 샤이니등 많은 가수들이 현재 외국에서 활동하며 한국 연예인들의 위상을 날리고 있다. 그러나 냉정히 말하자면 현재 한류를 이끌고 있는 아이돌 그룹들을 '세계적인 스타'라고 말하긴 좀 어렵다. 우리가 지나치게 흥분한 나머지 국소적인 인기를 확대 시킨 점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가수들의 노래가 자국을 벗어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간혹 아시아의 큰 시장인 일본이나 영어권이라 할 수 있는 필리핀 가수들이 미국 시장에서 반짝 인기를 얻긴 했지만, 그것도 십수년 만에 한번씩 있는 일이었다. 이런 사정이다 보니 드라마로 시작된 한류의 인기가 아시아권을 시작으로 유럽 남미까지 알려지니 우리로선 들뜬 마음이 될 수 밖엔 없었다.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 전파 된 한류 음악들이 세계 곳곳에 전달 돼 인기를 끈 것은 사실이나 현지 교포를 비롯해 동양 음악에 관심있는 일부와 우리나라 청소년 팬덤처럼, 음악보다는 이들의 퍼포먼스와 비주얼에 관심을 보인 어린 팬들에 국한돼 있다는 점이다. '소녀시대'나 '원더걸스,' '세븐' 등이 인기를 등에 업고 철저한 계획하에 미국 팝시장 문을 열심히 두드렸으나 흔적만 남겼을 뿐, 기대한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그럼으로써 지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와 일부 한류 매니아를 벗어나 세계 대중들에게 어필하는 데 실패했다. 반면 '싸이'는 과거 병역 문제로 팬보다 안티가 많은 가수였다. 그의 노래들 중엔 꽤 히트한 곡들이 많은 데도 방송에선 아이들에

채명진

밀린 상황이었다. 그러기에 그의 미국 팝시장 진출과 빌보드 2 위의 쾌거가 놀라울 수 밖에 없다. 유튜브 조회수에서도 역대 통산 1 위의 기록을 수립했고 美대선 홍보물에서도 패러디 될 정도니 전 세계로 '싸이'가 골고루 뿌려진 것 만은 틀림없다.

싸이의 넘치는 끼와 열정 재미 그리고 개성있는 얼굴

보통 백인들은 동양여성들에게 매력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많은 기획사들이 국내 걸 그룹들을 외국에 진출시키려고 노력을 해왔다. 서양인에게 동양남자는 매력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싸이로 인한 서양인들이 자주 접하지 동양적인 마스크가 외국인들에게 신비하게 다가가게 되었다. 여론만 시끄러운 다른 해외진출 스타들과 달리 싸이는 외국에서 이미 엄청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다.

싸이는 이미 준비된 사람이였다

싸이는 콘서트의 끝판왕이라 불린다. 평균 3 시간 30 분의 공연시간, 다양한 이벤트와 볼거리를 더붙어 관객들을 한시도 가만두지 않는 폭발적인 무대매너 덕분에 싸이의 콘서트는 늘 매진 사례를 겪었고, 그는 공연의 제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싸이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나를 보고 즐거워 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너무 좋아서 공연을 안 할 수가 없다' 라고 말한적이 있다. 이렇게 팬들을 즐겁게 해주는 '공연의 제왕,' 싸이는 이미 예전부터 수많은 콘서트의 경험으로 준비가 된 사람 이였다. 또한 수많은 노래의 작사와 작곡, 그리고 음악 수상 경력으로 인해 그의 음악적인 재능과 실력은 이미 충분히 입증된 바 있다.

인터넷은 더 이상 우리를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 가둘 수 없다

유튜브에서 강남스타일 뮤직 비디오가 처음 공개된 이후 입소문을 통해 조회수가 빠르게 급상승하였고, 공개 두달째인 9 월 18 일 공식 조회수가 2 억 2 천만을 돌파하였다. 한국에서 열풍을 넘어 미국에서도 점차 싸이의 뮤직 비디오가 화제를 모으며 헐리우드 유명 연예인 (케이티 페리, 브리트니 스피어스, 탐크루즈) 등이 자신들의 트위터를 통해 언급을 하였고, 저스틴 비버의 매니저인 스쿠터 브라운의 눈에 띄게 되어 정식 계약을 하게 되었고 현재 싸이의 미국 현지 매니저를 맡고 있다. 특히 안무에 등장하는 말춤이 큰 화제를 모았고, MTV 뮤직비디오 어워드에 깜짝 등장을 하여 미국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이후 미국의 유명 쇼에 연이어 출연했다. 또한 미국의 최대 유료 음원 유통사인 아이튠즈 종합 싱글 차트에서 1 위에 이어 (현재 미국외에도 30 개국에서 1 위를 기록하고 있다.) 영국 아이튠즈 에서도 1 위를 하는 기염을 토했다. 9 월 20 일 미국 빌보드 차트의 매거진 격인 빌보드 비즈에 따르면 싸이의 강남 스타일은 빌보드 최신 차트의 싱글 메일 차트인 핫 100 에서 첫째주 64 위 둘째주 11 위 그리고 2 위까지 올라갔다. 이는 한국 가수 역사상 최고 순위 기록이다. 싸이는 최근 CNN 과의 인터뷰를 통해 오래전 일이지만 현재 성공에는 자신을 을 알려준 CNN 이 큰 역할을 했으며, 자신의 과거 사건을 용서해준 한국 국민들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싸이의 유창한 영어 구사능력

2012 년 9 월 23 일 동영상사이트 유튜브에는 '댄싱 위드 싸이(Dancing with PSY)'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랐다. 이 영상 속에서 싸이는 미국의 음악·엔터테인먼트 전문 채널 VH1 의 생방송 '빅 모닝 버즈 라이브(Big Morning Buzz Live) 스튜디오에 나와 프로그램 진행자인 제이슨(Jason)과 함께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나왔다. 영상에서 싸이는 제이슨에게 자신의 6 집 앨범 '강남스타일'을 소개하고 포인트 안무인 '말춤'을 가르쳐 주며 싸이는 "안녕하세요, 싸이입니다. 제가 바로 그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남자입니다"라고 유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하며

싸이와 타민족 목회

자연스러운 영어로 흥을 돋구며 말춤을 함께 춰보였다. 싸이는 실제 생방송에서도 자연스럽고 막힘없는 영어실력으로 프로그램을 이끌었다. 이처럼 안정적인 영어실력이 싸이의 미국 진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것이 가요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와 관련 싸이의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싸이가 20 대 초반 4 년 정도의 유학생활동을 통해 영어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 미국에서 인기가 있다고 해도 '언어가 약하면 아무래도 성공적인 진출에 장애가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런 점에서 싸이의 미국 진출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싸이를 통해 배울 수 있었던 부분과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

싸이의 공감과 참여의 마케팅 전략

시대가 원하는 최고의 마케팅 기법, 즉 **공감과 참여**를 싸이는 팬들에게 선사했다. 많은 기업 마케터들은 싸이는 배울점이 많은 이세대의 마케터라며 기업 마케터들은 꼭 싸이에게 배워나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요즘 마케팅의 가장 큰 화두는 어떻게 소비자의 마음을 얻어내는 공감 마케팅을 할 것인가이다. 과거 마케팅은 단순히 고객 욕구를 충족 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지금은 고객의 마음을 때려 반향을 불러내는 두드림과 마음 울림의 마케팅이 성공의 키워드가 되었다. 싸이는 이런 측면에서 훌륭한 모델이다. 그는 시대정신과 대중문화에 정확히 부합하는 콘텐츠, 강남 스타일을 만들었다. 세계인이 경제 불황의 늪에서 허덕이는 상황에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우스꽝스러운 말춤, 그리고 '오빠 강남스타일' 과 같은 강렬한 후크(짧고 매력적인 반복 후렴구), 1 분에 120 회 반복돼 가벼운 운동할 때의 심장 박동수와 비슷한 리듬을 제공하는 비트 등 재미와 흥미를 유발하는 보편적 코드를 활용해 공감을 얻어냈다. 그의 마케팅의 핵심은 차별화를 넘어 소비자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게 핵심이다. 싸이는 전 세계인들의 보편적인 정서와 문화를 정확히 이해했고, 이런 배경에는 '진정성'이 자리잡고 있다. 어려서부터 남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었고 방법을 찾으려 사람들을 끊임없이 관찰하였다. 그 결과 그는 관객들에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만한 추억을 만들어 줬다. 관객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고 싶다는 그의 철학과 마음 씀씀이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일방적으로 우리 상품이 가장 좋다고 강압적으로 알리는 푸시 마케팅은 지나간 시대의 기법이다. 이제 가식이 아닌 진실한 마음을 갖고 접근하는 진정성이 중요한 트렌드를 이끌어가게 되었다. 싸이는 그러한 것을 이끌어가는 선도자로서 본능적 직관과 진정성을 가지고 자신만의 철학을 지키며 끊임없이 노력하여 공감을 끌어내었다. 그가 사람들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팬들의 행복을 위한 그의 마음자세와 철학이다. 싸이의 성공 요소를 분석하기 앞서 시간을 두고 묵묵히 자신만의 철학을 실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싸이의 또 다른 전략은 참여와 소통, 그리고 개방의 코드이다. 그의 말춤과 노랫말, 그리고 뮤직 비디오는 누구나 쉽게 모방하거나 패러디할 수 있었다. '스타일' 앞에 새로운 말을 붙이면 자신만의 독창적인 패러디를 만들어 낸다. 실제 유튜브에는 '대구 스타일'을 시작으로 '홍대 스타일,' '경찰스타일' 등 수많은 패러디와 리액션 영상물이 등장했다. 소비자들은 패러디를 통해 자신만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었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인들과 공유함으로써 강남스타일을 중심으로 한 일종의 '공동체 의식'을 형성했다. 싸이는 이처럼 고객 참여를 통한 공동 브랜딩, 소비자 간 연대감 고취, 디지털을 활용한 자기 표현이란 새 시대의 기본 정신을 정확하게 짚어냈다. 새 시대의 교회 마케팅 역시 성도들이 자유롭게 콘텐츠를 활용함으로써 참여를 이끌어 내는 개방적인 자세를 요구한다.

싸이의 소통스타일, 'B 급 정서'

채명진

싸이의 문화적 소통방식을 한번 보자. 한 마디로 정의하면 ‘B 급 정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한 ‘싼티’나 저렴 콘텐츠가 아니다. B 급 정서는 풍자와는 다르다. ‘개그 콘서트’에서 자주 보여주는 풍자는 독창적인 표현방식으로 특정 대상에게 쏟아 붓는 것이다. B 급 정서는 마이너에게 통쾌함을 주면서 공감하게 하는 게 특징이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가수)과 내(대중)가 같은 처지와 입장이라고 생각하게 한다. 사실 B 급 정서는 사회 비판의 정서를 담고 있고 억눌린 마이너들을 결집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원래 B 급 영화도 서열주의를 거부하고 개성을 찬미하는 ‘작가주의’에서 나왔다고 한다 가령, 정형돈이 한동안 웃기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 자신이 “그래 나 못 웃긴다. 어쩔래”라고 자학개그를 한 적이 있다. 이 말에서 못 웃기는 사람들끼리, 다시 말해 마이너들이 지지하고 의지할 수 있는 심정적 언덕이 생긴다. ‘못 웃기는 사람’은 ‘공부 못하는 사람,’ ‘얼굴이 못생긴 사람,’ ‘돈이 없는 사람’등으로 대체 가능하다. 지금은 시대 상황이 B 급 정서를 요구한다. 다들 힘들어하고 요즘은 날씨도 더워 죽겠다. 돈과 권력과 꾀발에 눌리고 더위에도 치이고.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을 B 급이라고 생각한다. 이때 누가 B 급 정서로 자신을 대변해 줄 때 통쾌하고 시원하고 후련해져서 동질감을 느끼게 된다. 싸이는 높이를 많이 낮췄다. 음반을 내는 건 팔기 위해 소비자 기호를 고려하는 장사라고 말한다. 대중 정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스스로 삼류를 표방했고 삼류에 대한 개념도 확신했다. “나를 포함해 한국인들은 삼류다. 일류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 학벌이나 지연 때문에 배타적이지도 않다.” 싸이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B 급의 당당함을 내세운다. 대중은 이런 싸이를 수용하는 데 거부감을 갖지 않는다. 오히려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그런데 싸이는 특히 이런 콘텐츠를 전달하는 힘이 매우 강하다. 싸이의 외모는 강남스타일이 아닌 강북스타일이지만, 식스팩도 없는 물살 배를 자랑하지만, 옷도 광대같은 의상을 입고 마구 흔들어대지만, 처음부터 탄따라나 삼류 연예인을 표방해 ‘엽기’나 ‘사이코’나 ‘포라이’로 보는 시선이 있었지만, 일관성을 갖췄고 대중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반전 요소도 충분히 지녔다. 싸이가 서민적인 비주얼이지만 사실은 부잣집 아들이며 버클리 음대에서 수학한 뮤지션이요 아티스트이다.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타민족 선교개발의 필요성과 전략

타민족 선교의 필요성

미국은 세계 제 1 위 기독교 선교 국가인 동시에 종교적 다원주의, 인본주의, 자본주의의 극치를 이루는 나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다. 이미 이세상은 지구촌(Glocalization)화 되고 있다. 특히 인종주의가 지속되는 세계화 현상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화의 핵심 주제는 다민족 커뮤니티 증가, 복합문화 적용, 종교다원주의 인정, 포스트모더니즘 확산이다. 이것들은 기존의 기독교 선교에 대한 인식에 변화를 요구한다. 이 변화는 새로운 선교적 패러다임을 창출해야 할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사회화, 현대화, 세계화는 선교의 중심 과제가 아니다. 각 민족이 지닌 본연의 삶의 문화와 전통, 종교적 배경을 기독교화 하려는 성급한 선교사역으로 민족간, 종교간의 갈등이 심화 된 모습들을 볼 수 있다. 미개지역이든 문명지역이든 구원의 대상들에게 보다 쉽게 복음을 전달하는 길은 바로 동질적 삶의 문화와 전통, 종교적 배경을 지닌 동족 중에서 하나님을 먼저 알게 된 그 사람을 복음의 역군으로 삼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타민족 선교 개발의 원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캐나다, 유럽으로 유학, 취업, 이주한 각 민족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 종족을 복음화하게 하는 사역이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된다.

싸이와 타민족 목회

타민족 선교의 어려움

타민족선교에 헌신한 한인목회자가 아직은 많지 않지만 세계화의 시대에 있어서 이주국가에서 사역하고 있는 복음의 역군들은 삶의 현장에서 여러 인종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황금어장을 볼 수 있도록 선교개발을 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한인교회는 오히려 다민족보다는 한인들만을 선호하며 목회를 하였기에 다른 인종이 한인교회에 영입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것은 한인 2 세들이 대부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고, 특히 외국인과 혼인하게 되면 배우자와 함께 한인교회에 참여하기 보다는 정착 교회 또는 신앙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민족선교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또 하나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도 다민족 선교개발의 영역이다. 안타깝게도 기존의 한인교회들과 고유 민족성을 고집하는 소수민족 교회에서 다민족선교를 위한 참여도는 매우 미흡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민족 선교 개발을 거부하는 현재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타민족 선교개발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과거에는 미전도 종족을 찾아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선교사들이 죽기까지 하는 큰 대가를 치렀다. 세계화의 물결과 종교적, 문화적, 인종적 다원주의가 범람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미전도 종족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사막에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이 있는가 하면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의 대도시 혹은 작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 중에도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전도 종족은 지역적으로 숨겨져 있고, 문명적으로 낙후된 곳에 사는 종족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했던 전통적인 개념의 틀을 벗어나서 이제는 문명사회 속에서도 미전도 종족은 널려져 있다는 것을 재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내의 모슬렘들은 미전도 종족이 아니고 10/40 창안에 있는 모슬렘들은 미전도 종족으로 구분하는 선교학적 구분과 전방개척선교운동 등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가치부여를 하기 보다는 재해석의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미국과 캐나다, 유럽 등지의 다민족 교회와 다민족 선교단체는 일단 주변에 구원받지 않은 민족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교회 내에 그 민족을 위한 복음사역자를 선정하여 단계별로 선교사역을 진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먼저는 미전도 종족의 부류에 속하는 민족가운데 이미 복음을 접한 사람과의 접촉과 발굴이 필요하고, 그들을 선교의 인적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주변에 부탄 사람들과 모로코 사람들이 살고 있음을 탐지했다고 한다면, 다민족교회 목회자 또는 다민족선교회 관계자는 이 민족들의 커뮤니티를 접촉하며 조심스럽게 이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를 파악해야 한다. 만약, 신앙자를 찾을 수 없다면 그 종족가운데 누군가를 친구로 사귀고 복음으로 초대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선교적인 접촉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복음을 접한 자가 있다면 그를 교회로 초청하고 그를 통해서 미전도 종족의 복음화 발판을 삼는 전략을 세워가는 것이다. 또한 타민족 선교에 앞서 구체적인 계획과 구상을 가지고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이미 타민족 사람들에게 이미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사례들을 찾아서 선교에 적용하여 잠재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전 세계 사람들을 춤추게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싸이 만큼은 아니더라도 한국적인 많은 것들이 이미 타민족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경우가 있다. 그 예로 미국에 진출한 H-Mart 이다. H-Mart 는 한국 사람들을 겨냥하여 만들어진 한국음식 마트이지만, 깔끔한 실내와 맛있는 음식, 그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미국 사람뿐 아닌 미국에 있는 많은 민족의 사람들에게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적인 것은 통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H-Mart 가 타국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그

채명진

사람들의 취향에 맞춰 변형하였다는 것이다. 한 예로 미국에서 떡볶이는 우리 입맛에 맞는 매콤한 맛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고소한 음식을 좋아하는 외국사람들의 입맛에 맞추어 치즈를 넣고 매운맛을 줄이는 일명 퓨전 떡볶이로 더 많이 팔리고 있다. 복음도 우리 고유의 신앙을 그대로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자라온 문화와 환경이 다른 타민족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는 힘든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적인 복음의 알맹이들을 뽑아서 타민족에게 전해질 수 있는 요소들을 첨가하여 그들에게 진심이 전해질 수 있는 통하는 복음으로 준비해서 그들에게 나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민족과 나라간의 울타리와 마음의 거리를 뛰어 넘어 그들의 가슴속에 반드시 전해질 것이다.

나가는 말

싸이는 B 급 정서를 통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모습으로 대중 앞에 나아갔다. 많은 연예인들이 자신들을 좋은 상품으로 포장하기 위해 피나는 다이어트를 하며 높은 퀄리티의 노래 실력을 쌓으며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는데 최선을 다할 때, 싸이는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기 보다는 장점을 개발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통해 사람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그러한 공감대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그의 음악에 미치도록 만들 수 있었다. 이러한 그만의 독특한 공감대 형성의 음악은 그의 해외 진출도 가능하게 만들었는데 비록 가사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의 약간은 모자란 듯한 모습과 함께 사람들로 하여금 부담을 갖거나 어려움을 갖지 않고 그의 음악에 쉽게 빠져들어 버릴 수 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렸다. 그러나 싸이가 B 급 정서를 가지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음악과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었더라도, 그는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된 사람 이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는 충분히 더 어려운 음악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부잣집 아들로써 A 급 정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을 만들기 위해 그의 눈높이를 과감하게 낮추었다. 또한 다른 모든 연예인들이 자신의 음악과 초상권에 목숨 걸고 저작권을 주장할 때 싸이는 자신의 음악을 무료로 배포하고 사람들이 마음껏 패러디를 만들 수 있게 만들었으며 초상권은커녕 마음껏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자신을 완전히 오픈 하였다. 또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미국 진출의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들과 국군 장병들과의 작은 약속을 위해 과감하게 눈앞의 큰 이익을 버리고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였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선교에 결단하게 되었다면 철저하게 준비되고 훈련된 모습으로 나아가되 이러한 싸이의 공감을 통한 오픈 마인드를 배울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다민족 선교의 실패의 원인은 그 민족과의 정서적인 소통의 부재, 그리고 언어적인 장벽에 의한 정서의 교류의 막힘을 가장 큰 문제로 볼 수 있는데 다민족 선교에도 공감과 소통의 마케팅 정신을 적용하여 더욱 가까운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싸이가 이미 세계로 나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준비된 가수였고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기 보다는 장점을 강화 시켜서 남들처럼 외모를 가꾸고 어려운 음악성을 살리기 보다는 가수가 되기엔 모자란 듯한 외모로 인해 사람들을 더 가까이 다가오게 만들고 어려운 음악성을 살린 음악보다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악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다민족 선교도 기존의 선교 방식과는 다른 소통과 공감 그리고 뭔가 특별한 맛이 있는 그런 맛있는 선교가 되어야만 할 것이다. 하고 싶은 것을 하기보단 잘하는 것을 강화 시켰던 싸이의 성공 방법을 보며 각자의 장점이자 잠재력인 특별한 맛을 먼저 찾아내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다.

싸이와 타민족 목회

참고자료

- [PSY. KBS World. 2012년 8월 7일에 확인.](#)
- [YG Entertainment. "It's all Thanks to the Wives of Psy and Tablo." allkpop \(August 9, 2012\). September 4, 2012 에 확인.](#)
- [싸이, 5년 전속계약금 없이 양현석 사단 YG '합류' - 조선일보](#)
- [Fekadu, Mesfin, "Wild, Crazy Style \(English\)", 8/27/2012 작성. 08/27/2012 확인.](#)
- ['MBC 스페셜' 싸이 특집 다큐, 동시간대 시청률 1위, 《노컷뉴스》, 2012.09.22 작성.](#)
- ['MB 스페셜' 싸이 다큐멘터리 역시 대박, 시청률 4 배 폭등, 《뉴스엔》, 2012.09.22 작성.](#)
- ['대마초 흡연' 가수 싸이 검거\(종합\)", 《연합뉴스 사회》, 2001년 11월 15일 작성.](#)
- [표주박' 싸이 대마초 벌금 500만원", 《한국일보 사회》, 2002년 1월 10일 작성.](#)
- [싸이 의혹 최초 제기 이상호기자 "싸이 공인의식 가져야", 마이데일리, 2007.6.12](#)
- [법원 "싸이 재입대 정당하다" 판결, 연합뉴스, 12월 12일.](#)
- [싸이 '현역 재입대 반발' 항소마저 패소, 한국일보, 3월 18일.](#)
- [대법 "가수 싸이 현역병 재입대 '정당'", 연합뉴스, 2008년 8월 21일.](#)
- [가수 싸이·토니 안, 연예병사 합격 - 연합뉴스](#)
- [싸이·성시경·강타 ... 군복 입은 스타들 호반에 뒀다 - 강원일보](#)
- [싸이, "군 복무 당시 나라와 상관, 소녀시대에 충성했다" - 리뷰스타](#)
- [싸이, 군부대 위문 공연 출연료 전액 기부 '훈훈' - 조이뉴스 24](#)
-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04401>
- [싸이 '강남스타일', 뮤비 조회수 2억건 돌파... '대세 입증'", 《국민일보》, 2012.09.18 작성.](#)
- [스쿠터브라운 "싸이 MV 보자마자 '이사람 찾아라' 소리쳤다" 왜? 《뉴스엔》, 2012.09.22 작성.](#)
- [싸이 美 소속사 계약, 저스틴 비버와 한술밥, 《경기일보》, 2012.09.04 작성.](#)
- [싸이, UK 아이튠즈도 정상 '30개국 쌍끌이 1위', 《마이데일리》, 2012.09.22 작성.](#)
- [싸이, 美 이어 30개국 아이튠즈 차트 1위, 《스타뉴스》, 2012.09.22 작성.](#)
- [싸이, 24개국 아이튠즈 1위... '점점 강해지는 싸이월드', 《OSEN》, 2012.09.19 작성.](#)
- [英 BBC "싸이 K 팝 가수 최초로 영국 음악차트 1위 할 것", 《내일신문》, 2012.09.21 작성.](#)
- [싸이 CNN 인터뷰 "나보다 '강남스타일' 비디오가 더 유명해" 《TV 리포트》, 2012.09.20 작성.](#)
- [싸이 빌보드 11위 "'강남스타일' 순위 수직상승 무섭네~", 《프런티어타임즈》, 2012.09.20 작성.](#)
- [美 CNN, 싸이와 인터뷰..."싸이, 미국 대륙 강타", 《NEWS1》, 2012.09.20 작성.](#)
- [싸이 美 ABC 또 등장, '강남스타일' 질리지 않는 인기 '집중분석', 《티브이데일리》, 2012.09.10 작성.](#)
- ['강남스타일' 싸이, 'MTV 유럽 뮤직 어워드' 후보 등록, 《뉴데일리》, 2012.09.17 작성.](#)
- [싸이 말춤 플래시몹 광화문서 '광란'... "전세계인들 말춤 추러 한국 온다!", 《매일신문》, 2012.09.19 작성.](#)
- [싸이, 멕시코 신문 전면장식 인증샷 공개 '역시 월드스타', 《뉴스엔》, 2012.09.21 작성.](#)
- ['싸이 신드롬' 세계를 사로잡다, 《YTN TV》, 2012.09.21 작성.](#)
- [싸이 '강남스타일', 폴란드 TV 프로그램 소개 '동유럽도 싸이홀릭', 《엑스포즈뉴스》, 2012.09.21 작성.](#)

이민교회 예배를 통한 문화와 언어 장벽 허물기

강제철

들어가는 말

한인 이민사회는 세대별 분리가 확실히 이루어져 있다. 한인 세대를 구분하는데 있어서 1 세대, 2 세대, 3 세대도 모자라 1.5 세대 또는 1.25 와 1.75 세대까지 구분하기에 이르렀다. 과연 무엇이 우리를 이런 분리에 익숙하게 만들었는가? 이러한 나눔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세대간의 간격과 언어 문화적 벽을 통해 같은 세대끼리의 집단을 형성하고, 더 나아가 다른 세대와 갈등까지 야기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갈등의 문제는 교회 바깥만의 이슈가 아닌 교회와 심지어는 가정안에서도 나타나는 이민 사회의 커다란 문제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이러한 세대별 구분은 교회 안에 여러 부서로 나뉘어지게 되고, 한 지봉의 교회로 존재하지만, 각기 다른 예배를 갖는 세대간의 장벽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분리되어 예배를 드리고 다른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세대 간 소통과 이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모순이 있다. 많은 한인 교회안에 각자 색깔에 맞는 다른 예배들이 존재한다. 1 세대 전통적 예배가 있고, 2 세를 위한 영어 예배, 유학생들을 위한 예배, 청년부 예배, 대학부 예배, 젊은 부부 예배, KM 중고등부 예배, EM 중고등부 예배등 다양한 예배로 분화되어져 있다.¹ 교회안에서의 주 언어 사용자들의 구분을 통해 부서가 나뉘지고, 이로 인한 효율적 교육 방법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가족으로서 세대와 언어별로 분화되어 드러지는 예배가 기독교 예배가 본래 추구해오던 예배가 되겠는가라는 것이다.

필자는 본 연구를 통해 언어와 세대적 차이로 인하여 다분화(多分化)될 수밖에 없는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오늘날의 이민교회가 다분화 예배의 결과로 놓치고 있는 것과 세대와 언어를 초월하는 통합 예배 회복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하여 논하려고 한다. 논의의 시작에 앞서, 필자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예배의 모습을 요한 계시록 7 장에서 묘사하는 예배에서 찾고 싶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요한계시록 7:9-10)*

¹ 미주 한인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주변의 교회 사역자들을 인터뷰해본 결과 모든 세대가 통합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정기적인 행사로서 1년에 많게는 3-4 번 대게는 1-2 번 혹은 전혀 함께 드리지 않는 교회들도 무수히 많음을 알수 있었다.

이민교회 예배

천상의 예배에는 국경도 초월하고, 종족도 초월하며 언어까지도 초월하는 예배이다. 모든 다름과 장벽을 초월하며 오직 어린양 보좌 앞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송축하는 예배가 바로 천상의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이다. 이 예배의 모습은 최후의 날에 드러지는 예배의 모습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가 사는 현재 삶 가운데서 천국의 영역을 그리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예배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모습인 것이다. 주일 예배는 한 주 동안 단절된 그리스도의 몸된 각 지체, 각 가정, 각 세대가 서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고, 그 구원에 응답하며,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셨듯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고,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는 통합을 회복하는 축복된 자리이다.

필자는 모든 세대가 언어와 문화를 초월하여 함께 예배를 준비하고, 봉사하여 예배를 아름답고 은혜롭게 드리므로 과거 세대와 미래 세대간에 문화와 언어의 장벽들은 무너질 것이고, 그 안에 소통과 화합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이뤄질 것이라고 믿는 마음으로 본 연구를 시작하고자 한다.

이민교회의 특징과 세대간 분리

1965년 미국에서는 이민법이 개정되고, 본격적인 이민이 시작되면서 많은 한인들이 미국으로 건너왔고, 이민교회들은 빠른 성장을 이루었다. 이민사회에 있어서 한인 교회는 이민자들의 고된 삶을 달래며 정체성을 확인하는 쉼터였으며 새로 이민온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터전을 안내해주는 사회 봉사적 기능을 담당하였다. 윌리엄스(R. B. Williams)는 이민자들이 모국에 있을 때보다 이민 생활을 하면서 더 종교적이 된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민 생활 중에 이민자들이 종교활동을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정리하는데, 1) 모국을 떠나면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과 내면 깊은 곳에서 생기는 의문들로 인해 종교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2) 미묘한 인종 차별이 있는 새로운 땅에 정착하는 힘든 과정을 이겨낼 방편으로 종교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사회나 그룹에 공헌하고 지도력을 발휘하여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기를 바라며, 이를 통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싶은 욕구가 있다. 또 다른 욕구는 주위 사람들에게서 생활에 필요한 정보, 기타 구체적인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다.”²

이민자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민 교회가 다음세대를 준비하지 못하고 미래를 내다 볼 수 없는 위기를 겪고 있다. ‘2011-12 북미주 전국 한인교회 실태조사보고서(2011-12 National Korean-American Church Survey in the U.S.A & CANADA)’에 따르면 영어를 사용하는 2세 한인들의 82%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면서 조용히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한다. (기독타임즈 2012년 5월 17일자 기사 참조) 또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인 이민교회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세대간의 갈등’, ‘젊은이들의 교회 이탈’등을 꼽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요인으로는 이민자들의 독특한 생활방식과 한국에서 부터 갖고 온 1세대들의 유교적 관습에서 오는 권위주의와 미국 문화의 영향을 받은 2세대간의 문화적 차이, 한국어를 사용하는 1세대와 영어를 사용하는 2세대간의 언어적 차이를 들 수 있다.

Asian American Christianity에 의하면 ‘지금의 이민 2세대들은 더이상 조용하고 부모 세대의 권위에 순응하는 조용한 집단이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더 나아가 부모 세대의 전통과 관습에 이의를 제기하며 도전할 수 있는 세대가 되었다.³

² Raymond Brady Williams, *Religions of Immigrants from India and Pakistan: New Threads in the American Tapest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36.

³ Edited by Viji Nakka-Cammauf and Timothy Tseng, *Asian American Christianity*, (Pacific Asian American and Canadian Christian Education, 2009), 128.

강제철

심지어 이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미국의 주류사회조차도 포스트 모더니즘적 영향으로 점차 세대간의 간격이 발생하고 있다. Asian American Christianity 에 의하면 많은 미국의 백인교회들도 세대간의 갈등과 분쟁으로 “예배 전쟁 (worship wars)”같은 특정한 세대만을 위한 회중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라고 말한다.⁴

그러나 대부분의 이민교회는 이러한 세대간의 갈등을 지도하고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민교회가 하나가 되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세대간의 벽을 허무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최훈진 목사 (전 PCUSA 총회 아시아 리더십 총무)에 의하면, “예배를 함께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 갈 수 없다. 우리 한인 교회에서도 1 세 2 세 3 세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데 따로 예배를 드리고 분리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가 있다. 언어 이탈 문제는 1 세와 2 세간의 언어가 달라도 한 지붕 밑에서 집에서 살고 있다. 신앙을 생활이라고 본다면 신앙생활도 언어를 떠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연습해야 한다.”⁵ 서로 다르다고, 불편하다고 분리하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르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먼 미래를 내다보며 연습하는 것이 최선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통합 예배의 성경과 신학적 근거

교회의 하나됨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고전 12:27)로 표현하며, 교회의 하나됨을 나타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원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주신 선물이다. 따라서 교회의 본질은 하나됨에 있다.⁶

이 연합의 독특함은 서로 완전히 다른 지체들에 의해 구성된다. 어떤이는 유대인이고, 어떤이는 이방인이었고, 어떤이는 영어를 사용하는 이이고, 어떤이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이이며, 어떤이는 나이가 어린 젊은이이고, 어떤이는 노인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이 모두가 다름의 장벽을 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라는 사실이다.

요한복음 17:22-23 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교회가 하나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⁷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 인 교회공동체로서의 언어와 세대를 초월한 예배는 삼위 일체 하나님의 사역과 함께 교회의 본질을 이루는 일이 된다.

언약(Covenant) 공동체로서의 교회

창세기 17 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 나온다. 그런데 이 언약은 아브라함만의 언약, 한 세대만의 언약이 아닌, 모든 세대와의 언약이 된다.⁸ “(창 17:7)

⁴ Ibid., 129.

⁵ 기독교일보 2012 년 3.28 일 예배음악컨퍼런스 관련 인터뷰 중

⁶ (고린도 전서 12:12-13)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⁷ (요한복음 17:22-23)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⁸ Howard Vanderwell, “Bible Values to Shape the Congregation,” *The Church of All Ages*, (The Alban Institute, 2007), 23.

이민교회 예배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나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라 되리라”

또한 모세의 율법은 모든 세대가 함께 듣고 지켜야 할 법이었다. 신명기 31 장에서 여호와께 예배할 때 주의 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모이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온 이스라엘이라함은 ‘남녀와 어린아이 심지어는 성읍안에 거류하는 타국인까지’를 포함하고 있다.⁹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면은 역대하에 선명하게 선포되고 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람의 침략으로 위기에 처해있던 유다
공동체는 금식과 더불어 함께 예배하며 온 세대가 함께
고백하였다. “오직 주만 바라 보나이다 (대하 20:12)”**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부어주시실 것을 예언하면서 그 대상을 ‘모든 육체; 너의 아들들과 너의 딸들과 너의 노인들과… 그리고 너의 젊은이들과… 심지어는 여종과 남종까지…’ (요엘 2:28-29)로 지칭한다. “하나님의 성령은 모든 나이와 연령을 초월하는 나이 포괄적(age-inclusive)이다.”¹⁰

우리는 많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재확인되는 과정에서 그들이 예배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성경에 수 많은 예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예배들은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다.

하나님나라 공동체로서의 예배

예배는 종말론적 선포이다. 기독교 예배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 졌으나 (already),’ ‘아직 완성되지 않은(not yet)’ 시간적 긴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선포하는 종말론적 사건인 것이다¹¹. 그런 의미에서 샬리어즈 교수에 의하면 기독교 예배는 신성한 약속(divine promise)의 종말 신학에 의하여 시작되었고 마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은 여전히 소리친다.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지기를 소망하는 선포가 예배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샬리어즈 교수는 ‘예배의 본질은 공동체의 모임에 있다’라고 설명한다.¹² 예배를 통해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사건이 된다. 예배를 통해

⁹ (신명기 31:10-13)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칠 년 끝 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와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¹⁰ 필자 번역; Howard Vanderwell, “Bible Values to Shape the Congregation,” *The Church of All Ages*, 24.

¹¹ Paul Huh, “The Making of a Book of Cross-Cultural Worship: Resources for Korean-American Churches,”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Drew University, 1999), 20.

¹² Don Saliers, *Worship As Theology*, (Abingdon Press, 1994), 34-36. 캔들러 신학교의 예배학 교수이며 신학자인 샬리어즈교수는 위의 책을 통해 성도들이 예배 때 이루어지는 성만찬, 찬양, 기도, 말씀 등을 통해서 자신과 공동체의 정체성 즉,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질문하게 되고,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상기시켜 준다고 설명한다. 또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기억하며 특별히 예수의 삶을 기억함으로써 과거와 현재 또한 미래의 약속을 기대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라고 설명한다. 그런 의미로서 그는 예배를 종말론적 예술이라고 표현한다.

강제철

나라간의 국경을 허물고 하늘과 땅이 연결되며 천상의 천사들과 과거의 성도들 그리고 미래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어린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연합적 사건이 된다. 이러한 예배에서 우리는 복잡한 선입견이나 언어적 문화적 장벽은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만 보는 예배자로서 모두 함께 서게 된다.

유대인의 신앙 교육과 예배

유대인의 신앙교육은 가정에서의 신앙공동체 교육을 비롯하여 마을에서의 회당 공동체 교육, 성전에서 민족 공동체 교육이 예배와 절기 및 축제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공동체에서 교육을 한다. 종교적인 의식과 절기는 가정 안에서 엄격하고 철저하게 행해졌으며 제사는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방식으로 후손들을 위한 신앙교육 공동체를 계속 유지해왔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회당에서의 예배를 통해 모든 세대가 함께 참여하여 다음 세대에 신앙을 전수하고 교육을 하는 중요한 역할이 되어왔다. 유대인들의 안식일 회당 예배는 세대를 분리하는 세대별 교육이 아니라, 가족 전체, 마을, 민족 전체가 함께 어울려 세대간 지역간 지파간의 간격과 분리를 막아 모두가 하나되는 공동체적 교육이었다고 한다.¹³ 이들의 신앙교육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문화와 언어를 넘어서는 통합 예배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세대간 통합 예배를 위한 전제 조건

교육적 노력이 중요하다

전통적 예배에 있어서 예배 교육이 등한시 되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예배 의식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감동과 감각이 우선된 예배로 전락시켜 왔다. 이러한 모습에 허정갑 교수는 “현대교회는 세대 간의 갈등 속에 영적 지도자의 권위는 위기를 맞고 있는 반면 개인주의적 감상적인 경향은 예배를 신앙이 아닌 종교의식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¹⁴ A.W. 토저 목사는 그의 책 ‘예배인가 쇼인가’에서 이러한 감동과 감각만 우선시 하는 오늘날 교회의 예배에 대하여 세상의 연예와 오락적인 방법의 침투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인기에 초점이 맞춰진 가짜 예배의 모습이라고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다.¹⁵ 마치 극장에서 쇼를 한편 보듯이 순서지(주보)를 받아서 주변 사람과 형식적인 인사를 하고, 화려한 무대에서 음악의 공연과 목사의 설교 공연을 관람한다. 이러한 전통적 예배를 등한시 하고 감각적 엔터테인먼트의 예배에 집착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전통적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예배에 대한 교육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필자의 모교회는 전통적 예배를 고수하는 백인들이 중심이 된 High Church 이다. 모든 예배 순서가 전통적 예전(liturgical)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자칫 그 순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지루하고, 감동도 없으며, 나와 상관 없는 예배로 느껴지기 쉽다. 언어도 다른데 이러한 전통적 예배를 준비해 놓고, 한인 2 세들에게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자고 한다면, 대부분의 영어권 2 세들은 거부 반응을 나타낼 것이다. 그런 이유로 Howard Vanderwell 은 그의 책 “The Church of All Ages”에서 어른 세대나 자녀 세대나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는 것 만큼, 예배에 대한 신학적 교육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¹⁶ 그는 또 다음의 몇 가지 요소를 가지고 회중에게 예배를 교육할 것을 제안한다.

- 신약과 구약에 나온 예배의 모습들을 교육한다

¹³ 이에스더, “세대통합 주일예배에 관한 어린이 참여방안 연구” 서울장신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2009, p15.

¹⁴ 허정갑, [입체예배], 서울: 프리칭아카데미, 2006, 12.

¹⁵ A.W. Tozer, *Worship and Entertainment*, (WingSpread Publishers, 2006), 45 필자해석 및 편집.

¹⁶ Edited by Howard Vanderwell, *The Church of All Ages*, 180.

이민교회 예배

- 역사적으로 어떻게 예배가 발전되어 왔는지를 교육한다.
- 각 교단적 혹은 교회적 예배의 특징과 이해를 교육한다.
- 예배 관련 책을 읽고 함께 토론하며 그 안에 통찰력을 발견하게 한다.
- 회중의 예배 드리는 모범과 양식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교육한다.
- 예배에 사용되는 용어들을 정리하고 교육한다.
- 세례와 관련된 수업을 진행한다.
- 성만찬에 나타난 상징과 가치를 교육한다.
- 교회력의 중요성과 그 안에 상징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르친다.
- 예배 공간이 왜 이렇게 디자인되었는지 가르친다.
- 예배 공간안에 있는 상징물들에 대한 교육을 수행한다.
- 예배시 부르는 찬양과 찬송가에 갖는 의미를 교육하고, 왜 이곡을 예배에 선곡했는지 가르친다.
- 예배 컨퍼런스를 통해 함께 예배에 고민하고 공부하게 한다.¹⁷

필자는 이렇게 한인 교회에게 제안하고 싶다. 각 교회마다 1 년에 한번씩 시간을 정해서 전 교인이 모여 예배를 공부하고, 좋은 예배를 위해 고민 할 수 있는 예배 수련회나 예배 세미나를 개최한다면 전 세대가 아름답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다.

미래를 보며 준비해야 한다

자신들의 문화와 언어에 익숙해진 지금의 회중보다 나중의 미래 회중을 내다 보며 장기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하루 아침에 모두가 공감하고 은혜롭게 드러질 수 있는 이중언어, 다문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쉽지 않다. 현재 자신들에게 특성화된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함께 드리는 예배는 매우 낯설고 산만스러운 예배로 인식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집단적 반발과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 하지만, 이 함께 드리는 예배는 당장 뭔가 큰 성과를 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긴 안목을 가지고 지금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한다라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다.

예배자의 마음과 자세가 중요하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준비하는 스텝들과 지도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짐이 중요하다 하겠다.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드린 후 평가할 때 무엇에 그 가치 기준을 두었는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예배는 철저히 인간들의 친목이나 격려를 주고 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자기중심적인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와 세대를 넘어 함께 드리는 예배가 다소 불편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선부르게 판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분명히, 세대가 분리되어 나오는 것보다, 함께 연합하여 온전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기뻐하실 것이다. 이유정은 한국 교회의 ‘참을 수 없는 예배의 가벼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며, 하나님의 거룩성과 초월성, 경외감과 신비감이 내재성과 함께 균형 있게 표현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고 말한다.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의 현장에서 빛바랜 하나님 나라를 토해내고, 현실 도피성 영생 복락과 샤머니즘적 기복 신앙으로 균형 잃은 복음을 남발한다. 기존의 젊은이들은 화석화된 예배에 등을 돌리고 신비스러운 가톨릭 미사로 전향한다. 구도자들은 어쩌다 주일 예배에

¹⁷ Ibid., 181. 필자 해석 및 편집

강제철

참석해서 우리끼리 만의 언어, 아마추어 밴드의 시끄러운 반주, 찬양 인도자의 설교성 멘트, 천국의 거룩함과 아름다움, 탁월성이 사라진 2 등급에 중독된 예배 모습에 고개를 갸웃거린다…….현대예배, 전통예배 할것 없이 오늘의 예배가 추구하는 가치는 지나치게 내재적이다. ‘나의 필요’, ‘내공허함을 채워주시는 주’……. 내가 중심이다. 내가 체험해야 만족하는 예배가 되어버렸다.”¹⁸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인간의 만족에 기초를 둔 예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에 세우고, 삼위일체 연합의 신비를 이루신 하나님의 초월성과 거룩성 경외감과 신비감이 살아나는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언어와 문화적 기호와 특정 연령의 만족을 구하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그 분만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에 최고 우선순위를 뒤야 한다.

세대간 통합 예배를 위한 제안과 시도들

예배의 중심으로서 성찬식을 거행한다

종교개혁 이전에 예배의 중심은 성찬식이었지만, 현대 교회에서는 성찬식이 너무 습관적으로 변해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렸고 예배의 경이로움과 예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사라져 버린 경향이 있다. 허정갑 박사는 성만찬적 입체예배를 설명하면서 그것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마태복음 18:20 절에서 찾아 설명한다.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서 둘, 셋, 혹은 여러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에 함께 하심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¹⁹

허정갑 박사는 또한 두 세사람의 정의를 두 세 문화, 언어, 신학, 및 교단의 다양성을 표현한다고 설명한다.²⁰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두 세 세대 그리고 두 세 언어가 함께 모여 성만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경험하고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선포할 수 있게 된다.

비언어적 요소 (음악, 공간, 몸)를 최대한 활용한다

언어와 세대를 초월한 함께 드리는 예배는 언어적 요소를 통한 지식 전달이 예배의 핵심이 되지 않는다. 언어를 초월하는 비언어적 요소로서 인간의 육감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예배로 기획할 수 있다. 즉, 듣고, 보고 만지고, 냄새 맡고, 움직이고, 맛 보는 예배를 지향할 수 있다. 주승중 박사는 고전적 가치를 지닌 믿음의 예배를 고민하며 예배 모임에 대한 다감각적 접근을 시도하라고 충고한다. 또한 주승중 박사는 다감각적 예배(보고 들으며, 맛보고 냄새 맡으며 만지고 경험하는 것을 포함)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노래, 침묵, 설교, 예술, 표현에 대한 훨씬 더 큰 스펙트럼으로 이동을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²¹ 그러므로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기획함에 있어서 특별히 육감을 더 사용하여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¹⁸ 이유정, "지역교회 예배 갱신의 방향성" 『목회와 신학』 (2008, 6), 175-176.

¹⁹ 허정갑, 『입체예배』 (서울: 프리칭아카데미, 2006), 31.

²⁰ Idid., 31.

²¹ 주승중, "고전적 가치를 지닌 믿음의 예배를 꿈꾸며" 『목회와 신학』 (2006, 9), 66-67.

이민교회 예배

공간활용은 성찬을 받는데 불편함이 없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헌금을 하러 가거나 할 때등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이면 좋을 것이다. 함께 드리는 예배는 듣고, 보고, 말하기만 하는 것 보다, 직접 몸을 움직이는 참여적 예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동적이고 생동감이 있는 공간활용이 매우 중요하다. 무대를 바라보는 극장식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로서 서로가 서로의 예배 모습을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예배에 동화 될 수 있는 약간의 반원모양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이와 언어에 의하여 구분하고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점에서 전체 회중을 감싸는 느낌으로 공간을 활용한다면 좋을 것이다.

스토리 텔링적 설교

이민교회의 세대 통합 예배에 있어서 말씀 선포는 유연성(flexibility)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봉독을 말씀 선포의 시작 부분으로만 제한해서는 안되며, 성경 봉독을 드라마틱하게 읽는것이나, 드라마를 통해 선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이야기체는 모두를 묶는 힘이 있다. 필자도 어릴적 부모님 손에 이끌려 참석했던 부흥회에서 부흥사의 맛깔스런 성경 스토리가 평생을 두고 기억나게 하는 좋은 경험이 되었다. 전통적인 방식인 설교만으로는 언어와 세대를 초월하는 통합예배에서 관계성을 느끼게하기가 어렵다. 때로는 언어를 초월하기 위해 프리젠테이션 방식으로 시각과 언어를 함께 사용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함께 드리는 예배를 처음에 시작한다면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방법도 될 수 있고, 혹은 영어 설교를 하고, 한국어 설교를 하는 두번의 설교를 하는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이야기체를 통해 ‘본문 말씀의 의미에 대한 관심’과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고민하게 하면 좋을 것이다.

가정에서 부터 시작 되어야 한다.

어린이,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신앙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극히 제한적이다. 기껏해야 일주일에 하루 혹은 이틀 교회 와서 길게는 2시간 사역자 혹은 교사에게 받는 주입식 교육이 전부라면 제대로 신앙 교육이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자녀들의 영적 발달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교회학교의 교역자나 교사가 아니라 부모가 된다. 부모의 모습을 통해 자녀들은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된다. 러비 캐슬먼에 의하면 예배는 부모가 가르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한다.²² 러비 캐슬먼은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예배 훈련을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배 훈련의 좋은 방법은 자녀들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회 의자에서 실시하는 대부분의 양육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부모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다.”²³ 부모가 경외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을 통해 자녀들은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하심을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민교회의 현실에서 언어적 다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상적인 제안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비교적 어린 나이 부터 가정에서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가정 예배나 큐티 나눔등을 통해 영성 훈련을 습관화 할 수 있도록 온 교회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주일에 선포된 말씀 혹은 일관된 말씀 목상의 커리큘럼을 가지면 교회의 온 세대가 같은 흐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교회는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기독교 신앙 안에서 양육할 수 있는지에 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비교적 어린 나이때

²² 러비 캐슬먼. 유재덕 역, 『당신의 자녀에게 예배의 즐거움을 가르치라』 (호산, 1998), 28-29.

²³ Ibid., 31.

강제철

부터 매일 30 분이라도 가족과 함께 한국어 혹은 영어로 말씀을 읽고 나눌 기회가 된다면, 그것이 훈련되어지고 쌓여져 장성한 후에도 교회에서 모두 함께 드리는 예배가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성장하리라 생각한다.

또한 최근들어 한국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대적 흐름에서 교회는 다음 세대들에게 영어와 한국어 모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세대간 통합을 이루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대신 그 실행 과정에 있어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다음 세대들의 의견을 존중해주며 귀 기울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

연합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팀 구성

양신 박사는 평신도 참여의 예배 디자인 구성의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현대의 예배는 예배자가 단순히 보고 듣는 것에만 한정되는 예배 행위가 아닌, 함께 예배를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어가는 능동적인 참여의 예배자로 변화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²⁴ 교회는 예배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여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예배위원회에는 목회자와 평신도, 그리고 2 세대와 어린이들까지 함께 예배의 기획과 준비에 동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예배는 한 교회의 성직자가 책임을 다 맡아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회자는 예배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련을 하며 예배에 다양한 장르에 은사를 갖춘 여러 성도들이 예배의 구조 안에서 신선하게 배치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 예배 위원회는 그들의 은사가 어떻게 적절히 예배에 배치될 수 있는지를 기획하는 중추가 될 수 있다. 특별히 초기단계에서는 목회자가 예배 위원회원들에게 진정한 예배는 모든 세대가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점검해주는 일이 중요하다. 옛 습관이 바뀌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 기획의 본질이 공유되려면 중심 목표와 비전을 자주 제시해서 마음을 합하는 준비가 필요하다.²⁵

나가는 말

현재 탈전통화의 과정을 통해 전통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현대화된 예배를 추구하던 교회들이 기독교 전통 속에 담겨 있는 중요한 유산들을 복원해가는, 소위 재전통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포스트모던 시대가 공동체 패러다임을 갖고 있기에, 통합주의를 모색하는 특징도 갖고 있다. 포스트모던 시대는 ‘분리와 경쟁이 기조였던 산업 사회가 아니라 통합과 조화, 나아가 일치와 공동 창조가 기조인 시대인 것이다.’²⁶ 그러므로 세대와 언어를 아우르는 함께 드리는 예배는 오늘날의 포스트모던적 시대의 물결에 힘입어 더욱 교회 공동체 안에 쉽게 정착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이러한 전통 유산의 복원과 공동체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새시대의 요구들도 함께 드리는 예배를 고민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영과 부딪히고 (encounter)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세대와 언어의 장벽을 넘는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다. 교회의 본질은 선교도, 전도도 아닌 예배이다. 선교의 목적도 예배 공동체를 세움에 있다. 우리는 단번에 상호 의존적이며 모든 세대와 언어를 아우르는 통합적 예배를 만들 수는 없다. 그러나 조금씩

²⁴ Shin Yang, “Designing Worship Through Leadership Change: From Pastoral Authority to Lay Participation,”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D.Min. Final Project, 2012), 10.

²⁵ Norma DeWaal and Haward Vanderwell, *Designing Worship Together*, (The Alban Institute, 2005), 50-59.

²⁶ 브라이언 맥클라인,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온다], 34.

이민교회 예배

교회의 예배나 조직형태를 바꾸어 나가고 함께 드리는 예배로서의 목표와 비전을 공유해 나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의 예배가 될 것이다. 한두번의 연합 예배로 세대가 통합되고, 갈등이 봉합되지는 않는다. 예배와 더불어 함께 세대간의 화합을 이루기 위한 교제와 소통 또한 1세대와 2세대, 영어권과 한어권이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사역의 장을 통해 마음과 생각이 공유되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된 예배로 모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 DeWaal, Norma and Howard Vanderwell, *Designing Worship Together*, The Alban Institute, 2005.
- Huh, Paul, "The Making of a Book of Cross-Cultural Worship: Resources for Korean-American Churches," Drew University: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1999.
- Nakka-Cammauf, Viji and Timothy Tseng, editors, *Asian American Christianity*, Pacific Asian American and Canadian Christian Education, 2009.
- Saliers, Don, *Worship As Theology*, Abingdon Press, 1994.
- Tozer, A.W. *Worship and Entertainment*, WingSpread Publishers, 2006.
- Vanderwell, Howard, *The Church of All Ages*, The Alban Institute, 2007.
- Williams, Raymond Brady, *Religions of Immigrants from India and Pakistan: New Threads in the American Tapest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 Yang, Shin, "Designing Worship Through Leadership Change: From Pastoral Authority to Lay Participation,"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D.Min. Final Project, 2012.
- 러비 캐슬먼. 유재덕 역. "당신의 자녀에게 예배의 즐거움을 가르치라." 호산, 1998.
- 브라이언 맥클라인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온다." IVP, 2009.
- 이에스더, "세대통합 주일예배에 관한 어린이 참여방안 연구" 서울장신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2009.
- 이유정, "지역교회 예배 갱신의 방향성" 『목회와 신학』 (2008, 6)
- 주승중, "고전적 가치를 지닌 믿음의 예배를 꿈꾸며" 『목회와 신학』 (2006, 9)
- 허정갑, 『입체예배』 (서울: 프리칭 아카데미, 2006).

푸른 눈에 내린 신령 -무속을 통해 바라본 한국 교회 예배 불균형의 문제와 해결점-

김정훈

독일에서 온 안드레아 칼프 (35) 는 지구 반 바퀴를 돌아 독일에서 한국 인천 강화도에 오게 된다. 그곳에는 만신 김금화(77)가 살고 있는 금화당이라는 신당이 있는 곳이다. 안드레아가 금화당에 도착하자 마자 만신 김금화는 그녀를 자신의 신들을 모시고 있는 삼신당으로 인도한다. 안드레아는 내림굿을 받기 위해 이곳 금화당으로 온 것이다. 안드레아는 열흘 간 한국에 머물며 내림굿을 받게 된다. 다음 날 새벽 김금화는 안드레아를 데리고 인왕산으로 간다. 인왕산은 만신-무당을 다른 말로 만신이라고 함-들에게 성지로 여겨지는 산이다. 그곳에서 김금화는 안드레아 안에 있는 잡신들을 걷어내고 신을 맞아 들일 준비를 한다. 의식을 진행하던 도중 안드레아는 마음으로부터 한국 말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 안드레아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는 그녀가 어릴 적부터 겪었던 신비한 경험들 때문이다. 안드레아는 어릴 적부터 귀신을 보는 경험, 미래를 예견해 주는 꿈,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육체적 아픔에 자신이 시달리기도 한다. 철저한 천주교 집안에서 자랐던 안드레아에게 그녀의 천주교 신앙은 안드레아에게 일어났던 일들의 원인과 해결을 제시해 줄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안드레아는 2006년 6월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국제 샤먼 대회에 참석하게 된다. 그곳에서 안드레아는 만신 김금화를 만나게 된다. 김금화의 강연을 듣던 중 김금화의 어릴 적 경험과 자신의 어릴 적 경험이 너무도 크게 일치함을 알게 된다. 그곳에서 안드레아는 김금화로부터 내림 굿을 받기로 결정하게 되고 이렇게 한국으로 오게 된 것이다. 자신의 삶에 있었던 고난과 고통이 신의 뜻이라 여기고 안드레아는 그 신을 받아들이고 싶어 한다.

내림굿을 받는 날 김금화의 제자들도 금화당으로 모여든다. 만신들은 내림굿을 주관한 만신을 어머니라 여기고 내림굿을 받은 순서대로 언니와 동생이 구분 지어지게 된다. 내림굿의 순서는 내림굿을 주관하는 만신에 따라 다르다. 만신 김금화의 순서를 보면 첫째로 김금화는 안드레아를 신들에게 소개하는 순서로 시작이 된다. 그 후 안드레아의 몸 안에 있는 나쁜 잡귀들을 내어 쫓는 굿이 진행되고 곧 이어 안드레아의 앞길을 밝혀 준다는 일월성신을 모시는 일월 성신 맞이 굿이 진행된다. 이 예식을 통해 안드레아는 신을 맞이하게 된다. 안드레아는 신이 임했다는 상징으로 부채와 방울을 흔들면서 춤을 추게 된다. 신명이 올랐다는 말을 이 때에 쓰게 되는 것이다.

카메라의 시선은 잠시 만신 김금화의 제자인 박수 무당 김홍룡에게로 돌려진다. 김홍룡은 어린 시절 믿음의 시간을 보내고 카톨릭으로 개종한 후 신학대학과 수도원에서 신을 찾는 여정을 가졌던 인물이다. 그는 사제의 길을 가기도 했지만 결국 2009년 내림굿을 받게 된다. 신을 찾는 오랜 걱정과 싸움을 통해 김홍룡은 신은 결국 하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고 자신에게 맞는 신은 무속의 신이라 생각하여 내림굿을 받게 된 것이다.

아득한 옛날부터 무속은 서민들의 절박하고 어려운 삶들을 어루만져 왔다. 과학의 발달과 서양 종교의 등장은 무속을 미신으로 몰고 갔고 무속은 현재 종교로서의 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 과연 이 낮고도 천하게 여겨지는 이 곳에도 진실한 믿음이 존재할 수 있을까?

푸른눈에 내린 신령

향린 교회의 김진 목사는 무녀 정순덕을 자신의 교회의 예배에 초대한다. 종교간의 대화 모임에서 처음 알게 된 두 사람은 서로를 통해 각자의 믿음을 돌아보는 친구가 되게 된다. 새로운 알지 못했던 종교를 만나고 관계를 맺게 됨에 대해서 김진 목사는 이렇게 말한다. “어떤 종교가 새로운 종교를 만남에 있어서 자신의 종교와 비교하게 되고 또 기존에 배웠던 그런 가르침과 연계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혼란은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혼란을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 그 혼란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그리고 생산적으로 자신의 신앙과 잘 결합해서 자기 신앙을 공고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¹ 무녀 정순덕은 김진 목사를 통해 배우는 성경을 통해 종교인으로서의 바른 자세를 배운다 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무녀 정순덕은 타 종교와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신령님은 교회에 가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신의 제자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사람은 서로 싸우나 신은 신끼리 싸우지 않는다.” 예수님과 부처님이 싸우시는가?² 향린 교회의 시도는 무속을 믿음 혹은 종교로 인정하고 서로간의 대화를 시도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김진 목사는 자신들이 만났던 건강한 무녀들을 만난 경험을 통해 한국 교회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제가 만나 본 건강한 무녀들, 무당들의 공통점은 신에 대해서 그렇게 절박합니다. 그들은 열심히 기도합니다. 한국 기독교인들과 목회자들은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에 대한 간절함, 절박함, 그것에서 오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많이 약해져 있다고 본다.” 무녀 정순덕의 방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들의 생각들은 아래와도 같았다. “우리가 한 치의 무속도 인정할 수 가 없다. 그러나 본질적인 면을 볼 때에 어딘가에서 서로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 그 곳에서 서로 배울 점을 배울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³ 예배가 끝난 후 무녀 정순덕과 목회자들 그리고 신도들간의 만남이 있는 동안 사람들은 영적인 경험들을 서로 나눈다.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는 일하고 자고 먹고 마시는 것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바쁘게 살아간다. 매일의 삶을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존재의 이유와 그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은 끊임없이 일어난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종교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대답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무엇을 믿느냐는 종교의 범주에 빠져 어떻게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잊어버리기도 한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와 어떻게 믿을 것인가. 과연 신을 향한 믿음에 있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카메라는 다시 안드레아에게 시선을 집중시킨다. 안드레아는 지금 내림굿을 받고 있는 중이다. 몸에 있는 잡신을 물리고 맑은 정신을 흐리게 하는 허튼 귀신을 벗겨내는 허침 굿이 진행중이다. 바구니에 밥을 담아 머리에 이고 어느 정도의 거리를 걸어가 머리에 있던 바구니와 그 안의 밥을 등뒤고 던져 넘긴다. 이 때에 바구니가 떨어지지 않고 땅에 바르게 떨어져야 허튼 귀신이 그 밥을 잘 받아 먹었다고 생각한다. 안드레아는 다섯 번을 시도 하고 다섯 번 다 바구니가 바르게 떨어진다. 긴장하고 있던 안드레아의 귀에 “침착하세요”라는 한국말이 들리고 곧이어 무구 찾기 - 사람들 속에 숨겨둔 방울과 부채를 찾아내 무당으로서의 영검함을 점쳐 보는 것-가 진행된다. 안드레아는 여섯명의 사람들 중 오직 한 사람에게 숨겨져 있던 방울을 단 번에 찾아내고 신명을 내며 춤을 추던 안드레아는 능통하라는 한국말을 다시 듣게 된다. 얼마 후 안드레아의 몸짓과 표정이 변하기 시작하고 어린애와도 같은 장난꾸러기의 모습을 취하게 된다. 내림 굿의 마직 단계인 세살 짜리 아기신이 안드레아에게 임한것이다. 몇살이냐고 묻는

¹ Bassellin. "SBS 푸른 눈에 내린 신령 (20070513)." YouTube, 24 Apr. 2011. Web. 10 Oct. 2012. <http://www.youtube.com/watch?v=Bu1D2syIPEY>

² Bassellin. "SBS 푸른 눈에 내린 신령 (20070513)." YouTube, 24 Apr. 2011. Web. 10 Oct. 2012. <http://www.youtube.com/watch?v=Bu1D2syIPEY>

³ Bassellin. "SBS 푸른 눈에 내린 신령 (20070513)." YouTube, 24 Apr. 2011. Web. 10 Oct. 2012. <http://www.youtube.com/watch?v=Bu1D2syIPEY>

안드레아에게 안드레아는 자신이 세살이라고 말한다. 다른 무녀들이 전해준 초콜릿을 맛있게 먹고 안드레아는 말문을 열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의 말을 전해야 한다. 드디어 안드레아는 내림굿의 마지막 단계인 머리를 땅고 무구를 만신 김금화로부터 받게 된다. 만신 김금화가 전해주는 영의 딸 안드레아에게 덕담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라.”⁴ 무녀의 길이 고통과 어려움의 길임을 알기에 만신 김금화의 제자들도 눈물로 안드레아를 축하해 준다. 만신 김금화는 작두거리-날카로운 칼을 몸에 대지만 살이 베어지지 않음을 보여주는 의식-를 행하고 작두 위에 맨 발로 올라 선다. 인간으로서의 두려움을 잊고 신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는 것이다. 고통스러운 운명을 받아 들임으로써 다른 사람의 불행을 해결해 주는 것이 무당의 의무인 것이다. 내림굿은 인간으로서의 욕망과 감정에서 벗어나 성숙한 한 인간으로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의식이기도 하다. 독일로 돌아 간 안드레아는 건강을 회복하고 화목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다큐멘타리의 끝 자락에 안드레아의 어머니와 신부님의 인터뷰가 진행된다. 안드레아의 어머니가 자신의 딸이 카톨릭의 신앙을 버리고 무당이 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 그녀는 지금도 자신의 딸 안드레아는 내적으로 카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안드레아의 결심을 이해 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는 표현이다. 안드레아의 교회 신부 프란츠 쉐링어는 세상에는 다른 종교와 그에 따라 달리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있으며 안드레아는 그녀의 길을 쉐링어 신부는 자신의 길을 간다라고 말하며 안드레아의 결정을 인정해 준다.

안드레아가 교회를 떠났다. 안드레아 뿐만이 아닌 오늘 날 많은 서구인들과 한국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푸른 눈에 내린 신령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교회가 안드레아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했고 결국 안드레아는 그 해결점을 교회 바깥에서 찾았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욕구를 교회의 예배에서 찾으려 노력한다. 그러나 교회의 예배가 균형점을 잃고 바른 예배가 되지 못했을 때에 결국 사람들은 얻을 것 없는 예배 속에서 방황하다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예배, 균형이 잡힌 바른 예배가 오늘 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중요한 해결점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의 예배 현장의 문제점과 그 불균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서울 장신대의 문성모 총장은 한국 교회 예배의 문제점을 이렇게 이야기 한다.

한국 교회의 예배 현장의 문제점 중 첫째는 균형 감각이 없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예배를 강조하는 교회에 가 보면 설교가 예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교회에 예배는 없고 설교만 있다는 비판의 소리를 들을 만하다. 예배를 위해서 설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설교를 위해서 예배가 있다.⁵

사실상 오늘 날 한국 교회의 예배는 전통적인 예배와 열린 예배 두 개로 구분 되어 지고 있다. 전통적인 예배는 집례자, 기도자, 성가대가 있는 예배를 말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의 역할이 설교자의 등장만을 위한 준비 단계처럼 인식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로

⁴ Bassellin. "SBS 푸른 눈에 내린 신령 (20070513)." YouTube, 24 Apr. 2011. Web. 10 Oct. 2012.

<http://www.youtube.com/watch?v=Bu1D2syIPEY>

⁵ <http://www.sjs.ac.kr/v2/president/r04.htm?mode=body&page=1&number=10&keyfield=&key=&category=>

푸른눈에 내린 신령

인하여서 한국 교회의 예배는 초대 교회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주의 하나였던 축제다라는 인식을 잃어버려 영적인 감동이 없는 예배, 죽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실정에 이르게 되었다. 오직 설교만을 위한 예배, 설교가 중심이 되어 설교를 하는 자와 설교만을 들으러 오는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 즉 예배당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예배가 개혁 되어져야 함에도 현실적인 개혁과 변화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그 답은 예배에 대한 현대 기성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인식에 있다 하겠다. 예배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다. 복음은 범 우주적이며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예배는 복음이 아니라 응답이다. 그러므로 예배는 다양해야 하며 예배는 많은 요소들을 포괄하는 균형을 잃지 말아야 한다. 시대에 따라 나라에 따라 혹은 지역에 따라 우리의 응답의 방법들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이 예배를 복음처럼 인식하여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지금껏 드려왔던 예배에는 결코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문성모 총장은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 이렇게 주장한다.

**내가 알고 있고 경험한 예배 외에 다른 스타일을 퍼뜨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고 하면 독선이다. 왜냐하면 예배는 복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배는 복음에 대한 ‘응답’이다. 응답은
복음에 비해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나? 응답은 다양성과
고유성을 필요로 한다. 복음에서는 나하고 같지 않은 것이
‘틀린 것’으로 정죄되지만 응답에서는 ‘다른 것’으로 간주된다.
하나의 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응답의 형태가 존재한다. 복음은
우주적이고 보편적이지만 그 응답은 시대와 장소와 민족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로 표현된다.⁶**

그러므로 예배의 형태와 방법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렇듯 예배의 형태는 변화 될 수 있고 변화 되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마음에 품게 되어진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는가? 그 답을 푸른 눈에 내린 신령에서 다시 찾고자 한다. 안드레아가 불균형의 집합체인 교회를 떠나 찾아간 곳은 무속이라는 곳이었다. 복음에 있어서는 타협이 될 수 없으며 본질적으로 우리의 기독교 신앙 가운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무속이겠지만 충격적이게도 만신 김금화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안드레아에게 주며 안드레아가 그곳 무속안에 정착할 수 있게 도와준다. 그렇다면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그것들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바른 메시지와 바른 예식들이다. 그리고 이 둘의 균형이다. 만신 김금화의 무속에서 우리의 기독교 예배에서 잃어버린 바른 메시지와 바른 예식들을 찾아 균형있는 바른 예배의 길을 알아 보고자 한다.

첫째로 만신 김금화는 바른 메시지를 안드레아에게 계속해서 공급한다. 안드레아의 삶 속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신령님의 뜻이라 말해준다. 삶의 모순과 어려움의 이유가 결국

⁶[http://www.sjs.ac.kr/v2/president/r04.htm?mode=body&page=1&number=3&keyfield=&key=&cate](http://www.sjs.ac.kr/v2/president/r04.htm?mode=body&page=1&number=3&keyfield=&key=&category=)
[gory=](http://www.sjs.ac.kr/v2/president/r04.htm?mode=body&page=1&number=3&keyfield=&key=&category=)

김정훈

안드레아 그녀를 인도하기 위한 수순의 단계들이었다는 것이다. 영적이고 직설적인 메시지를 통해 안드레아의 마음을 불안케하고 복잡케 했던 질문들을 불식시킨다. 그런 후 안드레아의 삶의 자세와 방식이 발라야 함을 메시지를 통해 상기 시킨다. 만신 김금화는 계속해서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겸손하게 살아라, 남을 위해 사는 우리는 우리가 고통을 짊어져야 한다.’⁷라는 십자가 적인 메시지를 제시한다.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 안드레아안에 내재되어 있던 영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있는 것이다. 오늘 날 한국의 기독교는 이러한 바른 메시지를 잃어 버렸다고 할 수 있겠다. 서구의 기독교로부터 큰 영향을 받아온 한국의 기독교에는 진정한 메시지가 상실된 발달된 교리와 신학만이 가득하게 되었다. 또한 1950년대 1960년대의 가난하고 척박한 삶과 맞물려 현세에 뿌리를 둔 기복 신앙의 강한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는 곧 예배에서의 설교에 반영이 되어 때로는 교리에 중점을 두고 성경의 원어나 영어를 남발하는 딱딱하고 현실과는 동 떨어진 설교가 판을 치게 되었는가 하면 교리와 신학 혹은 성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개인의 물질적인 축복과 번영만을 강조하는 기복신앙의 설교들이 곳곳의 교회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고 사람들이 영혼이 원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곧 십자가의 복음이다. 십자가의 복음이 없이는 결코 그 누구도 자신의 원초적인 영혼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가 없다. 또한 십자가의 복음 없이는 그 어느 누구도 완전한 자아의 성취감을 얻을 수도 없다. 십자가의 복음은 용서하라 한다. 십자가의 복음은 섬기라 하고 낮아지라 한다. 다른 이에게 주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한다. 결국 인간은 소유보다는 나눔에서 높아짐 보다는 낮아짐에서 더 나은 자아의 만족감과 성취감을 얻을 수 가 있다 하겠다. 만신 김금화의 무속에는 놀랍게도 이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삶의 원초적인 질문들에 직설적이고 확실한 답을 해주는 영적인 카리스마가 그녀에게 있었던 것이다. 왜 삶에서의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어야 했고 이 곳 한국에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안드레아의 풀리지 않았던 영혼의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은 안드레아가 그 곳 무속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한 안드레아에게 끊임없이 반복 되어졌던 만신 김금화의 메시지는 낮아져라, 희생해라, 겸손해라였고 이러한 메시지의 실천이 안드레아의 삶에 있을 때 안드레아는 조금은 나은 자아의 실현을 경험케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진정한 메시지를 찾아 헤메고 있다. 진정한 자아를 실현케 해 주며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지를 찾아 오늘 날 많은 수의 기독교인들이 불교로 천주교로 개종을 하고 있다. 교회 안의 진정한 십자가의 메시지가 회복 되어 질 때에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아파했던 많은 사람들의 욕구가 충족 되고 바른 자아의 실현이 가능케 될 것이다.

둘째로 만신 김금화는 많은 예식들을 통해 안드레아의 삶 속에 자신의 신과 정신을 심어주고자 노력한다. 내림굿을 받게 된 안드레아는 산맞이 굿, 허침 굿, 일월 성신 맞이 굿, 무구 전수, 머리 땀기 등 많은 예식과 의식들을 경험케 된다. 이러한 예식들이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아무런 의미 없이 진행된 것들이 없었다라는 것이다. 각각의 의식에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 왜 그것을 행해 왔고 지금 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 그리고 그 의식은 단순히 사람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육체적인 의식이 아닌 신의 임재와 간섭을 바라는 영적인 실체성이 그 안에 숨겨져 있었다. 이러한 예식의 순서들을 통해 안드레아는 점점 더 신의 사람이 되어져갔다. 결코 짧지도 단순하지도 않은 그 순서들을 안드레아는 끈질기게 이수해 나갔고 하나 하나의 과정을 밟아 가면서 만신 김금화와 그녀의 제자들과의 유대 관계는 딸과 어머니 그리고 친 자매의 관계로 발전 되어져 갔다. 예식과 의식의 강점이 이 부분에서 나타나게 된다. 결코 쉽지 않은 예식들을 몸으로 직접 체험해 나가면서 만신 김금화와 그녀의 제자들에

⁷ Bassellin. "SBS 푸른 눈에 내린 신령 (20070513)." YouTube, 24 Apr. 2011. Web. 10 Oct. 2012. <http://www.youtube.com/watch?v=Bu1D2syIPEY>

푸른눈에 내린 신령

대한 안드레아의 유대감은 점점 더 깊어져 간다. 같은 어려운 과정을 이미 지나온 동료들을 바라보며 그리고 이 순간 이 힘든 과정을 함께 해 주는 그들을 바라보며 안드레아는 자신의 삶을 지치게 만들었던 외로움과 두려움을 과감하게 떨쳐 내게 된다. 놀랍게도 모든 의식의 끝은 세 살 짜리 아기 신을 맞게 되는 것이다. 자신을 보듬고 지켜준 영적인 어머니 만신 김금화와 자매로 맺어지게 된 선배 동료들 앞에서 안드레아는 세 살 짜리 아기가 되어 투정도 부리고 장난도 치게 된다. 완전한 솔직함과 자신을 보여줌이 가족 앞에서 불가능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딱딱하고 지루하게 여겨지는 의식의 중요성과 그 힘을 무속의 과정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이 통탄할 수 밖에 없는 일이겠지만 본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나 표면의 장점을 배우는 것이 이번 과제의 목표이기에 이러한 깨달음을 표현케 되는 것이다. 한국 교회의 예배에 이러한 강한 힘을 가진 예식이 있는가? 그 답은 있다라는 것이고 슬픈 현실은 그 답을 한국 교회는 사용치 않고 있다라는 것이다. 초대 교회의 예배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과 성찬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예배였다. 중세 로마교회가 이러한 전통을 왜곡하고 성찬 중심의 예배를 강조케 되었을 때에 이를 말씀과 성찬의 예배로 회복시킨 것이 종교 개혁자들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종교 개혁자들의 정신을 받아들인다는 한국의 교회가 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예배 안에서의 의식과 순서들은 오직 설교를 위한 준비 과정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게 되는 말들이 준비 기도요 준비 찬송인 것이다. 기도도 설교를 위해 하고 찬송도 설교를 듣기 위해서 한다. 그 어떠한 순서에도 그 순서 본래의 의미는 없고 설교를 섬기기 위한 도구적인 기능만 있을 뿐이다. 이러한 아픈 현실을 더 절망케 만드는 것은 너무도 드물게 일어나는 성만찬의 예식이다. 오직 일 년에 두 세번만의 성만찬만 있을 뿐인 한국 교회에서 다른 의식이나 예식들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만무한 일이다. 교회의 절기나 절기력이 무시 되어져서 소위 대형 교회라 하는 곳에서는 절기나 교회력과는 상관없는 시리즈 중심의 설교가 이어져서 교회의 절기에 무엇이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하는 교인들로 교회가 가득 차게 되었다. 이러한 의식과 예식의 부재는 교회에 대한 소속감과 교인들간의 유대감의 약화를 가져온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리하여 오늘 날 한국 교회 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민 교회 안에서도 자신을 떠돌이 신자 방랑객 신자로 간주하며 자신의 구미에 맞는 설교만을 쫓아 다니는 철새 신자들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결국 한국의 기독교는 의식과 예식을 고수한 천주교에 비해 많은 수의 신자들을 잃게 된다. 2005년 통계청 인구 조사 결과 1995년 에서 2005년까지 한국 천주교 신자는 75%나 증가한 반면 (350만 증가) 기독교 인구는 1.7%가 감소하여 860만의 신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⁸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를 이재철 목사는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은?’이라는 설교에서 기독교의 명품성과 접근성이 천주교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⁹ 명품성이라 함은 사람들이 천주교 안에서 미사를 드릴 때에 수천년 동안 전해 내려져온 예배의 예식들을 통해 영적인 경외감을 느끼게 해주는 명품성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한 미사에서의 예식들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 하게 되고 이로 인해 많은 수의 기독교인들이 천주교로 개종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접근성을 들 수 있는데, 많은 수의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의 수직적인 구조와 이를 그대로 반영한 설교자 중심의 예배로 인해 실망을 안고 천주교로 개종케 된다는 것이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기에 한 사람의 인격과 그의 설교의 능력에 좌지우지 되는 예배는 결국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이다. 개신교 목사로서 설교와 말씀을 중시하는 목사로서 이재철 목사의 예식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 설교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⁸한국의 인구. 주택 인구 주택 총 조사 종합분석보고서, 10

⁹ <http://www.youtube.com/watch?v=rgegDyUQgFMk>

김정훈

이러한 문제를 해결키 위한 방안은 예배에 있어서 말씀과 예식의 균형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이다. 말씀에 지나치게 치중된 예배에 대한 신학을 다시금 바르게 확립하고 오직 설교자 중심의 예배의 순서들을 과감히 개혁하여 예배의 순서 속에 대중의 참여를 격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해 없는 의식과 의미 없는 예식은 결국 무미 건조한 또 하나의 예배를 양상 할 가능성이 크므로 한국 교회는 자발적인 안내와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교회 예배 안에 있는 의식과 예식들, 그리고 절기들에 대한 성도들의 바른 이해를 도와야 할 것이다.

사람들의 종교성이 높아지고 불교 천주교의 교세가 확장해 가는 이 시대에 왜 한국 교회 홀로 쇠퇴하는가에 대한 물음의 답을 예배의 문제에서 찾아 보았다. 잃어버린 안드레아와 또 다른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을 지키고 되 찾아 와야 할 의무와 사명이 우리 한국 교회에게 주어졌다. 이러한 한국 교회의 예배의 문제와 그에 대한 해답을 만신 김금화의 무속에서 찾은 것은 자랑할 만한 것이 될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표면에 나타난 그들의 긍정적인 모습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나의 것으로 회복 발전시키는 일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인 듯 하다. 첫째로 한국 교회는 잃어버린 말씀의 능력을 다시 찾아야 할 것이다. 영혼을 압도하고 인생의 원초적인 질문에 시원한 해답의 길을 알려주었던 만신 김금화의 메시지처럼 오늘 날 우리 한국 교회의 예배에서도 근본적인 인생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 주는 메시지들이 개발되고 선포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오늘 날 한국 교회 안에 팽배해 있는 기복 신앙과 물질에 대한 설교를 자제해야 할 것이다. 지난 시절 어려웠던 한파 속에서의 축복의 신앙과 긍정의 신앙은 한국 국민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의 삶을 지탱해 주었던 중요한 말씀임에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굶주렸던 한국민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메시지였다 라는 것을 인정 하지만 그로 인해 정작 반드시 선포 되어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로 인해 변화 되어야 하는 삶에 대한 메시지가 약화 되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만신 김금화가 강조하고 강조했던 겸손해라, 착하게 살아라, 성실하라, 남을 위해 네가 고통을 겪어지라는 메시지를 우리 교회 안에서 회복할 때에 라야 만이 결국 물질을 소유하고도 진정한 삶의 성취감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십자가를 통한 인생의 성취감을 누리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의 교회는 설교에만 치중 되어 있는 예배에 간과 되어 왔던 성례전을 다시금 강조함으로써 잃어버린 10 년의 아픔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천주교와 불교를 떠나 무시하고 천시했던 무속에 비해서도 열등하게 되어버린 한국 기독교의 의식과 예식들을 다시금 예배 안에서 회복하여 단지 귀와 생각만이 아닌 몸으로 느끼는 예배를 사람들이 경험케 될 때 많은 교회의 회복이 다시 한 번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말씀과 예식이 함께 살아 있는 진정한 축제의 예배가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진정한 성숙과 성장을 함께 경험하고 기뻐하는 한국 교회의 앞날이 있게 될 것임을 기대하고 생각하게 된다.

참고자료

- Bassellin. "SBS 푸른 눈에 내린 신령 (20070513)." YouTube, 24 Apr. 2011. Web. 10 Oct. 2012. <http://www.youtube.com/watch?v=Bu1D2syIPEY>.
- 한국의 인구 . 주택 인구 주택 총 조사 종합분석보고서
이재철.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은." N.p., n.d. Web.
<http://www.youtube.com/watch?v=rggDvUQgFMk>
- 문성모. "한국 교회 예배 현장의 문제점." N.p., n.d. Web. 11 Oct. 2012.
<http://www.sjs.ac.kr/v2/president/r04.htm?mode=body>

교회 분립 개척

양형구

들어가는 말

분당우리교회를 시무하는 이찬수 목사는 지난 7 월 1 일 주일예배 설교 시간에 이런 내용의 글자로 설교를 해서 향간의 주목을 받았다.

지금은 내 목회의 전성기인데도 마음이 불편하다. 지금부터 10 년 동안 성도들을 잘 훈련시켜서 교회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겠다. 교인 절반이나 4 분의 3 정도가 교회를 떠나 연약한 교회로 파송되면 좋겠다. 고급 인력들이 이 안에서 사장되는 게 옳지 않다. 유람선처럼 앞서서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 곳곳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또 650 억 원을 들여 매입한 교육관을 10 년 후 되팔겠다. 10 여 년 우리가 교육하는데 쓰고, 이후에 되팔아서 그 큰돈을 가지고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위하여 쓰겠다...¹

최근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건축과 재정 비리, 부자세습 등으로 사회적인 질타를 받은 한국 교회의 현실 속에 이찬수 목사의 “대형교회 포기” 선언은 기독교인 뿐만 아니라 일반언론과 비기독교인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실제로 그 당시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로 오르내릴 정도로 이찬수 목사의 “대형교회 포기” 선언은 많은 이들에게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사실상 이목사의 선언은 말 그대로 선언이지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는 전혀 없다. 실제로, 그 이후에 있었던 여론의 뜨거운 관심에 대해 이목사는 난색을 표하면서 그 선포는 앞으로의 분당우리교회의 방향성에 대한 선언적 의미이지 사회적인 이벤트화 혹은 이슈화로 만들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² 한국 교회의 현실, 특별히 장로교회의 상황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현실적으로 이목사의 “대형교회 포기”가 원활하게 진행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절차를 당회와 교회 제직 및 공동의회를 통한 인준 절차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³ 과연 이목사의 바람대로 실행될지는 그의 말대로 10 년이라는 긴 호흡을 가지고 지켜 볼 일이다.

¹ 2012 년 7 월 1 일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 설교 가운데 중요부분 발췌,

<http://www.youtube.com/watch?v=mOiTfFE-G7o>

² 기독교일보(2012. 7. 8) <http://www.christianitydaily.com/view.htm?id=4708>

³ 실제로 온누리교회의 고(故) 하용조 목사도 8 년 전 “오래 다닌 사람들부터 교회를 떠나야 한다. 세계로 다 흩어져야 한다”고 했지만, 그저 미완의 선포에 그쳤다.

분당우리교회의 이찬수 목사가 생각하는 “대형교회 포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실현 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동안 대형교회 되기를 포기하고 그 대안으로 “분립개혁”을 조용히 실천해 온 교회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들 교회는 비록 일반 언론 매체에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처음부터 “분립개혁”에 대한 성경적 의미와 신학적인 의의를 견고히 붙들고 드러나지 않게 예수의 정신을 따르고 있는 교회들이다.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한국 교회의 여러 문제(부자 세습, 대형교회의 독점화, 배타적 선교, 소비주의 신앙, 교인들의 역사의식 부재)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 볼 때, 가장 큰 원인의 하나가 “교회의 대형화” 또는 “모든 교회의 대형화 추구”라고 본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이러한 한국 교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실제적인 대안의 하나로서 “분립개혁”을 소개하고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오늘날 한국 교회에 분립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찾고자 한다.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대형교회의 한계와 위험성을 지적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동안 한국 교회 안에서 어떤 형식으로 분립개혁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고 그 특징과 장단점을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 속에서 분립개혁의 신학적 의의를 살피고자 한다.

분립개혁은 왜 필요한가?

한국 교회 대형화의 이유

종교사회학적 관점에서 한국 교회를 분석하는 이원규 교수는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대형교회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형교회는 다양하고 알찬 교회 프로그램(전 세대에 걸친), 크고 넓은 교회시설, 충분한 인적 물적 자원, 카리스마적인 목회자를 가진 경우가 많다. 또한 익명성이 보장되고, 특별한 헌신 없이도 부담 없이 교회에 출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 교회가 1년에 약 500 개 가량의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현실 속에서 대형 교회들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⁴ 실제로 남한 인구의 5천만 중 약 20% 정도를 기독교 인구로 가정할 때 약 천만이 못된 기독교인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10 대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가 5 개가 들어있다.⁵ 이것은 통계학적이고 현상학적인 측면에서 매우 기이한 현상이다. 그렇다면 이런 한국 교회의 기형적인 “교회대형화”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천안살림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최형목 목사(한신대 외래교수)의 말에 따르면, 한국 기독교가 100 여 년의 길지 않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급성장하고 해외 선교의 대규모 확장을 이룰 수 있었던 요인을 매우 뛰어난 현실 적응력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한국의 1960-1970 년대의 경제 성장을 돌진적 근대화로 표현하면서 급속한 경제 개발로 와해된 전통 사회의 공동체성을 도시 교회가 대신 담보해 왔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경제개발의 논리를 교회가 그대로 수용하면서 교회의 성장과 대형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⁶ 그러나 문제는 한국 기독교가 개발독재체제가 추구한 경제성장 정책의 문제를 그대로 떠 안게 된 사실이다. 통제되지 않는 시장자본주의의 논리는 모든 사람들을 욕망의 충족을 향해 달리는, 물질적인 번영과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비뚤어진 인격체로 만들게 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1등을 향해 달려

⁴ 이원규, 『종교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 교회의 위기와 희망』 (KMC, 2010), 350.

⁵ “O come all ye faithful,” *Special Report on Religion and Public Life*, (The Economist, 2007), 6.

⁶ 최형목 목사는 박정희 정권과 신군부 정권 하에서 빈번히 계속된 대규모 집회 방식 자체가 국가의 총동원 전략을 그대로 답했다고 주장한다. 그 안에서 선포되는 메시지 또한 경제적 성장의 이데올로기가 기독교적으로 변용되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조국 근대화’는 ‘민족 복음화’, ‘잘살아보세’는 ‘삼박자 축복’으로 등식화되었다고 본다.

교회 분립 개척

가지만 1 등은 한명일뿐 나머지 모든 사람은 실패자 혹은 낙오자로 전락하고 만다.⁷ 마찬가지로 한국 기독교는 급진적 경제화의 논리를 답습하여 교회의 규모 확장과 대형화를 지향하고 추구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성공적인 대형 교회는 소수이고 대다수 교회는 소규모 교회이다.⁸ 그러나 교회의 대형화의 더 큰 문제는 모든 교회들이 심지어 작은 규모의 교회조차 그것을 동경한다는 사실이다.

교회의 대형화 또는 대형화 추구에 대한 문제점은 이것만이 아니다. 교인간의 수평이동은 결국 대형교회의 쏠림 현상으로 나타났고, 작은 교회의 목회자들이 대형교회를 동경하면서도 피해의식을 느끼게 만들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의 목회 방향이 부흥과 성장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개교회의 개성이 드러나지 않고 특수목회의 영역이 점차 상실되고 있다. 신학생들에게 현실적인 문제로 교회의 대형화는 목회자 수급에 문제를 야기한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경제논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게 승자 독식, 무한경쟁에 휩쓸려 가는 형국이다.

분립 개척의 정의와 필요성

그 동안 한국 교회 안에서 교회 개척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하나는 공간적인 개념으로, “개척”이라는 말 그대로 교회가 없는 곳에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행위이다. 또 하나는 그 개척 내용의 개념으로서, 이미 각 지역 공동체에 교회는 있지만, 개척자가 지역의 필요와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교회를 설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회 개척은 목회자가 교회에 청빙받지 않아 마지 못해 하는 경우가 많고, 또 기존 교회 안에 어떤 충돌과 갈등으로 인해 교회가 분립되어 개척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 점에서 이 글에서 다루는 분립 개척이란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확장을 위해 교회를 개척할 때, 개척교회에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당회원 중 일부가 함께 교회 개척에 동참하는 경우를 말한다.⁹ 여기서 당회원이란 담임 목사를 비롯한 부목사와 장로들이 해당이 된다. 중요한 것은 분립 개척을 할 때 단순히 담당 목사를 파견하고, 재정적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교회의 중요한 교회 멤버가 실제적으로 분립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분립 개척을 옮겨 심기(Trans-planting)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모교회 입장에서는 기존 교인들에게 교회의 선교적 사명이 실제적으로 무엇인지를 보여 줄 수 있고, 오늘 날 많은 교회가 교회 성장과 더불어 건강한 교회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분립 개척은 새로운 방법으로 대두될 수 있다.

따라서 분립 개척은 개교회주의를 벗어나서 교회의 존재 이유를 회복하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비록 지구상의 수 많은 교회가 있지만, 모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서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특별히 안진섭 목사는 “분립 개척을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이다”라고 말한다.¹⁰ 즉 비록 교회가 다른 목회 방향과 비전이 있을지라도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전제를 한다. 개교회 성장의 패러다임에서 탈피하여 더불어 성장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교회가 어느 정도 숫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목회자가 성도를 일일이 돌보는 것이

⁷ 허호익, 김경호, 정중훈, 최형목 공동 저, 『위기의 한국 교회, 진단과 대안』 (동연, 2010), 91-95.

⁸ 교인 규모 1000 명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 되는 교회는 2%에 불과하다. 반면에 50 명 미만의 영세한 교회들이 한국 교회의 60%가 넘는다.(위의 책, 96)

⁹ 이상규 “분립개척을 통한 교회 성장과 목회자의 리더십에 대한 연구: 분당샘물교회를 중심으로” (충신대 선교대학원, 2006), 24.

¹⁰ 안진섭, “나의 분립 개척 이야기-분립 개척을 통한 건강한 교회 성장” (목회와 신학), 62-75.

양형구

힘들어 진다. 물론 그 대안으로 교구 별로 나누어서 교구 목사(부목사)가 돌볼 수 있다. 하지만 크게 보면 결국 담임 목사의 영적인 권위와 기존 교회의 행정적 시스템을 크게 탈피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의 역동성을 잃어버리고 만다. 교회의 대형화는 교인들을 일주일에 한 시간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고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종교인으로 양성하게 만든다. 따라서 더 활발한 성장과 목회적 돌봄 그리고 역동성을 위해 교회 분립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1. 분립 개척의 신학적 의의

사실, 성경에 분립 개척의 용어나 오늘날 교회와 같은 분립 교회 사례가 나오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서에 드러난 예수님의 목양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그것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선한 목자 비유”를 보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와 삯꾼 목자의 큰 차이점을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 10:14-15)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목양의 원리 두 가지는 바로 “앎”과 “희생”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알고 희로애락의 삶을 공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상적인 교회의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는 매우 주관적이지만, 목회자가 성도들의 삶을 알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며 희생할 수 있는 규모는 많지 않다. 실제로 예수께서는 공생애 사역을 하시며 여러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12 제자들과 삶을 나누었고, 그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켰다.

또한 초기 기독교 선교 역사 가운데 베드로, 바나바, 바울이라는 큰 발자취를 남긴 거목들이지만, 사도행전과 또 서신서 곳곳을 보면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게 그들의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한 선교 역사의 아름다운 숲을 장식하는 많은 일꾼들을 볼 수 있다.¹¹ 그러나 초기 교회 선교 사역을 보면 각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 전파를 위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서로 돕는 모습이 많이 자주 등장한다. 몇 사람에 의해 개척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하여 부족한 부분을 감당하게 한다. (행 11:20-23) 이때 바나바는 아무도 바울의 회심을 믿지 않을 때, 다소에 있는 그를 찾아가 선교 동역자로 인정해 주고 그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였다. (행 9:26-27; 11:25-26) 또한 안디옥 교회가 개척된 지 불과 2~3년 밖에 안 됐을 때 바나바와 바울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개척자(선교사)로 파송하게 이른다. (행 13:1-3)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 격인 바나바와 젊고 유능한 부목사 사울을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위해서 한꺼번에 내어놓은 것이다. 또한 모교회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들 때, 바울은 로마교회에 편지를 쓰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부탁하기도 한다. (롬 15:25~27) 이렇듯 초기교회의 선교와 교회의 개척과 성장 과정을 보면, 대형화 또는 물량주의를 피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예수 그리스도 선포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긴밀히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며 선교를 하였다.

분립 개척의 사례 분석 및 제안

이제 구체적으로 한국 교회 안에 분립 개척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대표적인 세 교회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세 교회는 각각 다른 교단의 소속으로 교인의 규모가 다르고, 분립 개척의 배경과 과정이 비슷하면서도 차이점이 있다.

¹¹ 사도 바울의 그의 사신 끝에 그의 선교 동역자를 소개하고 안부를 묻고 있다. 특별히 롬 16 장, 고전 16 장, 골 4 장, 몬 1 장을 보라.

교회 분립 개척

강남 향린교회(기장)의 분립 개척

강남 향린 교회는 서울 명동 향린교회 창립 40 주년을 기념으로 1993년에 개척되어진 교회이다. 당시 명동 향린 교회의 부교역자였던 김경호 목사는 인적 지원 없이 교회로부터 1억 200만 원을 지원받고 5년간 사례비(첫 해는 100%, 다음 해부터는 20%씩 경감)를 지원 받는 약속으로 교회 개척을 시작했다. 따라서 강남 향린교회의 개척은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분립 개척이 아니다. 그러나 김경호 목사는 강남 향린교회를 개척하면서 교인 정원이 500 명이 넘으면 분가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5년 정도 지나서 재적 교인이 200 여명에 이르게 되자 교회 성장은 소강 상태에 들어갔고 성도들이 현실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보이기 시작한다.¹² 그래서 김경호 목사는 교회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분립 개척을 시도하게 된다.

200여명의 재적은 사실상 분립 개척을 하기에 큰 규모는 아니었다. 더군다나 김경호 목사가 직접 개척한 교회이기에 성도들과 목회자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였다. 따라서 담당 개척자와 함께 기꺼이 개척에 동참하려는 성도가 없음을 깨닫게 된 김목사는 부교역자 중의 한 명을 강남 향린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우고, 2004년 11월 본인이 직접 개척자가 되어 들꽃 향린교회를 개척하게 된다. 그래서 교회 교인의 15%로(약 20여명)의 성도와 함께 분리 개척을 시작하는데, 재정적인 면에서는 강남 향린교회 순자산의 20%를 초기 재원으로 제공하기로 했고, 처음 1년간은 목회자 사례비의 2/3를, 다음 1년간은 목회자 사례비의 1/3을 지급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양쪽 교회 모두 숫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3년이 지나자 강남 향린교회는 원래의 상태를 회복하게 되었고, 들꽃 향린교회도 재정 지원을 받지 않아도 자립할 수 있는 독립적인 교회가 되었다. 단순히 두 교회가 독립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두 교회가 협력하여서 지역사회를 섬기기 시작했다. “위례시민연대”와 “송파 꿈나무학교”가 그 증거이다. 이뿐만 아니라 모교회인 명동 향린교회까지 포함해서 세 향린교회가 “향린 공동체 협의회”를 구성하여 분기에 한번씩 공동의 목회 계획과 선교 실천 계획을 나누며 매년 초에 목회자 수련회도 함께 하기에 이르게 된다.¹³ 강남 향린교회가 이렇게 성공적인 분립개척을 할 수 가장 큰 원동력은 담임 목사인 김경호 목사의 자기 희생과 목회 시작부터 꿈꾼 분립 개척의 비전이 성도들에게 충분히 이식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강남 향린교회의 분립 개척의 유형은 교회 자체가 크지 않은 규모 가운데 분립 개척을 시도한 경우이다. 자칫 분립 시키는 교회나 분리해 나가는 교회 양쪽 다 어려움에 처할 수 있었지만, 담임 목사가 직접 개척교회의 담당자로 자처함으로써 두 교회 다 상생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김경호 목사는 강남 향린교회 개척 처음부터 분명한 분립 개척의 비전을 세웠고, 또 분립 개척의 과정 가운데 목회자의 단독적인 계획이 아니라 교회 자체적인 “교회갱신위원회”라는 협의 기구를 통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되었다.

이점에서 강남 향린교회의 분립 개척은 꼭 대형교회만이 분립 개척을 할 수 있다는 우리의 편견을 바로잡아 준다. 오히려 개척한지 10여년 밖에 안 되는 중소형 교회의 규모에서도 분립 개척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분립 개척의 과정 가운데 평신도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고무적이었다. 분립 개척이라는 끊임없는 교회 개혁과 비전 제시로 성도들이 단순히 일주일에 한번 예배하는 종교인이 아닌 능동적인 자세로 교회의 대 사회적 임무와 역할을 목회자와 함께 고민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본다. 그리고 분립 개척 이후에 개교회 중심으로 가지 않고, 세 교회가 협력 목회, 공동 선교라는 큰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은 분립 개척의 큰 성과라고 본다. 하나의 큰 교회보다 같은 뜻과 비전을 품은 세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더 강한 섬김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예이다.

¹² 이한진, “어떻게 모교회의 일부 성도를 개척교회로 파송 할 것인가?” (『목회와 신학』 2008년 5월), 51

¹³ 위의 책, 72

높은 뜻 승의 교회(통합)의 분립 개척

높은 뜻 승의교회는 김동호 목사가 동안교회 담임 목사를 사임하고 2001년 10월 개척하여 남산의 승의여대 강당을 빌려 예배를 드려왔다. 그런데 갑자기 2007년 말 학교측으로부터, 2008년 말까지 교회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아 더 이상 승의여대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고 2009년 1월 1일부로 4개의 교회로 분립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 보면 높은뜻 승의교회가 분립하기로 한 것은 5천명이 넘는 성도가 들어갈 예배당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다. 높은뜻 승의교회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구입을 할 수도 있고 건축을 할 수도 있을 정도의 규모와 능력을 가진 교회였다. 높은뜻연합 선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김동호 목사의 말에 의하면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에 근거하여 열매나눔 재단을 설립하고 기금조성을 시작하여 약 200억 사회봉사기금이 교회 재정으로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김동호 목사는 예배당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한 약속, 즉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결정에 의하여 교회를 분립하여 나누어지기로 한 것이다.¹⁴

높은뜻 승의교회의 분립 개척의 유형은 김동호 목사나 교회 자체적으로 오래 전부터 계획해서 실천해 온 것이 아니다. 실제로 예배처소를 비워달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분립 개척을 생각하지 않고 예배 장소를 찾았다고 김목사는 고백한다. 하지만 5천 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예배 장소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무엇보다 예배당을 새로 지으려면 지을 수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상황이 되자, 분립 개척이 높은뜻 승의교회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판단하게 된다. 성공적인 분립을 하려면 김동호 목사 본인이 빠져야 한다고 생각하여 높은뜻 승의교회는 2008년 12월 마지막 주 예배를 끝으로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높은뜻 정의(도봉구 쌍문동 정의여고 강당을 빌려 예배 드림), 높은뜻 광성(마포구 신수동 광성고등학교 건물을 빌려 예배 드림), 높은뜻 푸른(기존 높은뜻 승의교회 건물인 남산 청어람에서 예배 드림, 현재는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고 강당 및 부속 건물로 이전), 높은뜻 하늘교회(용인 기흥구 동백 상가 건물 소재) 이렇게 4개 교회로 나누어져 2009년부터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¹⁵

특히 이 과정 가운데 김동호 목사는 주일예배 설교 중에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성전”에 당위성을 성도들에게 인식시키려 노력하였고, 2008년 12월부터 4개의 교회들이 차례로 분립 설명회를 열어 교인들이 자신의 은사에 맞는 교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그는 분립 개척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김희권 목사(승실대 기독교학과 교수)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다.

¹⁴ 높은뜻 연합선교회 홈페이지(http://www.godswill.or.kr/index.php?mid=intro_3) “높은뜻승의교회 분립 이야기” 중에서

¹⁵ 1) 높은뜻광성교회- 전임 목사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수였던 이장호 목사로 광성교회는 타문화선교(인도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와 의료선교, 통일선교, 사회선교, 학원선교, 국내선교(미자립교회 협력, 농촌 봉사 활동, 군부대 방문)를 주력으로 한다.
 2) 높은뜻정의교회- 일본 선교사 출신인 오대식 목사가 전임목사를 맡은 교회로, 정의교회의 4대 비전은 높은뜻승의교회의 정신 계승과 세계선교, 가정회복, 가족 같은 사랑이다. 러시아와 몽골, 일본 선교, 청소년·학원 선교에 주력한다.
 3) 높은뜻하늘교회- 전임목사는 이상윤 목사로 용인시를 중심으로 인근지역(성남, 분당, 광주, 이천, 안성, 수원, 화성, 동탄)에 사는 주민들까지 선교 대상으로 삼았다. 세계 곳곳에 30개 교회를 개척하고, 기독교 사립학교를 세운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타문화권 선교로는 최진방 교회 개척과 에큐메니칼적 해외 선교팀 운영, 국내 외국인 재소자 전도를 실시하기로 한다.
 4) 높은뜻푸른교회-네 교회 중 교역자 규모가 가장 크다. 전임목사는 문희곤 목사이고, 푸른교회는 대학청년과 청소년 사역에 집중한다. 청년부, 대학부, 중고등부 사역자만 12명이 배치됐다.
<http://blog.naver.com/modegi?Redirect=Log&logNo=120060040343>에서 발췌 요약

교회 분립 개척

나는 분립을 하면 최소한 2000 명까지 줄어도 된다고 생각했고, 3000 명 남으면 회복할 있고, 2000 명 줄어도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군요. 분립 후 1000 명이 늘었어요. 이것은 설명할 수 없는 일이지요. 우리는 넷이면서 하나, 하나이면서 넷인 교회를 만들려고 해요. 인사 행정 재정 면에서 모두 독립했어요. 희년 운동이나 공동사업을 위해서 교회예산 30% 중앙으로 보내요. 저는 높은뜻교회 연합대표라는 직분을 맡기로 했습니다. 매주 한 교회를 순회하며 설교하다가 일 년에 부활절이나 전교인 여름수련회는 같이 하려고 해요.¹⁶

이후에도 갈라져 나온 4 개 교회를 통해 높은뜻 섬기는 교회(중구 남산동, 담임목사 이창호), 높은뜻 씨앗이 되어 교회(천안시, 담임목사 김동호), 높은뜻 오차노미즈교회(일본, 담임목사 장승철)가 분립 개척되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은 김동호 목사 역시 2011년 3월 천안시에 기독교 대안학교를 통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높은뜻 씨앗이 되어 교회를 개척하게 된다. 높은뜻 승의교회의 분립 개척의 과정은 앞서도 언급했지만, 그리 오랜 시간에 걸친 계획 가운데 진행된 것이 아니다. 2001년에 높은뜻 승의교회를 개척하여 약 10여년 동안 무려 7개의 분립 교회가 나오게 된다. 현실적으로 보면, 예배 공간이 없는 상황 속에서 짧은 시간 동안 김동호 목사의 개인적 신앙의 결단으로 시작된 새로운 도전이었다. 비록 그 출발점은 김동호 목사의 개인적인 결단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과적으로 4개의 분립된 교회 어디에도 속하지 않음으로써 각각의 분립 교회가 독특하고 특성 있는 목회를 추구할 수 있었고, 이후에도 3개가 더 분립 하는 과정이 이르렀다.

높은뜻 승의교회의 분립 개척은 한국 교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지금까지 큰 교회들이 지교회 개념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일이 있었어도, 모교회가 완전히 사라지면서 완전히 나누어지는 일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자신이 처음부터 개척하여 5천명이 넘는 성도를 4개 교회로 분립하기로 한 결정은 김동호 목사의 내려놓음이 아니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대형교회의 부자세습으로 인해 지탄이 된 한국 교회에 건강한 분립개척의 예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몇 가지 지적하자면, 첫째, 분립 개척의 과정 가운데 “김동호 목사”라는 이름의 가치 혹은 “높은뜻 교회”라는 브랜드 가치가 지나치게 강조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김동호 목사는 처음에 분립된 교회의 안정적 출발을 위해 분립 후 1년간 4교회를 순회 하면서 설교하기로 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여전히 지금도 높은뜻 연합선교회의 대표목사의 자격으로 각 교회를 순회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다. 그리고 작년 3월에 천안시에 본인이 직접 개척한 “높은뜻 씨앗이 되어” 교회도 결국 자신의 개인적 영향력을 가지고 또 다른 사회사업(교육, 영성수련원)을 계획하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된다. 물론 그 과정이 2005년부터 오랜 동안 김동호 목사의 목회 계획 속에 있었고, 성경적인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지만,¹⁷ 끊임없이 자신의 이름의 가치와 설교의 영향력을 가지고 선교 사업을 진행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¹⁶높은뜻 연합선교회 홈페이지(<http://www.godswill.or.kr>) “높은뜻승의교회 분립 이야기” 중에서

¹⁷높은뜻 씨앗이되어교회 홈페이지(<http://www.godswillseed.or.kr>) “씨앗교회 이야기”

둘째, 분립 개척 된 4 개 교회의 담임목사와 수평적인 관계로 보여지지 않는다. 4 개의 분립된 교회가 “높은 뜻”이라는 하나의 가치를 추구하여 연합모임을 통해 대 사회적인 섬김과 선교 사업을 감당하는 점은 충분히 높이 사야 마땅하다. 그러나 김동호 목사 외에 다른 4 개의 분립 개척된 목사와 그 개교회의 독특한 사역이 김목사의 큰 그림자에 가려지고 드러나지 않는다.

새누리 교회(기침) 분립 개척

새누리 교회(기독교한국침례회)는 1994년 12월 김동명 목사(2001년 은퇴)가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제자훈련과 가정예배를 중심으로 한 가족 공동체를 지양하는 교회로 개척을 시작하였다. “대형교회를 지양하고 분립 개척을 통해 이 땅에 착한 양, 착한 목자를 배출할 수 있는 목자 양성소를 증가시킨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분립 개척의 규정을 정한다. 그 중 하나의 원칙은 성도가 300-500명 정도 되었을 경우 분립 개척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¹⁸ 그 가운데 실제 성도가 300-400명 되었을 때 새로운 예배당 건물을 얻어야 할 상황에서 분립 개척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2003년 11월을 목표로 준비하게 된다.¹⁹

분립 개척에 대해 논의할 당시 2001년 김동명 목사가 은퇴한 이후 2002년 대표목사로 안진섭 목사가 임직하였을 때이다. 분립 개척에 대한 필요와 공감대가 모두 형성되었고, 재정적 인적 자원도 모두 갖추어진 상황이지만 그 당시 새누리교회에는 전도사만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새누리 교회 분립 개척 기본원칙”에 따라 모교회에 목회자를 새로 청빙하고 2004년 3월에 담임 목사인 안진섭 목사가 직접 새누리 2 교회를 분립 개척하게 된다. 교인선정은 자발적인 분립 개척에 동참할 것을 원칙으로 하여 교회 개척 당시 청장년을 포함하여 약 120명의 성도가 파송되었다.²⁰ 재정지원 방법으로 모교회가 개척교회를 위하여 자립할 때까지 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약속해서 약 1년 동안은 두 교회가 헌금도 같이 모았고 모든 재정을 공유하였다. 그러나 1년이 되어 새누리 2 교회가 완전히 자립하게 된다.

이후 모교회와 개척된 새누리 2 교회는 일방적인 상하관계가 아니라 독립성을 인정하면서도 목적과 사명을 공유하는 형제교회로서 대등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였다. 정기적인 연합예배와 교환예배, 연합 목장 모임을 통하여 이루어졌다.²¹ 2006년 9월 통계에 의하면 개척 2년만에 새누리 2 교회는 주일 예배 출석인원 장년 250명, 청년 40명, 중고등부 40명, 주일학교 100명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²²

새누리교회는 교회 개척 초기부터 가족 공동체를 지향하며 대형교회를 포기한 교회였다. 이런 교회의 비전이 교인들에게 처음부터 인식되어서 분립 개척시 큰 문제점이나 모교회와 분립교회와의 불균형이 유발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강남 향린교회의 김경호 목사와 같이 안진섭 담임 목사가 직접 분립 개척에 개척 목사로 나갔기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동참할 수 있었고, 일년 만에 자립할 수 있었다. 새누리 두 교회 홈페이지 소개를 보면 안진섭 목사는 계속해서 개교회의 교회 성장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목표로 또 다른 방법의 새누리 3, 새누리 4 교회의 분립 개척을 계획하고 있다.

분립 개척의 전체적 평가

¹⁸ 새누리 2 교회 홈페이지(<http://www.saenuree2.or.kr/index.asp>) 교회 연혁소개 중에서 발췌

¹⁹ 이채준, “분립 개척을 통한 교회개척 방안” (침례신학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51-52

²⁰ 안진섭 목사, “나의 분립 개척 이야기- 분립 개척을 통한 건강한 교회 성장,” 70

²¹ 이채준 석사논문, 54

²² 유준상, “교회 분립 개척에 필요한 교회내부 준비작업” (침례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06년), 59

교회 분립 개척

분립 개척의 사례로 소개하지 않았지만, 경기도 군포 산울교회를 담임하는 이문식 목사는 최근 네 번째 분립 개척을 시도하며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개척자로 나선다. 그는 뉴스앤조이와의 인터뷰에서 50대 후반인 본인에게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갑작스러운 결정은 아니었다고 하며 평소 “한 그루 큰 나무가 되기보다는 아름다운 숲을 이루겠다”는 그의 목회적 소신을 피력하였다.²³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 한국 교회의 현실은 아름다운 복음의 확장보다 개교회의 성장이 최고의 목표가 되었다. 현실적으로 한 교회에서 부목사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면 그 교회의 담임 목사와 갈등을 빚게 된다. 혹시라도 성도 중에 일부가 개척되는 교회로 옮길까 걱정하는 것이다. 모든 기독교인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하는 성장이 개교회의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임을 망각한 것으로 전형적인 시장경제 논리가 교회 안에서 답습되고 있는 현실이다.

앞서 소개한 몇 개 교회의 분립 개척의 특징을 보면, 특별히 담임 목사가 그 분립 개척의 선두 주자로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았을 때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 또 우리는 흔히 한 교회가 분립 개척을 하려면 교회의 규모가 모조건 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앞서 모두 소개한 강남 향린교회나 새누리 2 교회는 대형교회가 아니었다. 실제로 현재까지 알려진 한국 교회의 분립 개척의 예가 약 10여개 교회가 되는데,²⁴ 실제로 분립 개척하는 교회를 보면 소위 말하는 대형교회보다 수백명 규모의 중소형 교회가 더 많다는 것이다. 심지어 광야교회나 향린교회 등은 100-200명 남짓 되는 규모이다.

새누리 2 교회를 분립 개척한 안진섭 목사의 말에 따르면 이 교회들은 조금씩 다른 방법으로 분립 개척을 했지만 공통적인 교회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첫째, 분립 개척을 시도한 교회들은 대부분 교회의 공동체성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한 교회의 양적 성장에 초점을 두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 상호 간에 긴밀한 관계를 이루는 것을 교회의 소중한 본질로 여긴다는 점이다. 둘째, 개교회의 성장에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성장에 보다 큰 관심을 갖고 있다.²⁵ 따라서 성도들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교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동참하고 있는 모든 교회에 관심을 기울이고 협력할 수 있게 된다.

나가는 말과 제안

글을 마무리 하며, 한국 교회를 향한 부정적 분위기가 팽배한 이 시점에서 교회의 분립 개척이 한국 교회의 변화와 개혁을 위한 실제적인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현재 드러난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 돈, 권력, 기득권 유지라는 헤게모니(hegemony)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대형교회가 가진 수 만 명의 인적 자원과 재산, 부동산은 그 자체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는 크고 작은 이권이 있다. 그러나 분립 개척은 이러한 논리를 해체 시킨다. 또한 무한경쟁, 승자 독식의 신자유주의 체제가 팽배한 한국 사회에서 분립 개척은 대형화를 포기한 내려놓음의 적극적인 실현이다. 비록 당장 교인수가 줄어들고 교회의 규모가 작아지더라도 모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선포하는 신앙적인 표현이기도 한다. 또한 교회만큼은 시대의 거대한 흐름을 역류하고 있으며 예수 복음의 정신이 교회 안에 여전히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²³ 뉴스앤조이 2012. 8.31 기사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1891>)

²⁴ 본 글에서 소개한 교회 외에 몇 교회를 더 소개하자면, 잠실중앙교회, 동안교회, 남서울교회, 목산침례교회, 남산교회, 서울영동교회, 광야교회, 복된교회, 산울교회 등이 있다.

²⁵ 안진섭 목사의 글, <http://www.holynet.info/news/detail.php?number=3105&thread=01r01>

양형구

끝으로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자면, 기존 전통적인 교회에서 분립 개척이 가능한가의 문제이다. 앞서도 살펴본 것처럼 분립 개척을 했던 교회는 역사가 길지 않은 교회에서 시작되었다. 또 담임 목사가 개척 초기부터 교인들에게 분립 개척의 당위성을 오랫동안 인식하게 했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성도들의 합의와 동의 가운데 진행된 것을 보게 된다. 오히려 준비되지 못한 분립 개척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즉 지금 당장 모든 교회가 분립 개척을 할 수도 없고, 목회자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과제는 지금 신학교에서 훈련받고 있는 목회자 후보생들과 앞으로 담임 목사를 하게 될 부목사들에게 분립 개척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과제이다. 현실적으로 분립개척은 기존 교회의 당회와 특별히 담임 목사의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정확한 통계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분립 개척을 했던 교회는 많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 다양한 분립 개척의 유형이 나올 수 있도록 담임 목사를 준비하는 목회자들이나 목회 현장에 나갈 신학생들은 분립 개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 노회나 총회 차원에서 분립 개척에 대한 다양한 사례 발표와 연구, 홍보를 통해 계속해서 그것이 이어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자료

단행본

이원규, 『종교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 교회의 위기와 희망』 (KMC, 2010)

허호익, 김경호, 정종훈, 최형묵 공동 저, 『위기의 한국 교회, 진단과 대안』 (동연, 2010)

정기 발행물

안진섭, “나의 분립 개척 이야기-분립 개척을 통한 건강한 교회 성장” (『목회와 신학』 2008년 5월)

이한진, “어떻게 모교회의 일부 성도를 개척교회로 파송 할 것인가?” (『목회와 신학』 2008년 5월)

“O come all ye faithful”. *Special Report on Religion and Public Life* (The Economist, 2007-11-03)

논문

이상규 “분립개척을 통한 교회 성장과 목회자의 리더십에 대한 연구: 분당샘물교회를 중심으로” (총신대 선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이채준, “분립 개척을 통한 교회개척 방안” (김례신학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유준상, “교회 분립 개척에 필요한 교회내부 준비작업” (김례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인터넷

기독신문 (2012. 7.8) <http://www.christianitydaily.com/view.htm?id=4708>

높은뜻 연합선교회 홈페이지 http://www.godswill.or.kr/index.php?mid=intro_3

<http://blog.naver.com/modegi?Redirect=Log&logNo=120060040343>

높은뜻 씨앗이되어교회 홈페이지 <http://www.godswillseed.or.kr>

새누리 2 교회 홈페이지 <http://www.saenuree2.or.kr/index.asp>

뉴스엔조이 2012. 8.31 기사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1891>

안진섭 목사의 글, <http://www.holynet.info/news/detail.php?number=3105&thread=01r01>

한교교회의 세습, 무엇이 문제인가? -교회세습에 대한 신학적 고찰-

이수광

들어가는 말

조선일보는 2012년 6월 14일 서울 역삼동 충현교회(예장합동)의 김창인 원로목사(95)가 6월 12일 원로 목회자 예배모임에서 자신이 목회세습을 공개적으로 회개했다고 보도했다.¹ 이 후 여러 언론의 보도로 인해 한동안 잠잠했던 교회세습의 이슈가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김창인 목사는 지난 1997년 아들 김성관 목사에게 무리하게 교회를 물려주었으며, 이로 인해 ‘대형교회 세습 1호’라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갖게 되었고, 그 후 많은 대형교회들에게 교회세습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실제로 그 후로 광림교회(기독교대한감리교, 김선도목사-김정석목사), 금란교회(기독교대한감리교, 김홍도목사-김정민목사), 경향교회(예장고려, 석원태목사-석기현목사), 송의감리교회(기독교대한감리교, 이성해목사-이호문감독-이선목목사) 등으로 교회세습은 유행처럼 번졌고, 최근에는 김삼환목사(명성교회, 예장통합), 전, 현직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었던 길자연 목사(왕성교회, 예장합동)와 홍재철 목사(경서교회, 예장합동) 등이 교회세습을 하거나,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제는 100-200명 규모의 교회에서도 교회세습이 일어나고 있다.²

이처럼 교회세습의 핫이슈는 최근 한국 교회 내에서 큰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는 2012년 7월 19일과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교회세습’은 그 용어부터 잘못되었으며, 정당한 용어는 ‘후임담임목사 청빙’이고 청빙의 대상에는 친인척을 포함한 자격이 되는 모든 목회자이며 이는 성서적으로 교단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³ 또한 김홍도 목사(금란교회)는 9월 1일 <조선일보> 22면의 전면광고를 통해 교회세습을 반대하는 이들의 동기는 시기심에서 비롯되었다며 교회세습을 옹호했다. 반면,

¹ 조선일보, 2012년 6월 14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6/14/2012061400194.html

² 교단별 대표적인 세습교회(아들 혹은 사위) 통계, 교회연합신문, 2012년 10월 18일,

<http://www.ecumenicalpress.co.kr/article.html?no=63100>

△기감: 광림감리교회(4만 5천명), 주안감리교회(6천명), 구로중앙교회(6천명), 만나교회(8천명), 경신교회(3천명), 매산교회(4천명), 기동교회(4천명), 금란교회(5만명), 인천송의교회(1만 5천명), 입마누엘교회(7천명)

△예장통합: 성민교회(2천명), 예수소망교회(3천명), 신성교회(3천명),

△예장합동: 수원제일교회(5천명), 대구서문교회(4천명), 충현교회(8천명), 대성교회(3천명),

성내제일교회(5천명), 예순교회(1천명), 동현교회(3천명), 삼락교회(5천명), 왕성교회(1만명),

△예장합신: 송월교회(6천명) △예장고려: 경향교회(1만 5천명)

△기침: 서울중앙교회(6천명), 성림교회(5천명)

△예성: 안양교회(4천명), 제일교회(3천명), 시흥중앙교회(3천명)

△총공회: 잠실동교회(2천명) △오순절: 벨엘교회(4천명) △합동개혁: 일심교회(1천명) △개혁:

중앙중앙교회(1천명) 등이다. 이 통계는 세습한 모든 교회를 망라한 것은 아니며, 그 외에도 수백여 교회들이 존재한다.

³ 한국기독교총연합회, <http://www.ckk.or.kr/>

이수광

김동호 목사(높은뜻숭의교회)는 이는 ‘영적 치매수준의 주장’이라며 자신의 SNS 를 통해 김홍도목사를 강도 높게 비난했고,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은 한기총의 주장에 대해 반대 성명을 걸고 기독교는 ‘혈연의 종교’가 아닌 ‘언약의 종교’이기에 교회세습은 반성서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2012 월 9 월 25 일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교회세습에 반대하여 임시 입법회의를 열고 ‘세습방지법’⁴을 통과시킴으로써 한국교계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교회세습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사안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것에 대한 신학적 검토를 함으로써, 현재 교회세습이 가지고 있는 비판적인 요소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 한국 교회에 건강한 교회상을 그려보고자 한다.

교회세습에 있어서 논란이 되는 쟁점

교회세습에 대한 신학적인 검토에 앞서서 먼저, 이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의 논리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논지를 명확하게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교회세습의 문제점을 신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교회세습을 찬성하는 입장⁵

첫째, 세습이라는 용어부터 부적절하다. 세습은 ‘한 집안의 재산이나 신분, 직업 따위를 자손 대대로 물려주고 물려받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교회의 후임 담임목사를 청빙하는데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교회의 후임 담임목사는 교회법으로 교회를 사적으로 소유하거나 활용할 수 없으며, 또 해서도 안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교회의 재산은 총회 유지재단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의 세습이 있을 수 없으며, 특히 엄격한 위계질서와 감독 정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감리교회와 같은 교파에는 정치권력(명예)의 세습도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교회승계’라는 표현도 적절하지 못하며, ‘후임 담임목사 청빙’이 가장 적절한 용어이다.

둘째, 교회세습 반대의 성서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교회 후임목사를 정하는 데 있어서 육체적 혈연이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역사에 어긋난다는 성서적 근거가 없다. 오히려 구약의 레위 지파처럼 대대로 여호와를 섬기는 직분이 있다. 따라서, 후임자 결정은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 속에서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것이 혈연관계일 수도, 가난한 자 일수도, 부자일 수도 있다. 이러한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를 인본주의적 제도로 막아서는 안된다. 특히 목회자 후임자 선정에 적법절차를 밟았다면,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역차별이다.

셋째, (가난한 교회의 교회세습은 되고, 중대형교회의 교회세습은 안된다는 주장에 대해) 혈연이 바탕이 된 교회세습 자체가 비성서적이라면 가난한 교회의 세습 자체도 비성서적인 행위이다. 그렇기에 중대형교회의 교회세습만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가난한 교회와 중대형교회이라는 부의 기준이라는 것도 모호하다.

넷째, 중대형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정과 명예가 세습된다는 이유로 교회세습을 문제 삼으려면, 비단 혈연관계뿐만 아니라 학연, 지연까지도 모두 결부시켜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⁴ 뉴스앤조이, 2012년 9월 25일,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2145>
세부적인 항목으로는 1)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연속해서 동일 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 2)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 세습 방지법은 찬반 투표한 결과, 390명 중 245명이 찬성하고 138명이 반대해 과반을 기록했다.

⁵ 주로 한기총의 성명서를 기반으로 정리하였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홈페이지 <http://www.cck.or.kr/>

한국 교회의 세습

중대형교회의 부와 명예는 그 누군가는 반드시 이어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후임 담임목사는 익명의 제 3자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다.

그 외에도 주재용 명예교수가 발제한 내용 가운데에는 “의사의 아들이 의사가 되고 장로의 아들이 장로가 되는 것도 아름다운 일인데, 십자가의 길인 목사의 길을 아버지로부터 대물림하는 것은 오히려 칭찬할 일이다.” “목회자가 큰 교회로 발전시킨 그 공로를 인정해야 한다” 등이 의견이 조사되어 있었고,⁶ 김홍도(금란교회)목사의 발언처럼 “사위나 자식이 교회를 물려받으면 교회의 분란이 적고 평안하다”라는 의견도 있다.⁷

교회세습을 반대하는 입장

첫째,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혈연의 종교가 아닌 언약의 종교이다.⁸ 목회자의 선택 기준으로 혈연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은 기독교를 세속의 종교로 빠뜨리는 행위이자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행위이다.

둘째, 중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가지는 제왕적 특권은 엄청나다. 주재용 교수에 따르면 “교회세습의 문제를 일으킨 교회들은 모두 소위 대형교회들이다. 그 교회 목회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봉건주의 사회에서의 지주 또는 제후들, 왕조시대의 왕과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교회의 삶의 문화는 권위주의적이며 교권주의적이어서 목회자의 카리스마는 거의 절대적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물질, 명예,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언약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정체성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성서적 진리를 위협한다.”⁹

셋째, 그러므로 목회자의 후임선정이 적법절차이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주장은 지나친 형식논리요 평면논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재용 명예교수는 이야기한다.¹⁰ 마치 유신정권이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한 것도 적법절차에 따른 것이기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과 동일하다.

넷째, 만약 목회자의 세습의 성서적 근거를 제사장직 계승에서 찾는다면, 이는 목회자의 예언자적 기능을 간과한 것이다. 또한 김동호 목사는 말하기를 현대의 목회자는 누구나 ‘소명’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전문직이기에 목사를 구약의 제사장으로 동일시해 세습을 합리화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¹¹

다섯째, 교회세습이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목회자 자신의 것이라는 착각에서 비롯된다. 실제로, 교회를 개척하여 중대형교회로 성장시킨 목회자에게는 교회에 대한 애착이 강하게 나타나며, 이는 은퇴한 뒤에도 교회 일에 빈번히 개입하여 원로목사와 담임목사 간의 갈등이 여러 교회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여섯째, 교회세습은 목회자의 평균수명의 연장과 노후대책으로 일어나는 기현상이다. 조성돈 교수(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에 따르면 목회자의 평균수명이 연장됨으로써, 사역의 기회를 더 갖고자 하는 열망이 세습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아들이 담임목사로 오게 될 경우, 자신이 교회의 일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불투명한

⁶ 주재용, <세습포럼> 한국 교회 세습, 그 비판과 극복의 길, 뉴스앤조이, 2013년 4월 14일,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4971>

⁷ 크리스천투데이, 2012년 9월 1일,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57910>

⁸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홈페이지

http://trusti.kr/2008/bbs/board.php?bo_table=2007_notice&wr_id=2773&page=2

⁹ 주재용,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4971>

¹⁰ 주재용,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4971>

¹¹ 김동호, 주간조선, 2012년 10월 8일,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226100009&ctcd=C04>

이수광

노후에 대해서도 아들이 담임목사로 오게 될 경우,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한몫 한다고 보았다.¹²

일곱 번째, 교회세습은 정당하고 성실하게 준비하고 있는 다른 목회자들에게 청빙의 공정한 기회를 박탈시킨다. 세습을 찬성하는 이들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도 청빙의 기회를 부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정자는 따로 있고 구인광고만 형식적으로 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위의 두 입장을 종합해 보면, 찬성하는 입장은 교회세습은 절차상 하등의 문제도 되지 않으며, 단지 혈연이라는 이유로 청빙 자격에서 제외되는 것은 역차별이다. 오히려 혈연관계가 청빙 후에 오는 교회 내의 분란을 잠재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하는 입장은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혈연종교가 아닌 언약의 종교이며, 교회세습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물질, 명예, 권력을 고스란히 자신 또는 자식에게 이전시키는 세속적인 행위라고 주장한다. 결국 두 입장은 교회세습이 “합법적 청빙”이냐 아니면 “특혜에 의한 세습”이냐라는 싸움이다.

두 입장 가운데 필자는 교회세습을 “특혜에 의한 세습”이라고 본다. 특히, 절차상 문제가 없기에 교회세습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주재용 교수가 이야기하듯 지나친 형식논리에 빠져 있는 것이요, 현재 한국 교회의 상황(context)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며, 신학적으로도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 상황(context)에서 후임목사 후보선출과 결정은 사실상 당회장인 담임목사와 소수 당회원인 장로들의 의견으로 진행되며, 성도들의 의견이나 투표는 실제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이 주장하는 교단 소속의 교회의 재산 역시 담임목사의 재량으로 얼마든지 비민주적이며 불투명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현재 한국에서 중대형교회의 담임목사가 누리고 있는 물질적, 명예적 특권은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민주적이며 불투명한 제왕적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중대형교회의 교회세습의 적법성만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교회세습이 신학적으로는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

교회세습 반대를 위한 신학적, 사회윤리적 근거

성서적 근거

보통 교회세습을 옹호하면서 쉽게 드는 성서적 근거 중의 하나가 바로 교회의 목회자는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직분과 같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세습 역시 성서적으로 자연스러운 현상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구약과 신약의 불연속성을 간과하고 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직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제사장이 레위 족속의 아론(출애굽기 40:13)이었음 알 수 있다. 이러한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론의 아들들에게 기름부음의 예식과 함께 세습되었다(출애굽기 40:15). 그 후로 이러한 세습은 특별히 몸이 불구가 된 경우가 제외하고는 반드시 대물림 되도록 명시화되었고,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는 구약시대의 제사장이라 함은 아론의 자손들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우리가 쉽게 착각하기 쉬운 레위 족속은 제사장이 아닌 여호와의 성막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민수기 3:1-51). 하지만 레위 족속 역시도 특별했던 점은 이스라엘의 12 족속 중에서

¹² 조성돈, *세습반대운동, 더 불을 지펴야 한다*, 뉴스앤조이, 2012년 10월 4일, <http://m.newsjoy.or.kr/articleView.html?idxno=192224&menu=>

한국 교회의 세습

구별되어 여호와를 섬기도록 구별받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레위 족속은 그 형제 중에서 분깃이 없으며 기업도 없고 오직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 되었다.

하지만 신약시대의 제사장의 제도는 이미 사라졌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으로 비견되는 초대교회의 사도직분은 역시 그들의 자식들에게 세습되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날의 목사의 직분 또한 특정한 가문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며, 세습으로 이루어지는 혈통적 개념도 아니다. 김영한 교수(숭실대 기독교학과)가 지적했듯이 오늘날의 목사는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어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소명직(召命職)이며 직업적 개념인 것이다.¹³ 따라서, 다른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도 얼마든지 목사가 될 수 있고, 그의 아들 역시 얼마든지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목사는 세습직이 아니다.

또한, 신약시대 목회자 혹은 성직자는 구약시대의 제사장에서 왔다는 성서적 근거는 오늘날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예언자적 기능을 간과하고 있다. 왜냐하면 성서적으로 볼 때, 예언자는 이스라엘 12 족속 중에서 어느 족속에서도 나올 수가 있었고, 소명받기 전의 직업도 매우 다양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예언자의 직분이 세습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보았을 때, 교회세습을 구약의 제사장 직분에서 찾으려는 움직임은 기독교의 전통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교의학적 근거

교의학적으로 볼 때도 교회 공동체는 성직자 중심의 공동체가 아닌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이며, 성도들간의 상호유기적인 관계를 중요시하는 공동체이다. 따라서, 혈연으로 이루어진 목회자 세습은 교의학적으로도 그 근거를 찾기가 힘들다. 먼저, 바울서신을 보게 되면, 교회는 ekklesia(에베소서 3:21)로 표기되어 있다. 주재용 교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edhah(지명하다)와 qahal(부르다)와 관련이 깊다고 설명하면서, 이 단어들은 모두 여호와라는 단어와 연관되어 있기에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명되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또는 공동체"라는 뜻을 어원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¹⁴ 따라서,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인 세습이란 방법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움직이는 것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교의학적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고린도전서 11:24 에서 "그리스도의 성례전적인 몸"이라고 한 것도 같은 기원을 가진다. 이는 곧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이 교회 공동체의 원동력이 되어야 함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더 나아가 교회는 계급적 구조도 아니고 성직자 중심의 교회도 아님을 분명히 나타낸다. 즉,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성도들간의 상호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라는 뜻이며, 이는 곧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성만찬적인 친교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세습은 그리스도의 몸이 가지는 권한이 될 수 없다. 교회는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며, 교회의 성직자나 목사도 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다.

교회사적 근거

¹³ 김영한, *교회세습 금지의 신학적 근거*, 크리스천투데이 2012년 10월 1일,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58450>

¹⁴ 주재용, <세습포럼> *한국 교회 세습, 그 비판과 극복의 길*, 뉴스앤조이, 2013년 4월 14일,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4971>

교회사적으로 보면, 중세의 로마 천주교에서도 교회세습이 나타났던 적이 있다. 그것은 바로 주교좌성당의 세습(cathedral transmission)¹⁵이다. 이는 자신의 자녀에게 공공연하게 자신의 성직을 물려주었던 전통으로 김영한 교수에 따르면, 이는 중세교회사에서 실패한 제도이었으며, 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성직자 독신주의와 성직매매라고 말한다.¹⁶ 주교좌성당 세습에 관한 중세교회사의 흐름은 다음의 김영한 교수의 글이 도움이 될 것이다.

...주교좌성당을 두고 이루어지는 세습으로 인해 중세교회는 성직매매와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했다. 급기야 클뤼니(Cluny)수도원의 일원으로 수도회 개혁운동을 주도한, 청렴한 수도승 힐데브란트(Hildebrand)가 교황으로 선출된다. 그는 그레고리 7세(Pop Gregorius VII, 1073-1085)로서 교회개혁 청사진을 담은 27개의 교황령을 반포했다. 그 주요 내용은 성직매매 금지, 속인의 주교 서임(敍任)권 금지, 사제 결혼 금지였다. 교황은 성당 세습을 끊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성직자 독신주의를 전격적으로 교회에 끌어들었다. 1074년 그레고리 7세의 성직자 독신주의 선언은 교회의 세습 행위를 막으려는 특단의 조치에서 비롯되었다. 그 때까지 교회는 수도사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교직자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두었고, 권력과 명예와 돈이 모이는 주교좌성당은 중세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주교좌성당 세습은 교회의 화합을 해치고, 사교회화(私敎會化)하여, 공교회성(公敎會性)을 약화시켰다. 11세기 그레고리 7세 개혁 이후, 성직자는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받게 되었으며 독신으로 생활해야 했다. 12세기 중엽(1110년)에는 종교법에서 성직자-평신도의 구분을 법으로 규정했다. 그에 따르면 성직자는 성무에 종사하여야 하고, 묵상과 기도에 전념해야 하기에 무소유자로서 세속과 거리를 두어야 했다. 이처럼 주교좌성당 세습의 차단을 위하여 성직자 결혼금지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¹⁷

¹⁵ 주교좌 성당은 교구의 책임자인 교구장 주교가 있는 교회로, 교구 전체의 중심이 되는 성당을 일컫으며 대성당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¹⁶ 김영한,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58450>

¹⁷ 김영한, *교회세습 금지의 신학적 근거*, 크리스천투데이 2012년 10월 1일,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58450>

한국 교회의 세습

사실, 주교좌성당의 세습으로 표출된 기독교의 위기는 4세기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된 이후부터 그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이 시기부터 교회는 외적으로는 교회정치뿐만 아니라 세속정치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려고 하였고, 내적으로는 로마제국의 정치제도를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와 ‘교황권적 군주제로서의 교회(the church as papal monarchy)’가 확립되었기 때문이다. 주재용 교수가 주장하였듯이 교황 레오 1세(440-461), 그레고리 1세(590-604), 레오 3세(795-816), 레오 9세(1049-1054), 인노첸트 3세(1198-1216), 보니페이스 8세(1294-1303) 등이 교황의 권위를 황제 및 일반 백성에게까지 미치려 했던 좋은 예가 될 것이다.¹⁸

또한, 중세의 사회, 정치적 조직체계였던 봉건제도(feudal system) 역시 교회세습에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봉건제도는 토지소유가 경제력과 군사력의 기반이 되는 시스템으로, 이 기간에 감독이나 수도원 원장들은 교회의 이름으로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결국 훗날 감독들 사이에 권력 투쟁과 교회세습의 원인이 되었으며, 교회를 부패시키는 촉진제가 되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현재 한국 교회에서 나타나는 중대형교회의 세습은 중세시대 교회가 보여주었던 교회타락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교황 혹은 감독의 권위를 이용하여 세속의 부와 명예를 대물림하려는 모습이 자식에게 담임목사의 자리를 그대로 물려주려는 목회자의 모습 속에 그대로 재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윤리적 근거

교회세습은 비단 교회 내에서의 비판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사회, 윤리적인 차원에서도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인류역사적으로 가장 후퇴했다고 여겨지는 사회제도가 바로 세습에 의한 신분제도이기 때문이다. 인도의 카스트제도를 비롯한 신라의 골품제도, 그리고 조선시대의 반상제도 등은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자식에게 그대로 물려주기 위해 만들어진 계급제도로써, 결국 그 사회의 후퇴와 부패를 가져다 주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세습제도는 평등사회라고 일컫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각 영역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 경제계를 살펴보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대기업을 중심으로 재벌세습이 일어나고 있고, 정치계를 보아도 유명정치인의 자녀들이 온갖 혜택과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2004년 MBC PD 수첩팀과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가 작성한 재벌 혼맥도를 살펴보면,¹⁹ 우리 사회에 세습적 신분구조가 사회경제적 상류층으로 갈수록 얼마나 극심해지는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불행한 것은 신라시대의 골품제나 봉건사회의 가문세습, 그리고 오늘날의 재벌가, 정치가들의 신분세습은 현재 한국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교회 세습과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점이다. 말로는 북한 3대 세습을 비판하고, 대기업을 비판하면서도 행동으로는 교회세습을 은밀히 하고 있으며, 그 방법으로는 대형교회 목사 자녀와 장로 자녀와의 혼인, 중간에 다른 목사를 잠시 담임목사로 세우는 변칙 세습 등과 같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은 대기업 총수와 유명 정치인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특히, 중대형 교회들은 담임 목사의 절대적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인사권, 재정권 등 모든 권한을 담임 목사에게 귀속시키고 있으며, 이런 구조를 바탕으로 후임 목사 청빙도 자신의 의견에 따라 진행시키고 있다. 이러한 교회들 중 상당수는 자신의 자녀 혹은 사위에게 교회의 대부분의 권한과 함께 담임목사직을 물려주고 있다. 그렇기에 교회세습은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를 넘어서

¹⁸ 주재용, <세습포럼> 한국 교회 세습, 그 비판과 극복의 길,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4971>

¹⁹ 참여사회연구소, <http://www.peoplepower21.org/Research/603490>

이수광

사회윤리적인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그 동안은 교회가 성서적 기준으로 사회윤리적인 이슈를 거론하고 판단하는 입장이었지만, 부끄럽게도 이제는 사회윤리적인 기준에서 교회의 문제를 판단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 이는 성서적 기준이 무너진 결과요, 기독교윤리가 무너진 결과이다.

나가는 말

교회본질 회복을 위한 목회자의 노력 필요

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이다. 그리고 이 교회를 목양하는 목회자는 교회사 전통에서 그리스도의 직을 위임 받은 사도들의 임무를 계승하는 사람이다. 주재용교수의 지적처럼 이러한 사도전승에는 사도적 권위 및 성직의 계속성뿐만 아니라 정통신앙과 진정한 교리, 친교 그리고 봉사의 전승까지 포함되어 있다. 개인적으로 '바른 행동'(ortho-praxis)이 없는 '정통교리'(orthodoxy)의 전승은 바른 사도전승이 될 수가 없으며, 거기에는 사도적 권위도 있을 수 없다는 주재용 교수의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이다.²⁰ 사도적 권위는 부와 명예에서 오는 소유지향적 권위가 아니라 철저한 헌신과 사랑에서 비롯된 권위임을 우리는 초대교회 사도들에게서 배워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날 한국 교회에 나타나는 교회세습은 결코 사도적 권위에서 오는 전통이 아니라 과거 중세교회에서 보여주었던 소유지향적 권위세습의 답습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것은 위에서 성서적으로나 교의적으로나 교회사적으로나 사회윤리적으로나 그 어떤 것도 교회세습을 옹호하는 영역이 없음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

따라서 한국 교회가 사도적 권위가 회복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목회자들은 첫째,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되새김으로써 사도적 권위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건강한 종말사상을 항상 견지함으로써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음을 늘 기억해야 한다. 셋째, 선교적 비전을 자각함으로써, 교회세습의 전도와 선교의 문을 가로막는 일임을 깨달아야 한다. 넷째, 그 누구보다 높은 윤리의식을 가짐으로써 세상적 기준으로나 성서적 기준으로나 한 영혼이라도 실족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물질과 명예의 유혹에서 자신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다.

교인들의 인식변환의 필요

더불어 교인들의 교회에 대한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물론 교인들은 구조적으로 목회자의 헌신적인 영적 돌봄과 사랑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수동의 관계에 있을 수 밖에 없지만, 교회의 주인은 담임목사가 아닌 그리스도란 점과 목회자 역시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이라는 점을 항상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각 교회에서 세습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오히려 목회자를 사랑하는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

제도적 견제 장치의 필요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세습에 대한 제도적 견제장치가 필요한 것은 아무리 고결한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명예와 부의 유혹에 쓰러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교인들이 아무리 힘을 써보았자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생각해볼 때, 어떤 목회자도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줄 생각을 하며 개척하는 목회자는 없을 것이다.

²⁰ 주재용, <세습포럼> 한국 교회 세습, 그 비판과 극복의 길,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4971>

한국 교회의 세습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는 인간의 나약함을 제어할 수 있는 필수불가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중세교회의 성직자 독신주의는 교회세습에 필수불가결했던 제도였다. 오늘날에도 교회세습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통과된 감리교 세습금지법은 한국 개신교사에 놀라운 업적 중에 하나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 특히, 한국에서 예수교장로회 통합과 합동에 이어 세 번째로 규모가 큰 감리교단에서 세습금지법이 통과된 점은 한국 교회의 자정능력을 있음을 보여주는 고무적인 일이다.

반면, 아쉬운 점은 이러한 감리교회의 긍정적인 움직임이 아직 타교단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의 장자교단이라고 일컬어지는 장로교단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점은 실망스러운 점이다. 오히려, 이러한 세습금지법이 발의되기 전에 서둘러 세습을 준비한다는 교회들이 있다고 하니 아쉬운 마음뿐이다.

교단, 신학계에 퍼져있는 학연, 지연주의에 대한 경종

좀 더 범위를 넓혀 교회세습의 이슈는 교단 및 신학계에 퍼져 있는 학연, 지연주의에 대한 경종을 울린다. 실제로 한 교단의 총회장 선거의 정치구조를 살펴보면, 그 안에 지역별 세력 갈등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안에 물질, 권력, 명예에 대한 집착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교단 신학교의 교수진들 사이에서 어느 대학출신이라는 학연이 집요하게 뿌리내리고 있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학연, 지연주의는 혈연으로 이루어진 세습과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장애물들 가운데 하나이다. 필자의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교회 세습과 더불어 한국 교단 내에 그리고 교단 신학계 안에 존재하는 학연, 지연주의에 대한 구습이 제도적 견제 장치와 함께 좀 더 민주적이고 평등한 모습으로 변해가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자료

칼럼, 사설 및 인터뷰

주재용, <세습포럼> 한국 교회 세습, 그 비판과 극복의 길, 뉴스앤조이, 2012년 4월 14일,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4971>

김동호, 주간조선, 2012년 10월 8일,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226100009&ctcd=C04>

조성돈, 세습반대운동, 더 불을 지펴야 한다, 뉴스앤조이, 2012년 10월 4일,

<http://m.newsjoy.or.kr/articleView.html?idxno=192224&menu=>

김영한, 교회세습 금지의 신학적 근거, 크리스천투데이 2012년 10월 1일,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58450>

언론사

조선일보, 2012년 6월 14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6/14/2012061400194.html

교회연합신문, 2012년 10월 18일,

<http://www.ecumenicalpress.co.kr/article.html?no=63100>

뉴스앤조이, 2012년 9월 25일,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2145>

크리스천투데이, 2012년 9월 1일,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57910>

기독교관련 단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http://www.cck.or.kr>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홈페이지

http://trusti.kr/2008/bbs/board.php?bo_table=2007_notice&wr_id=2773&page=2

돈과 한국 교회

장찬영

<p style="text-align: center;">檢, ‘배임 혐의’ 조용기 목사 소환조사</p>	<p style="text-align: center;">검찰, 최대원 SK 그룹 회장 징역 4년 구형</p>
<p>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이현상)는 교회자금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고발된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76)를 14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조 목사를 상대로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의 주식투자 자금을 교회 자금으로 지원해줬다’는 고발 내용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목사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p> <p>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 30명은 지난해 9월 “조 목사가 당회장으로 있을 당시 교회 돈을 아들 조희준씨의 주식투자에 200억원 넘게 사용하도록 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조 목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p> <p>검찰은 앞서 고발에 참여한 장로들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고발한 장로는 현재까지 47명인 것으로 전해졌다.¹</p>	<p>대법원은 300억원 이상 횡령·배임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으로 기본형은 징역 5~8년, 감경 시 징역 4~7년을 권고하고 있다. 최 회장은 2008년 SK 텔레콤, SK C&C 등 그룹 계열사 18곳에서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 원 중 497억 원을 동생 최 부회장과 이 회사 김준홍 대표와 공모해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됐다. 또 2005년부터 5년간 그룹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을 과다 지급해 돌려받는 방식으로 139억원대 비자금 조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p> <p>최 부회장도 비상장사 아이에프글로벌(IFG) 주식 6500여주를 액면가보다 부풀려 주당 350만원에 베넥스에 매각하는 등 최 회장과 동일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²</p>
<p style="text-align: center;">PD 수첩 ‘사랑의교회’ 특혜논란 누구를 위한 건축?</p>	<p style="text-align: center;">빛더미 공공기관 ‘호화청사’ 논란</p>
<p>지난 2009년 교회 측은 현재 예배당 건물로는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교인수를 감당하기 힘들어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한다고 밝혔다. 그해 6월, ‘사랑의 교회’는 대림산업으로부터 1,100여억 원에 부지를 매입하고 2010년 서초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2010년 6월 20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교계 내외부에서 건축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사랑의 교회’에 20년 넘게 다녔던 교인 A 씨는 ‘사랑의 교회’가 그와 같은 대형신축 교회를 지어야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다.</p> <p>현재는 ‘사랑의 교회’를 떠났다는 B 씨는 “건축현금 주일 이후에 모인 현금 발표하며 자축하는 것이 예전 ‘사랑의 교회’의 정신이 아닌 것 같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교계 내부에서의 성토도 있지만 외부의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교회 건물이 2100억 원대라는 초대형 규모이기 때문이다.³</p>	<p>연면적 7만 5천 제곱미터 부지에 3천억 원 이상을 쏟아부은 성남시청. 호화청사 논란을 빚으며 당시 국무총리실까지 진상과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p> <p>이번에는 지방으로 이사가는 국토해양부 소속 기관들이 ‘호화청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빛이 24조원이 넘는 한국도로공사. 건축비 2053억원을 들여 기존 청사보다 4.5배나 큰 청사를 경북 김천에 짓고 있습니다.</p> <p>진주로 이사가는 LH는 분당 사옥의 두배 크기의 사옥을 짓고 있습니다. 업무시설뿐 아니라 인조잔디 축구장, 농구장도 들어섭니다.⁴</p>

¹ 檢, ‘배임 혐의’ 조용기 목사 소환조사, 헤럴드 경제 인터넷판 2012-11-15 기사, 이하 URL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21115000032&md=20121118003414_AN

² 검찰, 최대원 SK 그룹 회장 징역 4년 구형, 이투데이 뉴스 2012-11-22 기사, 이하 URL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657677>

³ PD 수첩 ‘사랑의교회’ 특혜논란 누구를 위한 건축?, ARTS 뉴스 인터넷 신문 2011-04-12 기사, 이하 URL <http://artsnews.mk.co.kr/news/142545>

⁴ 빛더미 공공기관 ‘호화청사’ 논란, OBS NEWS 경인 TV 뉴스 2012-10-09 기사, 이하 URL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1155>

돈과 한국 교회

위의 기사들은 현재 한국 교회 안에 돈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와 교회 밖에서 돈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비교한 것이다. 교회의 목적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목적과는 분명히 다르다. 하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돈에 관련된 문제들은 매우 유사함을 볼 수 있다. 단체의 대표가 개인의 돈이 아닌 공금을 마음대로 유용하는 것, 초대형 건물을 짓기위해 단체의 현 재정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대출과 또 그와 관련되어 업계간에 로비 및 특혜 의혹 등이 바로 문제인 것이다. 사회에서도 비난받고 질타받는 돈에 관련된 문제가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교회 내에서 그 문제가 되는 돈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 의견이 둘로 나뉘어 진다. 첫째, 올바른 신앙생활함에 있어 돈은 결코 같이 갈 수 없는 존재이다라고 전제하고 돈 자체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의견과, 둘째 돈 자체는 선하나 악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좋게도 쓰여지고 나쁘게도 쓰여질 수 있는 돈 자체의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보는 의견이다. 이에 관하여 CBS 에서 특집으로 다루어진 돈과 한국 교회에 관한 양쪽 의견을 살펴보고 실제로 한국 교회내에 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돈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다. 신약성경에서 젊은 부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와 영생을 얻기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했고, 청년은 어려서부터 철저히 계명을 지켰다고 대답한다. 이에 예수님은 청년에게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고 자신을 따르라고 이야기한다. 이에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갔고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 하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보다 어렵다고 말하며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이 성경말씀을 가지고 돈을 섬기는 것은 즉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우상과도 같다고 이야기한다. 물론 돈을 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청년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가 도덕적으로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결론은 성경에서 제시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다. 구약의 율법을 누구보다 철저히 지켰고 더 나아가 영생을 얻기위한 노력으로 예수님에게 배움을 얻고자 한 청년이 단순하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고 그 청년이 올바른 사람인지 아닌지를 또한 그가 찾아온 동기가 선한지 악한지는 누구도 쉽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재물이 많고 적음으로만 적용한다면 구약에 읍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겠는가? 그는 이미 물질이 많았지만 하나님에게 의로운자라고 일컬음을 받았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엄청난 돈을 들여 지은 솔로몬은 어떠한가? 물론 솔로몬의 인생의 말로는 좋지 못하지만 그가 성전을 지을 때 그 동기는 분명히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었다. 바로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가치보다 하나님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어야 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청년은 하나님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기에는 물질이 많아 갈등했고 결국 쉽게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돌아간 것이었다. 교회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단순하게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 물론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초자연적인 현상도 있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물론 교회 공동체가 아닌 믿지 않는 이들이 교회안에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을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교회공동체 안에 있어야 한다. 물질적으로 조금 더 부유해서 가난한 이들을 돕고, 몸이 조금 더 건강해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사회적으로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있어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가지 좋은 영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교회가 유기적으로 살아있고 잘 돌아 갈 수 있는 것이다. 돈을 따라가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어찌보면 성도 개개인의 몫인 것이다.

장찬영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의견 중에 또 다른 하나가 청빈한 삶과 금욕주의를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 의견에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그것은 바로 청빈한 삶의 기준에 대한 문제이다. 세상에서 주는 가치는 절대적인 가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흔히 사람들이 화폐는 상대적 가치지만 금은 절대적 가치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금은 사람이 생존하는데 절대적 가치를 가질 수 없다. 전쟁이 나서 먹을 것이 없는데 나에게 유일하게 생존을 위한 먹을 것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누군가가 와서 금을 1톤을 준다면 당신은 과연 당신의 먹을 것을 금과 바꿀 수 있는가? 바로 청빈이라고 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더 철저한 청빈에 입장에서 본다면 사치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청빈의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는 중세의 금욕주의의 산실인 수도원은 어떠한가? 수도원 운동을 통해 금욕주의는 활기를 띠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수도원의 금욕주의는 모순을 안고 있었다. 즉 개인의 재산소유는 엄격하게 금지된 반면에 수도원 자체의 재산은 허락되었다. 결국 수도원이 부를 축적하게 되자 수도원 본래의 정신과 기강은 문란하게 되었고, 물질을 향한 개개인의 탐욕은 수도원이라는 공유적 관계 속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표출되었던 것이다. 물질이 가진 힘을 제어하기 위해 수도원이라는 통제수단으로 인간을 제한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결국 인간에 의한 수도원 체제 전체가 돈의 힘에 굴복되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돈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 지금의 한국 사회가 이마만큼 성장하게 된 해답이 있다라는 것이다. 바로 교회안에서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의 고취, 즉 건강하게 땀흘려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개념속에서 가르쳤고 이것이 현실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바로 지금 한국의 부유하게 살게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그들은 달란트의 비유를 예를 들며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가 받은 달란트에 상관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돈을 잘 관리하여 이익을 남겼을 때 이익의 크기에 상관없이 주인에게 칭찬을 받는 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이익을 남겨 주인을 기쁘게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종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종들에게 주어진 것과 그들이 이익을 남긴 달란트라는 것을 무조건 돈이라는 개념에서 바라보면 안된 다는 것이다. 주인이 준 것은 분명히 달란트이지만 그것은 단지 돈의 개념보다는 달란트라는 것이 가져다 주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그로 인해 얻게 된 이익을 통해서 주인을 기쁘게 하는데 초점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것은 물질도 있지만 좀 더 확대해보면 그것은 건강, 재능, 자녀 등 우리가 감사해야 할 모든 것들로 의미를 넓힐 수가 있다. 다시말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개념에서 우리는 달란트를 바라보아야 한다.

필자는 또 다른 관점에서 돈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놓친 것은 바로 컨텍스트만을 가지고 복음이 주는 복의 개념을 잘못 해석했다라는 것이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가난한 시절에 복음이 주는 역할을 크게 두가지로 본다면 위에서 언급한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고취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축복이라는 개념이다. 한국의 어려운 시절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최대의 관심사는 가난에서 탈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가난에서 탈출하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돈이다. 돈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고 바로 이러한 돈만 있으면 가난에서 탈출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첫번째의 경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을 벌지 못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렇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것은 가혹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능력밖의 일이지만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라도 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게 주신 축복인 것이었다.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개념이 돈으로만 해석한 것이 현재의 기복신앙에 원인이 된 것이다. 당연히 컨텍스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최대의

돈과 한국 교회

관심사고 그들의 현실에 문제가 바로 돈이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었다. 하지만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는 복의 개념은 다르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가장 답답해 하셨던 부분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이 따랐던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없이 현상에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이다.

현실의 문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상황에서만 탈출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든 아니든 나에게 다가온 대상이 누구인지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 대상이신 예수님이 진정으로 전하고자 하는 복음에는 더더욱 잘못 이해했거나 아예 관심조차 없었던 것이다.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팔복의 개념을 살펴봐도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결코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마태복음 6 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물질보다 중요한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병든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한 일들은 본질을 전하기 위한 도구이고 현상이었지 본질 자체가 아닌 것이었다. 위에서 돈에 대한 두가지 의견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모두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러한 돈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가지 시도와 노력들을 하고있다. 그 방법과 예로는 아래를 들 수 있다.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100주년기념교회 서울 마포구 합정동'

100주년기념교회 에서는 교회홈페이지에 매월 결산보고서를 통해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⁵ 또한 공개의 이유는 아래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뤄지는 데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과 교인들에게 보고드린다는 마음'이다.
장점은 담임목회자 또는 재정담당자의 독단적 자금집행이 원천 차단되고 교인들의 현금 사용에 대한 이해 및 신뢰도를 높여 소모적 논쟁을 근절함에 있다. 반면 단점은 세부 정보까지 제공하다 보니 개인정보 보호에 한계가 있고, 현금 사용내역에 지나친 관심도 유발되고 있는 점이 꼽힌다. 재정보고서 작성 원칙은 수입의 경우 현금 무기명주의, 지출의 경우 완전 공개주의다. 가능한 교인들과는 금전적 상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거래 상대방이 공정한 가격임을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 자금 운용원칙은 수익성보다 안전성이 우선이며, 정기예금 외의 수단은 배제하고 있다.⁶

더이상 교회소유의 건물에 집착하지 않는 것: '너머서 교회'

너머서 교회는 교회 설립당시 부터 건물을 소유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교회 정관에 넣었다.⁷ 물론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지만 불편함을 감수하고 교회의 축적된 재물을 교회 덩치 키우기에

⁵ 홈페이지 메인화면 카테고리 중 '안내 및 공지' 중 결산보고서, 이하 URL <http://100church.org/>

⁶ "교회 재정의 정석, 현금은 '무기명' 지출은 '완전 공개'" 크리스천 투데이 2011-11-10 기사, 이하 URL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51399>

⁷ 너머서교회 홈페이지 교회소개 교회 정관 중, 이하 URL 너머서 교회 홈페이지 <http://www.beyondchurch.or.kr/>

사용하기 보다는 사회에 환원하고 봉사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다. 이하는 너머서 교회의 담임목사의 인터뷰 내용이다.⁸

예배 장소를 구하는 과정에서 교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목회자들의 스스로의 윤리의식 고취: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또한 목회자들사이에서도 자발적인 세금 납부, 세습을 근절하는 내용으로 결의문을 발표하는 것으로 돈과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려는 노력도 보이고 있다.⁹ 이하는 기사 내용 중 일부이다.

교회에서 직책이나 지위를 얻으려 선거운동을 하거나 돈을 쓰지 않겠습니다.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안팎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세상 권력을 쟁취하려 정당을 만들거나 특정 정당에 가입하지 않겠습니다. 시민으로서 납세 등 공적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자녀나 친족에게 담임목사 자리를 대물림하지 않으며, 교회 세습 근절에 앞장서겠습니다....

위의 세가지 모두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윤리적인 차원이나 도덕적인 차원에서 돌이켜보는 많은 시도들이 있다. 이 이외에도 목회자가 노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권력에 세습과 돈에 집착한다라는 이유로 목회자의 노후를 보장하는 것도 교회 내에서 생기는 돈문제에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교회안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방법에 대한 너무나도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이고, 각자 자신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것이 심해질 경우 다른 의견들을 관철시키기 위해 폭력이 난무하고 교회가 분열되는 등 교회 밖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한심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연 그렇다면 무엇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방법은 모든 교회가 처한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정확한 해답을 줄 수 없다. 하지만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그 해답은 각자의 상황에 맞게 달라질 것이다. 기독교인들의 정체성과 복음의 본질에 대한 바른 이해는 다양한 각 개인과 교회가 처한 상황에서 무엇이 가장 올바르고 합리적인것인가에 대한 올바른 사고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앞서 말한 교회내에 돈에 관해 긍정적 견해와 부정적 견해는 컨텍스트에 따른 성경 해석의 차이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 돈에 대한 긍정과 부정에 대한 의견에 차이는 성경을 목회자가 자신의 목회상황에 맞게 어떻게 해석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상황화 시켜야지 반대로 상황을 보고 그것을 역으로 본질을 무리하게 해석하려는 것이 잘못된 해석을 낳게 된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의 상황과 여건만을 고려해서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는 그들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현상을 본질인 것처럼 이용해 우선은 믿게하고 보자 라는 전도의 접근 방법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다. 물론 신앙을 갖게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좋은 방법이고 이후에

⁸ 무리한 교회건축, 그 대안은? 크리스찬 타임즈 2012-06-20 기사, 이하 URL http://www.kchristian.com/?mid=krnocutnews&document_srl=9831

⁹ "납세 철저, 세습 근절" 목회자 윤리선언 조선일보 인터넷 판 2012-11-22 이하 UR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1/22/2012112202855.html

돈과 한국 교회

양육이나 교육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을 다시 전할 수는 있지만 처음에 전달 받은 복음의 이해를 바꾸기는 실제로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기성교회의 잘못된 기복주의의 신앙이 변하지 않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하기 까지는 어렵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하는 자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전할 때는 올바른 복음의 이해를 가지고 전하는 것이 먼저인 것이다. 물론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만 기존의 믿는 이들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믿지 않는 사람이건 믿는 사람이건 교회안에서의 돈에 관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는 것은 당연히 올바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전할 때 바로 전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위에서 이야기했듯 올바르게 말씀을 전하고, 믿는 사람들을 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목회자 후보생들을 제도적 신학교에서 입학시 철저하게 선별해야하며 졸업 후에도 실제 목회현장과 연계해서 건강한 목회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재확인과 지속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목회자를 양성해내는 신학교 내에서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년 입학 시즌마다 학교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단순하게 정원 채우기에 급급하여 무분별하게 학생들을 모집하는 신학교들의 자성이 필요하며 그럴 수 밖에 없는 재정적 어려움을 가진 신학교에 대해서는 기존의 교회들과 교단차원에서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등 올바른 목회자 양성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신학교가 되도록 투자도 필요할 것이다. 올바르고 건강한 목회자, 바로 교회의 리더가 올바로 서게되면 성도들이 올바르게 설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신학교가 된다면 돈과 한국 교회와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가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돈과 한국 교회 CBS 특집 이하 URL

http://www.youtube.com/watch?v=_jqyKHit9sI&feature=youtube_gdata_player

헤럴드 경제 인터넷판 2012-11-15 기사, 이하 URL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21115000032&md=20121118003414_AN

이투데이 뉴스 2012-11-22 기사, 이하 URL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657677>

ARTS 뉴스 인터넷 신문 2011-04-12 기사, 이하 URL

<http://artsnews.mk.co.kr/news/142545>

OBS NEWS 경인 TV 뉴스 2012-10-09 기사, 이하 URL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1155>

100주년기념교회 홈페이지, 이하 URL <http://100church.org/>

크리스천 투데이 2011-11-10 기사, 이하 URL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51399>

너머서교회 홈페이지, 이하 URL <http://www.beyondchurch.or.kr/>

크리스찬 타임즈 2012-06-20 기사, 이하 URL

http://www.kchristian.com/?mid=krnocutnews&document_srl=9831

조선일보 인터넷 판 2012-11-22 기사, 이하 UR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1/22/2012112202855.html

미주 한인들의 돈 문제

조무제

들어가는 말

‘한인들의 돈문제’라는 주제는 ‘돈’에 관한 일반적인 ‘문제’와, ‘한인들’이라는 상황적(contextual) 맥락으로 제한된다. 본 글은 특히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 즉 ‘코리안 아메리칸들의 돈 문제’에 대해 알아보는 것으로 국한하고자 한다. 우선 미국이라는 공간적 특수성과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는 한인들의 사회학적인 특수성, 2008년 이래 극심한 경기 침체를 맞고 있는 시간적 특수성을 교집합으로 주제에 대해 접근하고자 한다. 따라서, ‘한인들의 돈문제’는 이민자로서의 한인의 사회학적인 위치와 그 위치의 변화, 한인 이민자에게 돈이 차지하는 비중과 돈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들이 이 글에서 다뤄지게 될 예정이다.

우선 불경기가 심화되고 있는 2008년도 이후 미국 한인사회에서 돈문제로 인해 가족간 총기 살해사건과 자살사건 등이 잇따르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미주 한인들에게 돈은 무엇이며 어떻게 이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 돈이 한인 교회에는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 교회의 역할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미주 한인사회 두 개의 신: ‘돈’과 ‘교회’

경제능력 상실=존재이유 상실: 사업 실패로 총격 자살 급증

200만명에 달한다는 미주 한인사회는 그간 총기 사고가 거의 없는 커뮤니티로 알려졌으나, 2008년 경기 침체 이후 ‘돈’ 때문에 살해/자살형 대형 총기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2008년 3월 LA에서 한국의 유명 정치인 이민우 전 신민당 총재 아들 가족이 사업 곤란 때문에 총기로 가족을 죽이고 자살하는 사고를 시작으로 이곳 애틀랜타에서만 가족간의 돈문제로 인해 발생한 수정사우나 총격사건을 비롯해 3~4건의 총기 사건이 발생했다.¹

경기가 계속 장기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주 한인사회에서 총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주 한인들이 재정적 난관에 닥쳤을 때 생명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새로운 현상의 배후에는 이민자로서 미주 한인들의 돈에 대한 지배적인 강박관념이 도사리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미주 한인들 “돈 벌기에 성공한 커뮤니티”

추정인구 200만명의 미주 한인사회는 한인 교회가 5천개가 넘는다. 대부분 이민 1세대들이 세운 교회이다. 중국인들은 외국에 나가서 중국 식당을 세우고, 일본인들은 공장을 세우고, 한국인들은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있다. 미주 한인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¹ 노컷 뉴스, 2008년 1월 13일자.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72089>
애틀랜타 수정사우나 총격사건은 미주 한국일보 2012년 2월 12일자 참조.
<http://www.koreatimes.com/article/713438>

미주 한인들의 돈문제

있고, 교회 생활에 열성적인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미주 한인들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 못지 않게 또 다른 신을 갖고 있다. 바로 돈이다.

‘목회와 신학’ 편집장 최원준씨는 ‘돈의 인문학’(김찬호 저서)이라는 책을 소개하는 글에서 돈이 상황에 따라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² 예수가 “너희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 6:24)고 했지만, 미주 한인들의 실상은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급성장중인 자본주의 사회인 한국을 배경으로 최원준씨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돈에 대해 갖는 일반론적인 모습을 말하면서 위의 예수의 말씀에 대해 김찬호씨의 저서를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³

우리가 재물의 노예가 되고, 재물이 우리의 신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돈은 신과 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는가? 돈을 넉넉히 소유하고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다. 돈은 가장 확실한 의지처다. 학력, 권력, 연줄, 외모도 우리에게 힘을 부여하고 의지처가 돼 주지만 돈만 한 것이 없다. 지식은 나이가 들수록 효능이 줄어들고, 업그레이드하기가 쉽지 않다. 기억력도 쇠퇴한다. 사회적 지위나 권력은 대단한 힘이지만 영원하지 않다. 언젠가는 빼앗긴다. 연줄 역시 든든한 밑천이지만 언젠가 끊어질 수 있다. 외모 역시 생물학적 노화를 피할 수 없다. 이에 비해 돈은 절대적인 의지처가 될 수 있다.⁴

미주 한인들이 살고 있는 미국은 자본주의가 극단적으로 발달된 사실상 ‘정글 자본주의 사회’다. 특히 한인 1 세대는 마이노리티로서 언어적인 한계에 부딪치면서 생존을 위해 ‘돈’에 매달리는 삶을 살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한국에서 형성한 학력, 권력, 연줄, 미모는 미국이라는 새로운 땅에서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소수계 이민자로서의 상황적인 특수성으로 인해 미주 한인 1 세대는 경제적인 생존과 자본축적에 ‘올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유의 한국식인 ‘빨리 빨리’도 미주 한인 이민자들의 정착 방식에 적용돼, 한인들은 영어 습득과 현지화 재교육 과정을 거쳐 장기간 정착 전략보다는 곧바로 돈을 가장 잘 벌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한인 사업체에서 노하우를 얻어 사업을 하는 것을 선호했다. 이에 따라 한인들이 종사하는 업종도 언어장벽에도 불구하고 돈을 가장 효율적으로 벌 수 있고 특히 현찰을 쌓을 수 있는 자영업 업종들에 집중된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인구 규모에 비해 유달리 많은 5 천개에 달하는 이민 1 세대들의 한인 교회 난립과 함께, 한인 사회는 짧은 이민사에도 불구하고 한때 경제적으로 성공한 이민사회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⁵ 하와이 사탕수수밭 이민사로 보면 한인 이민사는 100 년이 넘지만, 실제로는 가족 이민 초창이 가능해진 1973 년도 케네디 신 이민법 발효이후 본격화된 한인 커뮤니티 성장사를 볼 때,

² 최원준, “돈에 대한 인문학적, 사회학적 통찰,” 목회와 신학, 11 월호, (서울:두란노 출판사, 2011), 107-111.

³ 최원준, 전게서, p.108.

⁴ 김찬호, 돈의 인문학,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11), 33.

⁵ 미주한국일보 2012 년 3 월 21 일자 주필 여주영씨 칼럼 참조. <http://ny.koreatimes.com/article/718814>

조무제

40년 남짓한 짧은 이민사라고 볼 수 있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인들이 일군 경제적인 성공은 ‘돈’을 버는데 있어 한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올인’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⁶

치안이 위험한 흑인 슬럼가에 들어가 악착같이 장사를 하다가 총에 맞아 생을 마감하는 한인 이민자들의 뉴스는 최근까지만 해도 단골 뉴스였다. 로드니 킹 사태로 촉발된 LA 폭동의 최대 피해자가 한인 상권임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2008년 대불황이 시작되기 전인 2005년도에 미주 한인들의 1인당 연간 소득(1999년도 기준)이 당시 한국인들보다 3.3배 많으며 경제 규모가 한국의 7.51%라는 흥미로운 논문이 발표된 적이 있다.⁷ 전남대 김태기 교수(경제학)가 2005년도 ‘지역 개발 연구’에 게재한 논문에서 2000년도 미국 인구조사자료를 토대로 국민총소득(GNI) 추정치를 분석해 발표해 1999년도 기준으로 미주 한인 1인당 GNI가 2만 8천 95달러로 당시 한국의 한국인 대비 3.3배라고 분석한 바 있다. 미주 한인사회 총 GNI 경제 규모는 298억 5천 4백만 달러로 분석됐다. 이 보고서에서 특이한 것은 미주 한인들이 교육 수준은 높으나 직업의 지위 수준은 낮은 것으로 분석한 점이다. 이민자로서 교육 수준에 상관없이 돈을 벌기위해 닥치는대로 일하는 미주 한인들의 생활상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인 이민자 패턴 변화와 함께 10년이 지난 뒤에 미주 한인 경제 규모는 2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자본 한인 이민자들이 주류를 이뤘던 초기와 달리, 자녀 교육때문에 미국 이민을 선택하는 일정 정도의 중소규모 사업 밀천(자본)을 가진 이민자들이 21세기 들어서 물밀듯이 미국으로 들어왔다. 한국의 국제 이주개발공사에 따르면 21세기 들어 미국으로 이민오는 한국인들의 80%가 ‘자녀 교육’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⁸ 21세기 미국에 이민온 한인들의 특징으로 특이한 것은 한국과의 생활 단절을 뜻하는 ‘미국 이민’이라는 표현보다는 한국과의 교류를 바탕으로 미국에서 또 다른 기회를 얻고자 하는 ‘미국 영주권 취득’이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리는 미국이민 문화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50만 달러(6억원) 이상 있어야 가능한 투자 이민이나 최소 20만 달러(2억여원)의 현찰이 필요한 소액 투자 단기 체류 이민 등이 대폭 증가한 것도 특징이다.⁹ ‘기러기 가족’이라는 신종 단어를 탄생시키면서, 한국에서 남편이 돈을 보내주고 아내는 미국에서 돈벌이에서 해방되어 자녀 교육에 전념하는 경우도 21세기 미주 한인사회의 새로운 현상이기도 하다.

이런 저런 이유로 미주 한인사회는 2008년 불경기가 오기 전까지 추산 200만명을 돌파하는 외형적 성장을 했다. 경제 규모도 지난 10년간 외형상 2배 이상 성장했다. 2012년도 6월 백악관에서 미주 한인 지도자들을 사상 처음 초청해 국정브리핑을 가지면서, 미주 한인사회 경제 규모가 연간 650억 달러 규모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GDP에서 세계에서 국가 순위 65위로 쿠바나 에콰도르, 도미니카 공화국과 맞먹는 규모다. 한인 스포츠비즈니스 평균 수익은

⁶ LA 이민신학연구소 소장 오상철 목사는 그의 저서 “이민신학”에서 한인 이민자들이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 일한 결과라며 이민자들의 성공 모델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환영받지 못하는 민족으로 분류돼 ‘사회적 실패자’ 이민자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오상철, “이민신학” (서울:쿠파란 출판사, 2008), 56-74.

⁷ 김태기 교수의 발표 논문은 조선일보, 2005년 9월 19일자 참조.

<http://www.chosun.com/economy/news/200509/200509190289.html>

⁸ 코리아 스피릿, 2012년 9월 21일자 보도.

<http://www.ikoreanspirit.com/news/articleView.html?idxno=35175>

⁹ 미주 중앙일보 2012년 5월 30일자 보도에 따르면, 소액투자 이민 신청자가 2012년 상반기에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이민 패턴이 소액 투자이민 쪽으로 쏠리고 있다.

http://article.joinsmsn.com/brandnews/article/article.asp?total_id=8326877&ctg=2300

미주 한인들의 돈문제

연간 40 만 달러로 미국 스몰 비즈니스 연간 평균 수익 15 만 달러를 훨씬 상회한다고 연방 상무부가 추정 자료를 밝히기도 했다.¹⁰

외형상으로, 통계상으로 미주 한인들은 미국사회에서 ‘돈’에 있어서 이처럼 나름의 성공을 거둔 것으로 커뮤니티 ‘외부’로부터 평가받고 있다.

돈버는 이유의 진화: ‘생존 투쟁’에서 ‘존재의 이유’로

미주 한인들에게 ‘돈’이 처음엔 ‘생존의 이유’때문에 올인한 경향이 있으나, 이제는 ‘존재의 이유’로 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초기엔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축적했다. 미국사회에서 한인들의 일반적인 시민 참여활동은 언어 장벽을 이유로, 돈벌기에 바빠서(장시간 노동으로) 꾸준히 무시되어 왔다. 자녀 교육 문제와 사업상의 편의 등을 위해 미국 시민권을 땀어도 투표 참여율은 가장 낮은 민족 그룹에 머물렀다. 이는 언어장벽으로 인해 투표참여 자체가 성가시기도 하지만, 배심원 호출을 한 두차례 경험하고 나면, 돈벌이를 해야 할 시간을 빼앗긴다는 경험에 따른 것이라고 많은 이민 1 세 선배들이 증언하고 있다. 한인 1 세들이 참여하는 공간은 한인교회와 한인사회 각종동호회 및 직능단체 조직들이다. 한인 1 세들의 특징은 미국사회 활동에서 소외된 자신의 능력을 한인 교회와 한인 단체에서 ‘돈’으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 실제로 한인 교회에서 안수 집사까지는 신앙심과 교회 헌신도를 감안하겠지만, ‘장로’ 후보를 뽑을 때는 ‘경제력’이 가장 큰 고려 사항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다. 2012 년도에 LA 중앙일보가 미주 한인 교회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한인 이민교회의 목회자들은 교회의 주된 갈등 원인이 ‘돈’을 둘러싼 싸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¹¹

또 한인회를 비롯한 각종 한인단체들은 자발적인 회원들의 회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장을 중심으로 간부들이 운영비를 충당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자금력이 있는 한인이 단체장에 나서게 되고, 단체장이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살포하는 등 그간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 키워온 ‘돈’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보는 불쌍사나운 모습을 연출하는 것이 그간 한인사회 모습이다.¹²

미국보다 더 경제수준이 낮은 국가 출신의 소수계 이민자로서 미국땅에 발을 디디고 미국에서 생활하게 되면, 가장 먼저 미국의 물질적인 풍요함에 주눅이 들고, 미국사회에서 돈의 위력과 능력에 놀라게 된다. 이민자들은 미국인들이 갖는 인맥, 학맥등의 네트워크가 없이 고립된 삶에서 경제적인 생존의 위기감을 안고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이런 이민자로서의 사회학적 상황이 한인들의 ‘돈’에 대한 강한 집착을 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한인들은 본국에서 가져온 ‘체면 문화’로 인해 소득 수준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의 생활방식을 향유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눈에 보이는 비싼 차량과 주택에 특히 많은 돈을 소비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고국을 떠나와 ‘말도 설고 물도 선 이국땅에서 잘 살기 위해 왔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잠재의식이 깔려 있지 않나 분석된다.

미주 한인들에게 번 ‘돈’ 즉 경제력은 얼마나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얼마나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느냐로 곧 한인들 사이에서 평가되는 문화를 낳았다. 또 교회에서도 신앙심이 좋아도

¹⁰ 조선일보 2012 년 6 월 9 일자 보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6/09/2012060900196.html

¹¹ 미주 중앙일보 2012 년 6 월 18 일자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427804

LA 이민신학연구소(소장 오상철)가 2011-2012 년도에 북미주 600 여 한인 교회를 대상으로 교회 분쟁의 원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목회자들은 ‘돈; 재정 갈등’을 평신도들은 ‘목회자 자질’을 최우선으로 지목했다.

¹² 미주 한인단체간 단체내 리더들 간의 싸움과 분쟁은 일상적인 한인사회 문화로 정착했다. 미주 중앙일보 보도 내용 참조.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32671

조무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길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으로 인정받는 문화가 생기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쯤 되면, 미주 한인들에게 ‘돈’은 사회활동은 물론 교회에서 영향력까지 좌우하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신의 위치로 승격된 셈이다.

미주 한인 1 세들은 또 한국에서 태어나도 미국에서 자라거나 미국에서 태어나 자라는 자녀들과 시간이 흐를수록 단절을 경험하고 생활하는 독특한 고립적인 삶의 환경속에 지내고 있다. 언어적인 장벽과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자녀들은 10 대 중반을 넘어서면 원활한 의사소통은 물론이거니와 부모로서의 영향력까지 미치기 힘든 상황에 맞닥뜨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자녀와의 관계속에서 한인 1 세들이 유일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돈’이다. 경제력을 통해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한인 1 세들은 더욱 더 ‘돈’을 버는 일에 인생을 집중한다.

이민 1 세 한인들의 이같은 독특한 사회적인 상황속에서 ‘돈’은 개인 실존 차원에서도 가장 강력한 ‘존재의 이유’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주 한인들의 경제적 상황:불황에 휘청

과다한 빚에 시달려 돈벌이 스트레스...큰 주택 소유 집착

미주 한인들은 돈 문제와 관련, 빚과 과소비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주 중앙일보가 2012 년 9 월 실시한 미주 한인경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미주 한인 56%가 현재 수입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³

현재 수입이 여유있다고 느끼는 한인은 9.5%에 불과했다. 연소득 20 만 달러가 넘는 한인들 가운데서도 돈벌이에 만족한다는 대답이 32.2%에 불과했다. 미주 한인들은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돈벌이에 큰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안고 있는 빚이 너무 많기 때문이었다. 빚 가운데 가장 많은 부문은 카드 빚이었다. 64%가 카드 빚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41%는 주택 모게지에 시달리고 있으며, 34.6%는 불경기 장기화로 인해 생활비가 모자라서 고통받고 있다고 조사됐다. 미주 한인 40~50 대의 70%가 빚을 안고 있으며, 미국 거주기간이 길수록 부채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30 대는 카드빚이, 40~50 대는 사업자금과 자녀교육 빚이, 60 대 이상은 생계비 및 의료비로 인한 빚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돈’에 대한 능력이 자신의 존재의 능력과 직결되는 사고관과 한국인 특유의 성공을 드러내보이고자 하는 욕구(show off)의 결합으로 인해 한인들은 주택 구입에 다른 인종이나 민족 그룹보다 높은 것이 특징이다. 미국에서 돈을 벌면 중국인들은 상가 건물을 사고, 한국인들은 주택을 산다는 말이 있는데, 오랜 농경문화와 텅없이 비싼 집값으로 고통을 한 한국인 특유의 정서가 배여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특이한 것은 주택시장 침체가 계속되고 실제 가치보다 모게지 빚이 더 많은 깡통주택이 넘치고 주택 가격 하락이 지속되는 와중에도 미주 한인들의 주택 소유율은 더 높아지고 있는 점이다. 2006 년도 한인들의 주택 소유율은 31.7%였는데, 2012 년도엔 42.8%까지 높아졌다. 소유 주택의 가격대는 시가 20 만~40 만 달러가 41.3%, 40 만~60 만 달러대가 31.2%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에 있어서는 한인들의 절반에 가까운 48.8%가 연 5 만 달러 미만으로 나타났다. 3 만~5 만달러대가 28%였고, 빈곤층인 3 만 달러 미만도 20.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 분포도와 대비해보면, 한인들의 소유 주택 가격대는 사실상 감당하기에

¹³ 미주 중앙일보 2012 년 9 월 24 일 보도.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491189

미주 한인들의 돈문제

벽찬 과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인들은 돈벌이에 비해 더 크고 좋은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서비스 자영업 집중, 자금조달 어려움

금융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달한 미국경제는 개인과 사업체의 신용에 의존하여 현찰 흐름을 극대화해 사업을 키워나가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한인들은 이런 미국의 시스템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상태다. 특히 제로 금리 상황의 현 시점에서 사업 자본 동원에 큰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주 한인들의 사업체는 세탁업 등 서비스업이 전체의 28%에 달하고, 뷰티 서플라이 등 도-소매업이 24.4%, 각종 식당이 포함된 요식업이 12.8%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인 업소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자금조달인 것으로 나타났다.¹⁴

인도계 미국인들은 매출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보고해서 신용 크레딧을 잔뜩 올려 미국 은행으로부터 실제 사업체 능력보다 더 많은 사업자금을 융자해 사업을 키우고, 미주 한인들은 세금 내기가 아까워 현찰을 빼돌리고 실제 매상액보다 턱없이 작게 보고를 해서, 사업체 보험 청구나 은행 융자때 실제 사업 캐시 플로(현찰 흐름) 규모만큼 사업 자금 융통을 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다. 불황을 버틸 수 있는 사업 자금 유입을 이자율이 싼 미국 금융권에서 하지 못하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한인 사회의 고질적인 매상 축소 보고의 한 결과일 수도 있다. 사업의 현찰 흐름과 매상액을 잘 보고해서 개인과 업소의 신용 등급을 쌓기보다는 부유한 생활과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는데만 급급해 크레딧을 쌓지 못한 결과를 불황을 맞은 지금 역풍으로 맞고 있는 셈이다.

불경기로 재정 상황 추락: 돈벌이 50% 감소

2008년부터 시작된 미국 경기 불황으로 인해 한인들의 소득이 최소 20%에서 보통 반토막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미주 중앙일보 2012년 9월 25일 보도) 개인 소득과 사업체 매출에서 불경기가 시작된 이래 4년째인 2012년 하반기 시점에서 51%의 한인들이 20~40% 하락했다고 조사됐고, 한인의 20%는 소득이 40% 이상 줄어들었다고 조사에서 대답했다. <부록 1 참조>

미주 한인들의 돈문제와 관련된 또 하나의 특징은 노후 대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인의 27% 정도만 노후 대책을 재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응답자의 65.8%는 연간 소득이 2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들이었다. 한인 노인 인구층의 정부 극빈자 지원금을 받는 비율이 다른 인종과 민족에 비해 높은 것도 한인사회의 특징이기도 하다.

변화된 자화상과 좌절감

불경기의 장기화와 한국의 경제발전으로 인해 돈과 관련된 미주 한인들의 자화상이 변화하고 있다. 취업비자 이민 붐이 일어난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 이민은 쉽지 않았고 미주 한인하면 이미지는 한국보다 잘살고 선망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실제 한국보다 소득도 높고 생활여유도 평균적으로 많고 잘 살았다. 최소한 2000년대 초반까지는 그랬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에 새로 들어오는 한인 이민자들의 패턴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과거 이민 선배들이 사실상 거의 무일푼으로 들어와 바닥에서 흑인동네에서 총을 맞을 각오를 하며 몇 센트의 마진에 목숨을 걸고 하루 18시간씩 장시간 노동으로 돈을 버는 속칭 '전매기 장사'에 전념해야 했다. 또 시대적으로 미국에서 한국과는 고립적인 삶을 살아야 했다.

¹⁴ Ibid.

조무제

그래서 돈 앞에서는 부들부들 떠는 돈에 대한 집착증에 가까운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새로 들어온 21세기 한인 이민자들은 인터넷 시대라는 상황으로 인해 미국에 특수한 목적(자녀 교육)을 갖고 오거나, 한국과 네트워크를 포기하지 않은채 이민생활을 시작했다. 또 이들은 한국에서 돈을 들고 와 이민선배들의 바닥생활을 거치지 않고 쉽게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기러기 가족들은 아예 미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소비만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모습들은 기존 이민생활을 하던 한인들에게 이질감과 허탈감을 던져줬다. 더구나 2008년부터 시작된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오랜 기간동안 고생하면서 일궈냈던 ‘돈’과 사업체, 집들이 모조리 무너지면서 많은 미주 한인들은 정신적인 ‘공황’상태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자신이 미국생활에서 전력을 다해 인생을 바쳐왔으며 존립근거였던 사업체와 ‘돈’이 눈앞에서 와르르 붕괴되는 것을 목도해야 했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동안 미국 생활을 하고, 자영업으로 더 큰 성공을 해서 성공의 최종 정착지인 호텔과 쇼펍몰을 갖고 있던 많은 한인들이 상가 건물을 은행측에 빼앗기고 파산을 경험해야 했다.

미주 한인들의 위상 실추는 미국내 한인사회에서만 아니라, 고국에서도 바뀌었다. 더 이상 돈때고 여유로운 ‘미국 동포’가 아니라, 한국의 인천 공항에 내리는 순간, 초라한 행색으로 ‘미국 거지’가 되어 버리고, 미국에서 구질구질하게 힘들게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업하며 사는 모습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한국에 널리 알려지면서, 미국 이민생활에 대한 옛날식의 환상이 날라갔다. 특히 인터넷 이전 시대에 이민을 온 한인들의 경우 한국에 대한 사고방식이 이민 당시 시대에 머물러 있어, 급변하는 한국의 일반 국민들의 생각 수준을 따라잡지 못해, 고색창연한 방식의 구태를 여기 저기서 많이 보여줘, 한국인들 사이에 아예 ‘미국 똥포’라는 별명까지 얻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¹⁵

미주 한인 교회에서도 한인사회 구성원이 정체되어 있는 중소도시의 경우는 큰 변화가 없으나, 대도시의 경우 새로이 유입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21세기 한인 이민자들과 기존 이민자들의 생각 차이는 다문화 교회를 연상시키는 지경에 달하고 있다. 특히, 기존 20세기 한인 이민자들의 경우 대도시에서 더 이상 교회에서도 과거처럼 ‘돈’으로 위력을 발휘하거나, 지역사회에서 ‘돈’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힘들어지거나 불가능해지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이들이 기존의 자부심을 상실하고 위축감과 소외감을 느끼는 구조로 바뀌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수많은 한인들이 한국으로의 귀환(역 이민)을 선택하거나 자살과 총격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이 증가하고 있다.

한인 교회의 역할

목양적 보살핌 강화

이에 대해 미주 한인 교계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변화에 대해 이민사회 특수성을 반영, 교회에서 각종 모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주중 계속 개방해서 실패로 몰락한 감정속에 빠져 소외되지 않도록 소망을 불러주는 사역에 전념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특히 경기불황으로 인해 평생 일군 ‘돈’의 기반을 다 날리고 경제난으로 상처받은 한인들을 돌보고 교제를 통해 삶의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케어링’에 집중하는 ‘소그룹’ 운동을 강력하게 활성화해야 할 시기라는 주장도 있다.¹⁶ 교회 성장과 이민자로서의 삶의 정착과 성공을 위한 용기를 북돋아주는데 집중했던 기존 사역에서 몰락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영성을 일깨우는 사역으로 초점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¹⁵ 여주영, *ibid.*

¹⁶정인수, “새로운 소그룹 운동이 펼쳐질 때입니다” 기독교일보 2010년 9월 7일 보도.
<http://atl.christianitydaily.com/view.htm?id=188123&code=oc>

미주 한인들의 돈문제

제자 훈련 및 선교 헌신 강화

한인 이민 사회의 교회가 교회 본연의 사역인 거둬냄(중생)을 통한 제자 훈련과 파송의 역할보다는 언어의 섬이기도 한 광범한 한인 이민 사회의 다양한 기능을 함께 짊어진 종합 서비스 센터로서의 기능에 더 치중한 것이 그간 현실이었다. 그 결과, 교회에서 많은 이들이 시험을 받아 등을 돌리고, 이민 교회는 세상의 갈등이 이전되어 분쟁에 휩싸이는 곳으로 진통을 겪는 것이 허다했다. 미주 한인사회는 장기적 불경기와 생활고로 인해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가 더욱 진지하게 되었다.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성도들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헌금액수는 줄어들어도 선교 헌금은 증가하는 등 성경 말씀에의 몰입과 제자훈련, 선교 헌신도는 더 깊어지고 있다.¹⁷ 한인 이민자 교회에서 경제적인 실패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성도들이 더욱 진지해지자, 목회자들이 성경 본연의 메시지인 ‘돈’에 대한 ‘칭지기적인 삶’의 태도에 대한 설교를 더욱 강력하고 설득력있게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사회적 배경이 제공되고 있는 것이다.

교회의 실제 구제 사업 연합

미주 한인 교회는 또 지역사회 한인회와 연합하고, 교단을 초월해 한인 교회들끼리 연합해, 경제위기 이후 도산하거나 직장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된 많은 한인들에게 음으로 양으로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기관을 창출하고 이에 집중하는 구제단체 역할을 하기도 했다. 애틀랜타의 경우 한인 대형 교회들과 한인회에서 공동으로 ‘패밀리 센타’를 만들어, 민간인 기증자들의 도움뿐 아니라, 교회의 일정 헌금을 주기적으로 기증해 이 불경기속에 형편이 극심히 어려워진 한인 가정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의 손길을 주면서 교회의 사회적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한인교회의 공적인 한인사회 구휼 연합 사업으로 ‘이민사회의 잘 난 사람들이 썸박질하는 곳’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교회를 멀리했던 한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실제적인 경제적인 도움때문에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계기가 되면서 새신자 또는 회심자를 위한 전도의 문으로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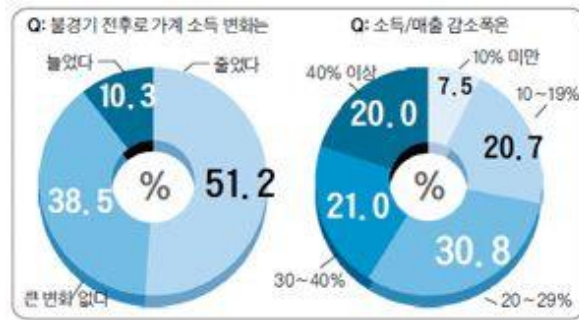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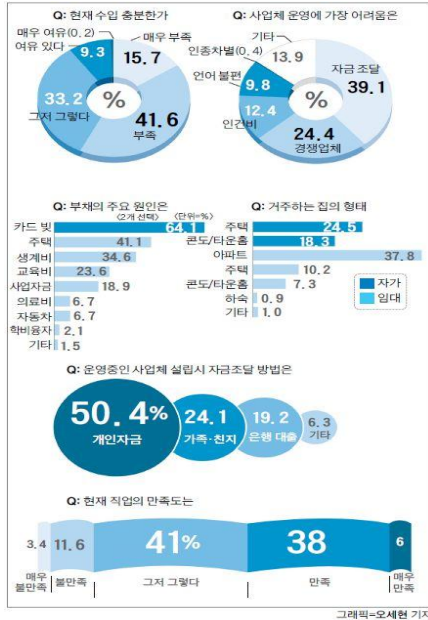
나가는 말

돈은 이민자인 미주 한인들에게 초기엔 가족의 생존을 위해 생명과도 같이 소중한 하나님과 같은 것이었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미주 한인들은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하고 돈을 버는데 성공한 민족으로 평가받았다. 돈으로 이룬 성공으로 5천개에 달하는 미주 한인 교회를 세우고, 한인들은 교회에서도 돈의 논리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번 미국 불경기로 인해 하나님보다 더 소중이 여기던 ‘돈’, 인생을 다 바쳐 이룩했던 ‘돈’의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또 한국의 눈부신 성공과 이 성공을 바탕으로 한 재력을 갖춘 새로운 한인 이민자들로 인해 한인 커뮤니티에서 그 존재감의 위축을 경험하고 있다. 미주 한인들은 ‘돈’을 쫓아 일시적으로 성공했지만, 장기불황으로 인해 심각한 몰락을 경험하고 있으며, 존재감 상실을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시기에 한인들의 ‘돈’차량 무대로 한때 성장해왔던 한인 교회가 이제 영혼구제와 죽음의 유혹에 빠진 낙망한 영혼에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영혼 구제 사역, 이민사회 지위 부여 역할을 뛰어넘는 소명자 역할을 줄 수 있는 강력한 말씀 훈련이 필요할 때라고 본다. 특히 이민 유입의 정체기에 접어든 미주 한인사회에서

¹⁷애틀랜타 연합장로교회(담임 정인수)의 경우, 전체 헌금 액수는 큰 변화가 없으나, 선교 헌금이 월 5천달러 내외에서 불경기 4년 뒤 2012년도는 평균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무제

한인교회들은 정채상태에서 자멸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 성도들의 영적인 내실을 기해 강력한 제자도가 살아있는 교회로 거듭날 것인가 교차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한인 교회는 불경기로 도전받는 현 미국적 상황속에서 돈에 대한 한인 이민자들을 기존 생각을 주인 의식에서 하나님의 사명자에게 주는 관리자 의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집중해 말씀을 선포할 최상의 시기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한인 교회가 물신에 젖은 한인 이민자들의 돈의 관념을 바꾸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할 때, 이민사회의 벽을 넘어 돈에 대한 승배가 넘치는 미국사회에 빛과 소금으로서 한인 크리스찬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록 1>

출처: 미주 중앙일보 2012년 9월 24일 보도.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371/9419371.html?ctg=1100&cloc=joongang%7Chome%7Cusajjoongang>

<부록 2>

참고 자료

김찬호, 돈의 인문학,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11)

노컷 뉴스, 2008년 1월 13일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72089>

미주 중앙일보 2012년 6월 18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427804

미주 중앙일보 2012년 9월 24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491189

미주 한국일보 2012년 2월 12일 <http://www.koreatimes.com/article/713439>

미주 한국일보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did=1492400>

오상철, 이민신학, (서울:쿠파 출판사, 2008)

정인수, “새로운 소그룹 운동이 펼쳐질 때입니다” 기독교일보 2010년 9월 7일.

<http://atl.christianitydaily.com/view.htm?id=188123&code=oc>

조선일보, 2005년 9월 19일. <http://www.chosun.com/economy/news/200509/200509190289.html>

최원준, “돈에 대한 인문학적, 사회학적 통찰,” 목회와 신학, 11월호, (서울:두란노, 2011).

코리아 스피릿, 2012년 9월 21일. <http://www.ikoreanspirit.com/news/articleView.html?idxno=35175>

목회자의 교회갈등 관리

정관호

들어가는 말

교회는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이다. 그러나 교회안에는 늘 갈등이 존재해 왔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인곳이 교회이기에 어떤 종류이든지 갈등구조가 존재할 수 있다. 더욱이 교회는 어떤 사회 단체보다도 갈등을 자주 경험한다. [목회와 신학]이 2004 년도에 실시한 “교회안에서의 갈등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의식조사”에서 한국 교회안에 갈등의 문제를 12%는 아주심각하다고 보았고 55%는 심각하다고 평가했다.¹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해결해야 중요한 문제로 갈등을 들고있다. 사단은 이 갈등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사이가 벌어지고 교회공동체의 분열과 파괴를 이루고 싶어한다. 그러나 이렇게 파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갈등의 이면에는 개인의 성숙과 교회의 성장의 축복도 준비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역사적으로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정화시키는 일을 하셨다. 그리고 갈등을 통해서 교회는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교회의 연합을 더욱 향상 시키고 교회의 우선적인 목표에 더욱 초점을 맞출수있다. 이렇듯 갈등은 관리가 잘 되어지게 되면 축복과 성숙의 기회가 될수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이처럼 중요한 갈등의 문제를 다루고 관리함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 거의 무방비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연구자는 이 글을 통해서, 교회에서 자주 발생하는 갈등의 본질과 양상, 그리고 진행과정등을 이해하고, 교회 지도자로서, 목회자가 이러한 갈등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관리할수있을까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목회자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인식을 하는것만으로도 그러지 못했을때 저지를 수있는 크고 작은 실수들을 미연에 방지할수있으리라 생각된다.

갈등의 네가지 근원

문제없는 교회는 없다.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한 갈등은 존재할수밖에 없다. 교회에서 경험되는 갈등은 네가지 다른 근원을 가지고 있다.² 첫째는 태도에서 오는 갈등이다. 개인이나 조직이 변화를 요구할때 갈등은 피할수없는데 사람들의 논쟁점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이나 감정이 갈등을 야기시킨다. 둘째는 실재적인 갈등이다. 이는 목표, 목적, 수단에 대한 견해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갈등을 의미한다. 세례, 십일조, 주일성수 등과 같은 부분에서 이러한 갈등양상이 드러난다. 실재적 갈등은 다른 유의 갈등보다 이념적이고 원리적이며 때로는 교리적이기때문에 교회의 분쟁 또는 더 나가서 분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셋째는 감정적 갈등이다. 감정적 갈등은 개인적인 태도에서 오는 갈등이나 실제적 갈등에

¹박삼열, “교회 안의 갈등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의식 조사,” [목회와 신학], 통권 177 호 (2004, 3 월), 165.

²라종일, [교회의 갈등 그리고 화해], 120.

정관호

부속되어 나타나는 결과이다. 넷째는 의사소통의 갈등이다. 이 갈등은 대화의 단절에서 오는 갈등으로 의사교환이 가장 적절한 갈등해소의 열쇠가 되는 반면 의사단절은 갈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³

교회내 갈등의 원인

첫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내적인 상태 때문에 갈등이 부추겨진다. 여기서 말하는 내적인 상태란 주로 부정적인것을 의미하는데 파괴적인 성격의 감정, 시각, 관점등을 말한다. 예를 들어 어떤 목회자가 건전하지않은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서 이로 인해 열등의식이나 우월감에 사로잡혀있다면 이는 교회내 갈등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웬만한 농담이나 우스갯소리에 지나칠정도로 민감해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경우, 그런 갈등을 끼친 장본인과의 관계가 자연스러울수 없다.

거기다 시기 경쟁의식 등의 부정적인 감정의 동요 상태를 여유롭게 다루지못한다면 그 목회자는 크고 작은 여러면에서 모욕을 느끼고, 분노로 반응하거나 반대로 주눅이 든채 말수가 줄어들게된다. 그리고 편견 오해 선입견 부정적 첫인상등에 사로잡혀있게 되면 다른 성도들의 자잘한 행동거지에 대해서조차 갈등을 경험할수있다.⁴ 하지만 대체로 목회자들의 경우에는 그리 심해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목회자로서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진 인품과 사명의식은 이렇게 사태가 악화되기전에 보호막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적 훈련이 되어있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일반적인 모습이라 하겠다.⁵

둘째 교회에서 성도들의 개성적 기질적 특성이 다른 이들과의 갈등을 야기시킨다.⁶ 이러한 개성적 특성들은 매력으로 작용하기도하고 혐기로 작용하기도한다. “나는 목회자의 저런면이 싫어 혹은 우리 집사님의 그 모습이 마음에 쏙 듭니다” 등의 표현은 실상 어떤 대상의 개성적, 기질적 특성에 대한 자신의 호불호적반응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개성적, 기질적 특성은 모두 어렸을때부터 자연스레 발생한것으로 마음의 습관과 경향에 뿌리를 박은채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는 목회자나 성도나 차이가 있을수없다.⁷

셋째 행정상의 견해차이가 갈등유발의 원인이 된다. 목회자와 직분자들사이, 또는 직분자들사이에서 가장 빈번하게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말할수있다. 거기다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이 ‘행정상의 견해차이’라는 것이 실상 앞에서 언급한 개인의 내적인 상태들, 개성적 기질적 특성들과 맞물려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러한 견해차이를 단순히 객관적 시각으로만 볼수있다면 이러한 차이가 반드시 갈등을 유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자기중심적이고, 주관적인 인식과 사고의 틀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바라보고 있기에 쉽지않은 것이다.⁸

대부분의 이런 행정상의 견해차이는 교회의 공적인 회의에서 불거지곤한다. 그런데 공적회의라는 것이 불가사리한 면이 있어서 의견의 차이를 서로의 심리적 간격의 차이로 바꾸는 힘이 있다. 다시말해서 어떤 사람과 의견의 차이가 있다해도 일대일도 만나 대화를 하면

³위의 책, 121-122.

⁴위의 책, 123.

⁵위의 책, 124.

⁶위의 책, 125.

⁷위의 책, 125.

⁸김청수, [목사의 적, 목회의 적] (서울: 누가, 2002), 43.

교회갈등 관리

어렵지않게 해결되어질수있지만 공식적 회의석상에서 표면화되면 서로간의 긴장 심기불편 반목의 분위기가 쉽게 조성되어버린다.⁹

넷째 교리나 신앙의 전통상의 불일치가 갈등의 요인이 될수있다. 예배의식과 순서 교회 직분 세례방식 방언 헌금과 같은 문제가 이에 속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는 많지않다.¹⁰

갈등에 대한 시각

교회에서 갑과 을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을때 그들만의 관계적 상황이라고 볼수는 없다. 갑과 을이 교회내에서 관계맺고 있는 여선교회, 예배위원회등의 많은 사람들의 정서체계와 교회라는 환경을 넘어서 부모, 형제, 남편, 자녀들 등과의 관계에서의 정서체계와 과거의 경험들또한 깊은 관련이 있다고 봐야할것이다.¹¹ 예를 들어서 갑과 을 목사가 같은 교회에서 팀목회를 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둘은 모든면에서 호흡이 잘맞는데 유독 재정적인 면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갑목사는 항상 을목사에게 모든 재정적인 방식이 ‘싸구려’라고 하면서 지나치게 아낀다라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서 을목사는 갑목사가 너무 무책임하게 위험부담이 큰 사역들을 벌리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다 교회 재정이 바닥날거라고 비난한다. 나중에 이들은 성경구절까지 인용하면서 서로 다룬다.

이 상황속에서 이들은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 개인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서로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낙인을 찍고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것은 그 두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각기 다른 정서체계속에서의 경험들을 통해 오늘의 자신들의 이런 주장들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갑목사는 두 형제중의 막내로 태어나 어렵지 않은 경제 환경속에서 성장했다. 반면에 을목사는 가정의 장녀로 태어나 여러번 모험적으로 사업에 뛰어들다가 파산한 경험이있는 아버지때문에 늘 가족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염려하며 성장했다.

이들 사이의 교회재정문제에 대한 갈등은 서로 다른 정서체계가 교회라는 정서체계안에서 상호 충돌하고 있는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부분에서 인식하지못하고있다.¹²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

갈등인식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는 항상 갈등의 문제가 상존하게 되는데 이러한 갈등의 문제가 드러나기전에 먼저 징후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것에 대해 Ronald Richardson 은 성도들이 모임에 지속적으로 지각, 서로 냉담, 자주 갈등 상황 격음, 몸이 아프거나 사고를 당하는 성도들이 늘어남 파당이 생기고 공공연한 비밀들이 조성, 과기능자와 과소기능자의 상대적 증가 지도자에 대한 ‘무조건적 순응’ ‘반항’ 교회 떠남등을 그 예로 들고 있다. 이러한 징후들을 통해서 성도들 간의 관계 체계내에 문제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수있다.¹³

⁹위의 책, 44.

¹⁰위의 책, 45.

¹¹Edwin H. Friedman, [세대와 세대 - 가족체계이론과 목회 상담-],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28-31.

¹²Ronald Richardson, [교회는 관계 시스템이다], 유재성 역(국제제자 훈련원, 2008), 55-7.

¹³위의 책, 232-3.

불안해하지 않는 의식태도 갖기

목회자들이 교회에서의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능력은 바로 교회갈등에 대한 자신들의 불안을 갈무리하는 것이다. 목회자가 교회의 갈등의 원인이 되는 집단에 휘말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안으로 말미암아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될 경우, 갈등은 더욱 고조되고 악화될 것이다. 따라서 목회자의 차가운 머리로 불안해 하지않는 태도를 갖는다면 갈등의 궤도밖에서 머물르수가 있을 것이고, 좀더 객관적이고 차분하게 갈등의 원인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아 낼수있을 것이다.¹⁴

자기 차별화

자기 차별화(자기분화)는 보웬 이론의 중심개념이라고 할수있다.¹⁵ 자기 차별화란 자신이 선택한 조직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독립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라 할수있다. 자기 차별화된 사람은 객관적이고 사고와 감정사이에 균형을 이룰수있으며, 차별화가 되지않은 사람들은 자율성이 부족하고 다른사람과 융해되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정서적으로 융합상태에 이르게 되면 어디까지가 ‘나’이고 어디까지가 아닌지 혼동하게 되고 책임감의 소재도 불분명하게 된다. 만약 교회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당사자들은 일의 책임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모습을 보게된다.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교회체제의 한부분으로 속해 있으면서 자기 자신이 될수있는 능력을 말한다. 목회자들이 교회 조직과 하나가 되어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부조직과 자신의 한계를 긋으면서도 접촉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는 목회자가 교회와 하나가 되어야한다는 통념에 비추어볼때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구분하면서 접촉을 유지하기란 쉬운일이 아니다. 또 한 개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독립적인 기능을 유지할수있다는 것은 자신이 선택한 사람이나 조직의 말이나 의견에 쉽게 동의하거나 설득당하지 않고, 목회자로서 지닌 입장을 비반응적이고 분명하게 견지하는 자세와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 차별화를 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일을 자신의 일의 일부분으로 여기고 즉흥적이고도 반사적으로 심각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선택한 조직은 건강한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그 문제에 있어서 힘이 있는 조직으로 변하게 된다.¹⁶

그러므로 교회 목회자들은 체제에 묶여서 반사행동을 할것이 아니라 체제에 대해서도 반응할 수 있는 자기 차별화를 이루어야한다.

실제 사실과 느낌의 분리 작업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 내적동기를 추론하곤 한다. 그리고 그것의 옳고 그름을 나름대로 평가하고 그렇게 믿어버린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내적인 동기나 의도를 정확하게 알수있는 사람은 없다. 심지어 자신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관적인 상상속에서 그들자신보다 우리가 그들을 더 잘 알고 있다고 믿기 시작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 기분 좋게

¹⁴양병모, “가족체계 이론적 관점에서 본 목회 사역 갈등해소 전략,” 343.

¹⁵머레이 보웬(Murray Bowen, 1978)은 정통적 가족치료 개발자 중 한명이다. 보웬의 치료이론과 실제의 대부분은 정신분열병 환자가 있는 가족에 대한 연구에서 비롯되었다. 대인관계 양상이 여러세대의 가족원들을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가족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3 세대 관점에서 분석을 해야 한다고 믿었다. 주요 공헌에는 자기 분화와 삼각법이라는 핵심개념을 포함한다.

¹⁶위의 책, 344-5.

교회갈등 관리

느끼느냐 아니면 기분나쁘게 느끼느냐에 달린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관성의 본질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했다라고 상상한것에 대해 다시 반응하게 된다. 그러면 상대방도 자신이 했던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반응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식으로 반복적인 과정이 일어나게 되면 그들사이에 갈등을 야기시켰던 본질적인 문제들은 점점 희미해지고 그 조직의 정서체계는 더욱 혼란의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다. 물론 자신의 정서체계를 완전히 벗어나서 객관적인 자세를 갖추어줄수있는 사람은 없지만, 좀더 객관적인 자세를 갖추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개인이나 체제 자체에 좀더 유익을 가져다 줄것이다. 관계속에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느낌에 의한 상상을 통해 만들어진 내적동기보다는, 그 사람이 속한 정서체계가 어떻게 기능하여 저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지 그런 사실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교회위원회 모임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그리 밝지 않는 모습으로 듣다가 이내 갑자기 시선을 아래로 내리고 한동안 침묵하기 시작했다. 이 상황속에서 이 다른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사실, 즉 갑자기 시선을 아래로 내리고 한동안 눈을 마주치지 않고 침묵하는 모습을 넘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는 내적 동기에 대해 상상하며 그 사람은 나쁘다라는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사람은 갑자기 중요한 집안일이 머리속에서 떠올라서 그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던 중이었다. 이처럼 실제로 우리는 당사자가 그 이유를 말해주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느낌을 통해서 추론하고 상상하면서 관계 당사자들의 행동과 관련하여 그 이유를 찾기보다는 누가, 무엇을,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등의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추구해야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감정에 기반한 상상을 통해서 빚어질수있는 많은 추가적인 혼란과 어려움등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것이다.¹⁷

정서적 삼각관계 관리

한 시스템속의 두 당사자가 서로 불편해질때, 다시 말해서 갈등이 발생했을때 어느 한 측이 불안을 완화시키고 서로에게 있는 정서적 갈등을 봉합하려는 수단으로 제 삼자를 이용하는 삼각관계를 만들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서 실제 논점과 책임성의 문제는 흐지부지 되고 모호해진다. 그리고 불안 정서가 삼각관계 형성을 통해서 하나의 관계에서 다른 관계로 흩어지게되고, 감정은 견딜만하게 된다. 교회에서 자주 발생하는 삼각관계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목회자 - 성가대장 - 반주자
- 주일학교 교사 - 학생 - 학생의 부모
- 위원회 위원들 - 위원장 - 목회자
- 교회 간사 - 담임목사 - 부목사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자. 부부 사이에 어려움이 생겼을 경우, 아내가 목회자에게 도움을 구하는 형태에 대해 다루어보자. 이런 경우 대부분은 아내가 자신을 희생자로 여기고 남편을 박해자 여기며 목회자를 자신의 구조자로 만들고자 한다. 이런 상황속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전개과정과 목회자가 주의 해야 할 부분에 대해 살펴보자.¹⁸

¹⁷ Ronald Richardson, [교회는 관계 시스템이다], 유재성 역(국제제자 훈련원, 2008), 59-63.

¹⁸ Steve M. Lyon, "회중 속의 갈등 다루기 리더십," 133-5.

정관호

첫째, 희생자인 아내는 구조자인 목회자를 끌어들이 정서적 삼각관계를 형성하고자한다. 이럴때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은 주님께서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해 자신을 부르셨다고 믿고 소위 구조사업에 뛰어들게 된다.

둘째, 구조자인 목회자는 희생자로부터 박해자로부터의 문제의 짐을 떠맡게 되고 박해자인 남편도 구조하고픈 유혹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그를 찾아가서 희생자의 생각을 전하고 문제의 해결을 시도한다. 결국 구조자는 어떤 형태로든 희생자의 메시지 전달자가 되는것이다.

셋째, 남편이 목회자의 말에 동의한다하더라도 그는 아내에게 배신감을 느낄 것이고 기밀 누설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넷째, 아내는 기밀 누설의 책임을 목회자에게 돌릴 것이고 이 두 부부는 목회자를 탓하기 시작하게 된다.

이런 상황속에서 그들의 고조되어졌던 갈등이 삼각관계를 형성하므로 말미암아 완화가 되어지게되고, 그들은 갈등을 견딜만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사이에 갈등을 야기시켰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함없이 그저 견딜만해져서 상황을 모면하고 있다는 것과 소위 '구조자'로 참여했던 목회자와 그 부부사이에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실상 박해자와 희생자의 관계는 전처럼 지속된다. 두 사람이 자신들간의 상호 관계에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구조자를 탓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사실 구조자인 목회자는 희생자인 아내의 어떤 형태로든 메시지를 박해자에게 전달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리고 어느 누구의 편에 서지도 말아야하며, 그러한 표현도 그 둘 누구에게도 지혜롭게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 갈등순간에는 두 당사자들이 갈등관계에 있으나, 어느 순간 그들의 갈등의 정도가 약해질수있고, 나중에 목회자와 그들중 누구와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목회자, 자신이 누군가에게 편을 들었던 행동들이 미래에는 새로운 갈등의 요소가 될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의 예에서, 목회자는 아내와 남편이 직접 대면해 의사소통 하도록 강조하여야 한다. 여기서 기억할것은 목회자는 아내와 남편과 각각 관계를 잘 유지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서로의 대화를 촉진시켜야한다. Friedman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는 자신이 소속해 있는 관계만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것은 다른 둘의 관계가 그들의 노력에 의해 좋아질수있도록 단지 양자와 좋은 상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이다. 우리가 이런 정서적 삼각관계 속에서 “불안해하지않는 인식”을 유지할수있는한, 그런 입지는 다른 둘속의 불안을 바꾸어놓을 만한 잠재력이 있다. 문제는 불안없이 현존하는것이다.¹⁹

여기 한가지 예를 더 생각해보자. 김철목사(가명)는 가끔 부모님을 방문하는데 그럴때면 어머니와 단둘이 있곤 한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김철 목사의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곤 했다. 김철 목사는 이 갈등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그문제들에 대해 어머니가 어떻게 해야한다고 말씀드리거나 심지어 논쟁까지 하면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오랜시간이 지나도 결국 변한것은 하나도 없다는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김목사의 어머니는 아들인 자신을 정서적 삼각관계에 끌어들이므로써 그때 그때 갈등으로 인해 고조된 감정을 해소하고 있었다라는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할때, 김목사는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바람, 행동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하였다. 어머니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는 하지않았다. 어머니는 김목사의 질문에 답변하는 중에 좀더 자신에 대해 돌아볼수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남편이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다는 것보다, 자신이

¹⁹ Edwin H. Friedman, [세대와 세대], 56-9.

교회갈등 관리

남편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지에 대해 생각을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자세의 변화는 결국 두 부부 사이에 문제들을 해결케하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할 몇가지가 있다. 어머니는 아들을 정서적 삼각관계에 끌어들이므로써 자신의 갈등으로 인한 감정을 그때 그때 누그러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갈등의 해결은 없이, 고조된 감정의 분산만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김목사의 태도 변화에도 주목해야한다. 그는 처음에는 둘의 관계를 해결하고자 어머니에게 어떻게 하라는등의 조언이나 논쟁을 하곤하였다. 그러나 나중에는 어머니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 행동에 대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어머니의 시선이 갈등의 대상인 아버지에게서 자신으로 옮겨지게 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자신이 남편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하는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할것은 김목사의 어머니 자신또한 정말 문제가 무엇인지 사실적인 면을 간과하기 쉽다는 것이다. 그냥 감정적으로 불만이 가득하여 사실을 냉철하게 보는 시선을 놓치기 쉽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목사의 질문들은 갈등 대상자에 대한 감정의 구름을 걷어버리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게하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주의할 것은 어느 한쪽편을 들어서서 안된다는 것이다. 무조건 곁으로 보기에 어렵거나 약한 쪽에 지지를 보인다면 이것은 파괴적인 삼각관계가 형성되어 상황은 더욱 어렵고 혼란스러워지며 서로를 더욱 자극하게 되서 결국에는 도움이 되지않는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갈등의 상황속에서 자신에 대한 충분한 성찰없이, 상대방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게 되고, 자기입장만을 옹호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우리는 이점에 주의를 기울려야한다. 만약 목회자가 자신의 입장만을 옹호하려는 사람에게 자신이 한 역할(관계가 어려워지게 한 부정적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할수있도록 ‘지혜롭게’ 도울수있다면, 이는 상호 성장에 유익을 주게 될것이다.²⁰

삼각관계를 다룰수 있는 간단한 테크닉이란 없다. 그러나 중요한것은 삼각관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다. 삼각관계를 형성하게 만드는것이 무엇이고,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삼각관계는 자연스러운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한다. 그리고 이 정서적 삼각관계는 기본적으로 불안도가 높아질수록 더 많이 나타나기에 목회자는 덜 불안하고 차분하며 안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나가는 말

돌이켜 보면 지금까지 교회내에서의 갈등상황속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차원의 교육을 직접적으로 받아본 경험은 한번도 없었던것같다. 그래서 어떤 때는 감정적으로 어떤 때는 주변사람들의 충고에 의해 단편적으로 처리했던것이 다반사였다. 그리고 그 갈등이 극도로 고조되어 교회를 옮기는 것으로 갈등상황을 마무리하는 모습도 많이 보게된다. 이런 점에서 목회자는 평신도든 모두 피해자도 가해자도 될수있다. 특히 이부분에서 목회자는 더욱 더 가해자의 입장이 될 공산이 크다.

2003 년 12 월 중앙일보 기사에서 보면 교회를 옮긴 신자가 전체 교인의 76.5%에 이르며 교회이동이 좋지않다고 생각함에도 교회를 옮긴 가장 큰 이유를 목회자와의 갈등으로 꼽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성도들을 피해자로 만들어 교회를 옮기게 만드는데는 목회자의 악의보다는 갈등관리의 무지가 그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목회자는 갈등관리에 관심을 가져야하고 전문가가 되어야한다. 끊임없이 이론적인 연구와 그이론의 현실에로의 적용노력을 해야한다. 그럴때 비로서 갈등은 성숙과 축복의 기회가 될수있을것이다.

²⁰ Ronald Richardson, [교회는 관계 시스템이다], 222-8.

참고자료

단행본

- 김선기, [교회의 갈등 해결을 위한 지도자 양육/ 목회 상담학]. 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김용태, [가족치료 이론], 서울:학지사, 2002.
김청수, [목사의 적, 목회의 적] (서울: 누가, 2002)
라종일, [교회의 갈등 그리고 화해]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2)
옥수영. [갈등해소를 위한 성장 리더십]. 서울: 은혜출판사, 2000.
현유광, [갈등을 넘는 목회], 서울: 생명의 양식, 2007.
Edwin H. Friedman, [세대와 세대 - 가족체계이론과 목회 상담-],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Ronald Richardson, [교회는 관계 시스템이다], 유재성 역(국제제자 훈련원, 2008)
_____, [목회는 관계 리더십이다] 유재성 역(국제제자 훈련원, 2008)

정기 간행물

- 김상복, “ 교인과의 갈등과 목회자의 리더십.” [목회와 신학], 통권 124 호 (1999, 10 월):88-97.
박삼열, “ 교회 안의 갈등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의식 조사,” [목회와 신학], 통권 177 호 (2004, 3 월):
이관직. “ 교회 내 갈등, 부적절한 해결의 결과들.” [목회와 신학], 통권 178 호 (2004, 4 월):
양병모. “ 교회갈등의 주요 원인과 특성.” [복음과 실천=침신논집], 37 집(2006, 봄)
유옥, “ 머레이 보웬의 세대 간 가족 상담 이론,” [기독교 교육], 제 468 호(2008, 11 월)
Steve M. Lyon, “회중 속의 갈등 다루기 리더십” [목회와 신학],
http://qt1000.duranno.com/moksin/detail.asp?CTS_ID=12037&CTS_YER=2002&CTS_MON=2&CTS_CTG_COD=9

학술논문

- 양병모, “가족체계 이론적 관점에서 본 목회 사역 갈등해소 전략,” [복음과 실천신학] 제 10 권(2005 년 가을호), 331-349.

동과서의 다른 시각들 Different perspectives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John Paik 백성인

Entity vs. Essence

According to Richard E. Nisbett, Westerners and Asians, East Asians in particular, have different understanding of the universe. Westerners consider that the outer space is empty; therefore, the stars are isolated entities having no relations with its surroundings. On the other hand, Asians believe that the space is filled with energy known as *ki*, and this *ki* connects the stars all together, making them all interrelated with one another. In the East, all objects are consisted of *ki*, and the objects that are in this space filled with *ki* are all connected to each other. They understood that objects distance from each other still affect one another because of this notion of *ki*.

This understanding of the universe applies to how the East and West understand objects as well. An experiment was done by Dr. Imai, to both Westerners and Asians asking them to pick between two figures, a blue cylinder and a wooden cuboid, which identified more likely with a wooden cylinder.



Most of the Westerners chose the blue cylinder while the Asians picked the wooden cuboid. In other words, according to Dr. Imai, the Westerners identified the figures depending on their shape while the Asians identified the figures account of its substance. This example shows how these two groups perceive objects differently. This aspect can easily be found in the distinguished plurals developed in English, contrast to Korean plurals.

person	people	사람	사람들
child	children	아이	아이들
ox	oxen	황소	황소들
mouse	mice	쥐	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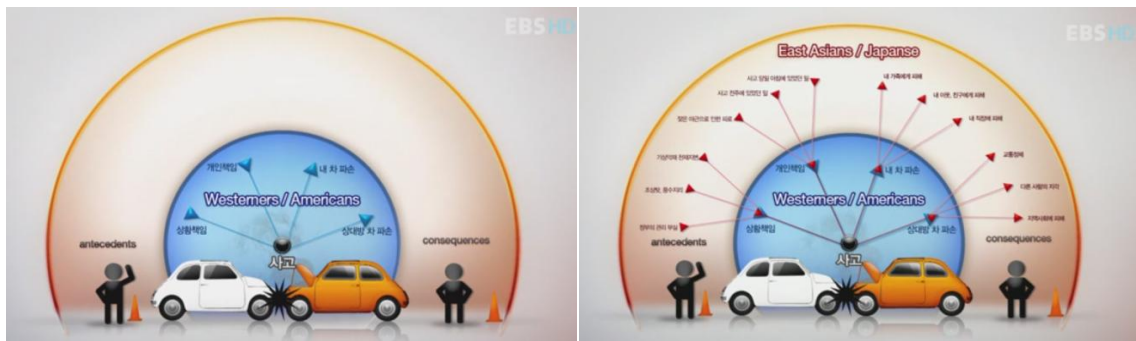
백성인

It is easy to find another example that points out the Westerner's notion focusing on the entity. According to Dr. Kaiping, in English you have to indicate a number when offering someone to eat apples or oranges, such as, "Have **an** apple," "Eat **some** oranges." However, in Korean you would say, "사과 드세요." "오렌지 드세요." To Westerners, the concept of the whole is also a collective of entities. For Asians, however, a whole means a mass condition having no separated entities, but namely a state of unitization.¹

Noun vs. Verb

When asked if you would like more tea or coffee, in English someone would ask, "More tea?" or "More coffee?" while in Korean you would be asked, "차 더 드실래요?" "커피 더 마실래요?" As we can see in English the focal point is on the noun, tea and coffee, whereas in Korean it is focused on the verb, 드실래요, 마실래요. This is because for the Westerner the tea and the person drinking the tea are separate entities, therefore, asks the question through the noun which is the tea. On the other hand, the question focused on the verb, 드실래요 and 마실래요, indicates the interaction between the tea and the person drinking it. In other words, it is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ntities rather than on the entities itself.

When Asians look at the world around them all objects are changing endlessly, therefore, they believe that all beings result from interactions with the world around them. And since the other objects around them are also interrelated with another, the relationship with an object becomes more and more complicated.



According to Dr. Choi, to Asians, a person's behavior is determined by the context that person is situated, thus, the person has to consider various factors since even a small change in that context could affect his/her behavior, whereas the Westerner sees the person as a completed agent independent from the context, and believes that a person's behavior can be explained enough of what is going on inside that person. The Westerner tends to believe that a cause of a phenomenon is in inside the object. Since long ago they have decomposed objects, until they were not able to decompose the substance which is the smallest unit, Atom. The ancient Greek philosopher Democritus thought that depending on the properties of the atom the attributes of the object changed. This idea

¹동과 서: 명사로 세상을 보는 서양인, 동사로 세상을 보는 동양. 다큐프라임. EBS, Apr. 21, 2008.

동과서의 다른 시각들

that every cause of phenomenon comes from the innate characteristics of a object has been dominated in the West while in the East, as shown above, the cause of all things that happen around you is the situations that surround the object.²

Low-Context Culture vs. High-Context Culture

The proportion of nonverbal (noun) behavioral communication varies from culture to culture relative to the verbal communication used. Communication styles that focus more on words to communicate and less on behavior--the context in which the words are used--are said to be *low-context* (Germany, the U.S., Canada, Australia, New Zealand, Great Britain, and parts of Switzerland and Scandinavia). *High-context* cultures (virtually everyone else in the world), in contrast, rely relatively more on nonverbal context or behaviors than on abstract, verbal symbols of meaning. Much of the information in the communication lies "below the water line," and is assumed to be known and is acknowledged by a hardly perceptible flick of the hand, head, eye, or other subtle movement; or contextualized in terms of what can be said where and when and by whom). These contrasting styles create frequent and significant obstacles to cross/inter-cultural communication.³

In a *high-context* message, more information is contained in the physical context or internalized (and is assumed to be internalized and understood) in the person receiving it and less in the coded, explicit, transmitted verbal part of the message. In short, most of the message is not explicit but contained in nonverbal cues (gestures, place, time, situation, relationship) or recognized by culture members as a long-standing historic fact, while a *low-context* communication vests more information in the explicit verbal code.

Low-context--think of interfacing with a computer in a system of explicit prompt and response exchanges. If the computer does not recognize your programming, there is no communication. Germans (the lowest of the low context), German-Swiss, Australians, New Zealanders, British, Scandinavians, Americans and Canadians have a low-context communication style and tend to transmit information in words spoken which are amplified or overridden relatively less than other cultures by nonverbal signals such as gestures, silence, eye contact, or ritual. We (low context cultural products) say what we mean, directly, explicitly.

High-context people are acculturated to send and receive a large proportion of information through behavior--consciously and unconsciously.

- When a high-context person receives a verbal message from a low-context person, misunderstanding is necessarily created because the high-context person erroneously attributes meaning to nonverbal context when that meaning is not intended at all.

²Ibid.

³G. Hofstede, *Culture's Consequences*, (Beverly Hills, CA: Sage, 1988), 26-31, 53-55.

백성인

- The high-context person will communicate much through behavior that the low-context person misses the meaning entirely, not apprehending, much less understanding the contextual nonverbal message being expressed.
- *Rather than words, the context probably and typically contains the real message.* This does not mean that context is meaningless in low-context cultures. Not at all. For example, in high-context cultures such as Korea, it is impolite to respond with “no” to a request. The courteous response of “maybe” or “I will try,” “I understand why this is important and why we must work to make it happen,” “I cannot see why not” is clearly understood as “no” to a person familiar with the contextual ritual. This drives low context communicators crazy, particularly in business communications.) There is a perfectly rational approach—how can we promise something at a future date when we do not know what the future holds? How can I promise something when I do not know if conditions will allow me to fulfill my promise? Essentially, when high context people are pressed to give a low context response, their response is highly ambiguous rather than definitive.
- A person from a low-context culture will typically ignore the ritual and focus on words, taking the spoken words literally and treating them as information-specific. The low-context person becomes offended when he does not get what he expects. Both see the other as rude. In Asia, a Westerner may be frustrated when getting no response at all after asking a question. It may be days or months (or never) before the low-context person realizes that the person responded “yes” by an almost imperceptible twitch of the eyebrows or change in body posture (whereas a nodding of the head would have been understood by a low context person though that nod may mean something entirely different to the high context person).⁴

Greece vs. Ch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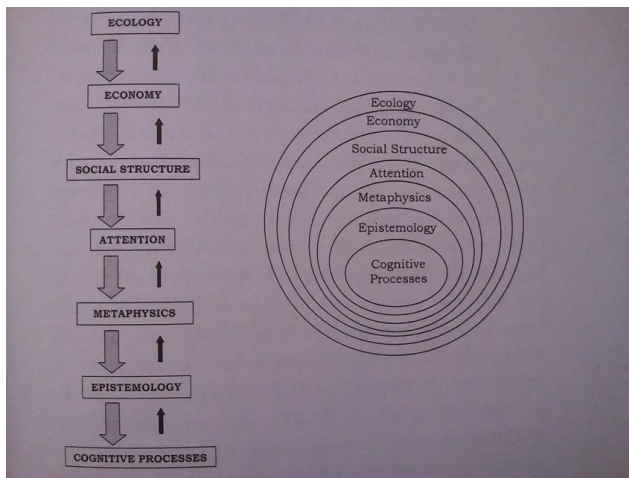
Nisbett, in *The Geography of Thought*, traces these two cultures back to ancient Greece and China in effort to find the origins of the differences. He describes that the Greeks were independent and engaged in verbal contention and debate in an effort to discover what people took to be the truth. They thought of themselves as individuals with distinctive properties, as units separate from others within the society, and in control of their own destinies. Similarly, Greek philosophy started from the individual object—the person, the atom, the house—as the unit of analysis and it dealt with properties of the object. The world was in principle simple and knowable: All one had to do was to understand what an object’s distinctive attributes were so as to identify its relevant categories and then apply the pertinent rule to the categories. The Chinese social life, on the other hand, was interdependent and it was not liberty but harmony that was the watchword—the harmony of humans and nature for the Taoists and the harmony of humans with other humans for the Confucians. Similarly, the Way, and not the discovery

⁴ Clifford Geertz,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New York: Basic Books, 2000), 43–46.

동과서의 다른 시각들

of truth, was the goal of philosophy. Thought that gave no guidance to action was fruitless. The world was complicated, events were interrelated, and objects (and people) were connected “not as pieces of pie, but as ropes in a net.” The Chinese philosopher would see a family with interrelated members where the Greek saw a collection of persons with attributes that were independent of any connections with others. Complexity and interrelation meant for the Chinese that an attempt to understand the object without appreciation of its context was doomed.⁵

Nisbetts notes, comparing the Greek and Chinese, that the two utterly different approaches to the world have maintained themselves for thousands of years, and that these approaches include profoundly different social relations, views about the nature of the world, and characteristic thought processes, each of the orientations being a self-reinforcing, homeostatic system. The social practices promote the worldviews; the worldviews dictate the appropriate thought processes; and the thought processes both justify the worldviews and support the social practices. Nisbett takes account on the materialistic, not wholly deterministic however, the driving force of such social practices, having become necessary to each culture and society, constructing a worldview of their own, and reinforcing the cycle.



He explains that ecology of China, consisting of fertile plains and navigable rivers, favored agriculture and made centralize control of society easy. Since, agricultural people need to get along with one another they had to have a harmonious relationship with neighbors and with their magistrates, contrary to the Greeks where the ecology consisting mostly mountains favored hunting, herding, fishing, and trade. These activities required less cooperation with others so the Greeks had more liberty to act on their own than the Chinese. This economic livelihood made it necessary for the Chinese to look outward toward their peers and upward toward the authorities who were the main source of opportunities. This link to a network of relationships enabled the social obligations natural to them and it was wise avoiding conflict and contradiction. The Greeks had less

⁵ Richard E. Nisbett, *The Geography of Thought*, (New York: Free Press, 2004), 30–32.

restraint on their relationships with other people, allowing them to attend to more on objects and goals. This gave them the idea of self-control, since they were open to contradiction and resolving them. Nisbett finally addresses that this folk metaphysics from social practice influences the tacit epistemology of how we learn things. In other words, depending on which culture you belong you build a world view where relations among objects and people are crucial in determining outcomes, (Chinese) contrary to having a world view where the behavior of objects is governed by rules and categories, making it crucial to isolate the object from its context. (Greek) And these different worldviews become reinforced by continuous attention and social practice prompting differences in perception and reasoning processes.⁶

Individualism vs. Collectivism

Comparing individualistic cultures and collectivist cultures helps the understanding of different cultural relationships between individuals and groups.

Individualistic cultures stress the self, self-expression, self-fulfillment, personal achievement; people in these cultures tend to emphasize their self-concept in terms of self-esteem, self-identity, self-awareness, self-image, and self-expression. In other words, the individual is treated as the most important element. Organizations and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professionals have to go to extraordinary lengths to stress the importance of *teams, teaming, and teamwork* in individualistic cultures where personal goals supersede group goals and competition is encouraged. Individualistic cultures emphasize affiliations—how my individual “self” is affiliated with another individualized self—in dating, flirting, small talk, and social interactions (us, Britain, Canada, the Netherlands, Australia, New Zealand, Italy, Belgium, and Denmark). In other words, identity is based in the individual. Autonomy, variety and pleasure are sought in the system.

Collectivist cultures are characterized by a social framework in which self-concept plays a less significant role in interactions—not so much how my individual self is affiliated with another individualized self, but my in-group or collective is taken for granted, so the point of interest is the link of affiliation between my group and yours. In-group (immediate and extended family, work groups, ancient coalitions, and larger networks) and out-group members are clearly distinguished and only in-group views and needs are emphasized. In collectivistic cultures, people are seen as, and expected to be, interdependent and show conformity to the in-group’s norms and values. Social networks are more fixed and less reliant on individual initiative (Columbia, Venezuela, Pakistan, Peru, Taiwan, Thailand, Singapore, Chile and Hong Kong).⁷

Most individualist cultures are in (a) northern and western regions of Europe, (b) in north America, and (c) southern pacific—Australia, new Zealand and (until recently) characterized by wealthy, urbanized, industrial societies that represent a small portion of

⁶ Ibid., 34-39.

⁷ Clifford Geertz,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New York: Basic Books, 2000), 67-74.

동과서의 다른 시각들

the world's population. The most important values for those living in individualistic cultures include:

- freedom (a) of speech (and other expression), (b) to congregate, (c) of or from religion, (d) of the press, (e) to travel, (f) to own property, etc. (note: nearly all jihadist terrorists became al Qaeda operatives after lengthy residences in the west, and most say—even Atta, the leader of the 9/11 attack in his diary—that they found individual freedom to be horrible, a spiritual wasteland, a soulless state of despondency and misery. they found that they hated freedom worse than any other western value. their writings also reveal that they particularly hated the lure and attractiveness of western cultures—they were lost without the collective and its values);
- honesty,
- social recognition of the individual,
- rule of law and primacy of the contract,
- comfort and convenience,
- hedonism,
- materialism (capitalism), and
- personal equity (individual and property rights especially and the equity distribution notion that those contributing the most are rewarded the most—as opposed to the collectivistic notion that all share equally).

Previously, the distinction was that collectivistic cultures tend to be less industrialized and wealthy, more rural. However, today, Japan, India, South Korea, Taiwan, Singapore, Hong Kong, Malaysia, and huge portions of china, though more and more industrialized, retain much of their collectivistic nature. In other words, identity is based in the social system. Order is provided by the organization. The most important values for those in collectivist cultures include *virtue* as exhibited through:

- harmony,
- face-saving,
- respect for and conformity to the wishes of elders and parents,
- long term, close relationships
- equality in the distribution of rewards among peers (fostering group harmony)
- Fulfillment of the needs of others, particularly in-group.⁸

Summary

We have seen that there has been and still exists a huge gap in perceiving the world between the West and East. By categorizing these differences by context (High and Low), by social orientation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shows how different and how deeply

⁸ Tracy Novinger,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 Practical Guide*. (Austin, TX; 2001), 83–85.

백성인

these societies and cultures understand life and the world around them, and how these differences have and still are causing misunderstanding and miscommunication among one another. However, this paper report does not intend to illumine which perception is superior/inferior nor right or wrong, but is rather to acknowledge these differences and understand each side's context and to ponder on how to approach toward one another in a more complex and dynamic society of today.

Bibliography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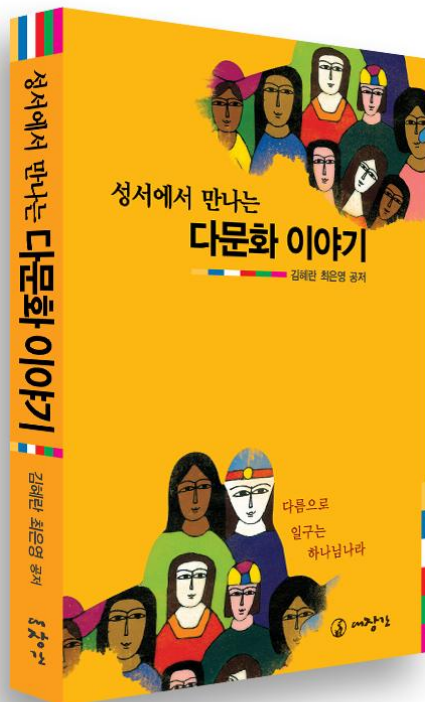
- 동과 서: 명사로 세상을 보는 서양인, 동사로 세상을 보는 동양. 다큐프라임. EBS. 21 Apr. 2008.
Hofstede, G., *Culture's Consequences*, (Beverly Hills, CA: Sage, 1988).
Geertz, Cliffor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New York: Basic Books, 2000).
Nisbett, Richard E. *The Geography of Thought*, (New York: Free Press, 2004).
Novinger, Tracy,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 Practical Guide*, (Austin, TX: 2001).

새책소개 Introducing New Book in Korean

Multicultural Stories Encountered in the Bible: the Reign of God Through Respecting Differences

Authors: HyeRan Kim-Cragg and Eun Young Choi

Year of Publication: Jan 2013



Summary: The book explores reading the stories in the Bible from a perspective of migration. The authors recognize the world in which we live is the world of migration where so many people leave their homes to a new strange place by force or by choice. They help to discover that such migration reality is also found in the Bible. In fact, our faith stories began with the story of Abraham who was called by God to leave their home. Taking 12 different stories from Genesis to the Acts, the authors lift up the stories of Hagar, Tamar, Moses, Ruth and Naomi, Jonah, Jesus' family, and those of Lydia to name just a few. They re-tell the stories as if the persons in the Bible are telling their stories to us, the contemporary hearers and readers of the 21st century. Each chapter has a brief scholarly commentary of the text, as well as the real examples of multicultural and migration issues in Korea, which can be applied and relevant to North American contexts. It

ends with the guided questions for readers for praxis and practical engagements.

The book is intended for to be used in Bible studies, intercultural ministry, Christian education and preaching settings.